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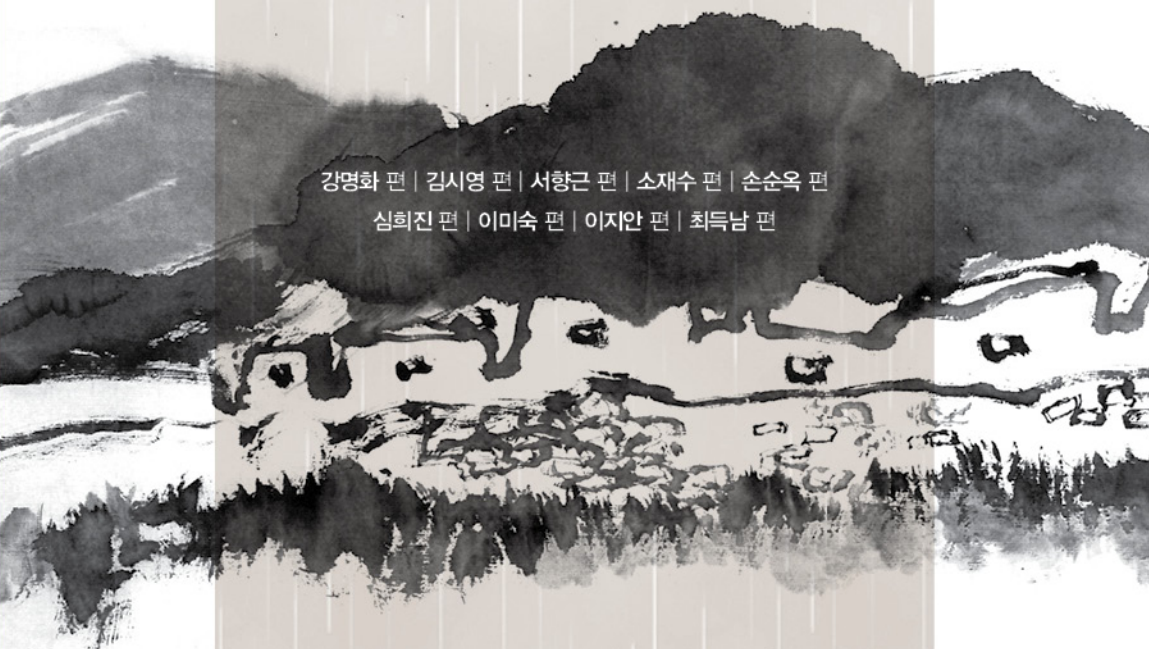
2013

성북문예

창간호

비오는
날의
정경

강명화 편 | 김시영 편 | 서향근 편 | 소재수 편 | 손순옥 편
심희진 편 | 이미숙 편 | 이지안 편 | 최득남 편





성북문화원

깊은맛 · 나눔 · 즐거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초부터 전통문화 수호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법정 문화진흥기관이자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전수시설로서 전국 229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현재 성북문화원은 다양하고 알찬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성북구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고
구민의 문화예술 감성을 개발 ·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북문화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성북 문예

창간호

2013



성북문화원
깊은맛 · 나눔 · 즐김

축 사

문예창작실기반 문집 발간을 자축하며



성북문화원 원장 조 태 권

어느덧 가을입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가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계절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어서인지 올해는 그만큼 큰 풍년이 라고 합니다. 노랗게 물든 논도, 빨갭게 익은 사과도, 탐스럽게 익은 포도도 이런 뜨거움을 이겨낸 결실입니다.

이런 결실의 계절, 성북문화원 문예창작 실기반 수강생들도 《성북문예》 창간호를 통해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본래 문인들의 창작 공간이었습니다. 성북동의 한용운과 조지훈 그리고 김광섭과 이태준, 정릉의 박경리, 고은 등은 성북구에 자리를 잡고 창작활동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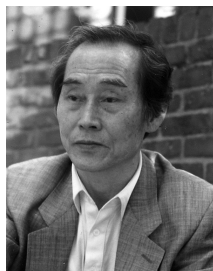
96년 설립 이래, 성북문화원은 성북구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강생들의 소설수필·시 등의 창작물을 한데 모아 잡지로 발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창간호를 계기로 성북구 문인들의 전통이 이어지고, 《성북문예》가 성북구의 대표적인 문학잡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성북문화원 문예창작 실기반의 손영목 선생님을 비롯한 수강생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간 사

큰 산을 향한 힘찬 첫걸음



문예창작실기반 강사 **손영목**

문예창작실기반 이름표 내걸고 우리교실이 문을 연 지 어언 이태가 가까워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대로, 출범 초기의 어려움을 순탄하게 극복하고 이제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유능하지 못한 강사를 믿고 열심히 따라준 수강회원님 여러분과 문화원의 전폭지원 덕택이므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단위 문화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모든 여건이 양호한 편인 서울의 각 문화원 중에서도 단순한 교양청강 수준을 넘어 창작실기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문학강좌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우리교실은 극히 드문 예에 속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나름의 사명감에서 커리큘럼부터 일반문과대학의 천편일률적 틀을 벗어나는 독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수강회원님들의 전폭적 호응 아래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설과 수필과 시 부문에서 네 회원님이 이미 문단에 데뷔하셨고, 대기순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품은 회원님도 여럿입니다.

이 조출한 첫 문집으로 우리교실의 작으나마 성공적인 ‘오늘’을 보여드리는 동시에 더욱 보람차고 발전적인 ‘내일’도 기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목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직무대행 역임
한국문인협회 이사 역임
현재 『한국문협60년사』 편찬위원장

차례

조태권 | 문예창작실기반 문집 발간을 자축하며

손영목 | 큰 산을 향한 힘찬 첫걸음

강명화 편 |

소설 제주 해전(海戰)	13
타이밍	25
붉은발말뚝게	43
차력 쇼	51

김시영 편 |

수필 노을의 아름다움	61
바늘꽃	64
소박한 설 이야기	67
시 어버이 송(頌)	72
나에게 쓰는 편지	74

서향근 편 |

수필 어느 중환자의 하루	77
아버지의 영웅	83

소재수 편 I

소설	둔덕리의 화창한 가을	89
수필	보리싹 돋아날 때면	98
	아날로그 설날과 디지털 추석	103
시	고운 님 고운 바람	108
	연못 하나, 가슴속에	110

손순옥 편 I

수필	캄보디아, 공존의 미학	115
	2월	122
	매미와 알려지	126
시	선잠단	129
	비오는 날의 정경	130

심희진 편 I

소설	남자 머리 위에 앉은 여자	133
	할머니, 오늘도 행쇼!	146
수필	콩닥콩닥	162
	매일 하늘나라로 출장 가는 아빠	168
시	애심(哀心)	173
	구속	174

이미숙 편 |

수필 화분 하나	177
어머니의 노래	183
시계와 생명	187

이지안 편 |

소설 판생각 지구	193
임승수 재활의학과	213
남편의 아침밥	235
시 익숙한 사랑	240
청수장	242

최득남 편 |

수필 부모님 노래	245
철없는 고민	255
고소하고 달콤한 추억	261



강명화 편

소설 제주 해전(海戰)

타이밍

붉은발말뚝게

차력 쇼

폭탄 전문가

당신의 베란다에 반경 1km이상 초토화시킬 수 있는 폭탄이
초읽기를 하고 있다.

매의 눈으로 유심히 살핀다. 누군가가 만진 흔적이 있는지, 잠시 방
심한 사이 누가 채가지는 않았지, 수아는 물건을 가슴 한 켠에 꼭 쥐고
주위를 둘러본다.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일이라 그녀의 흰자위가 붉게
충혈 되어 있다.

둘째아이에게 입힐 나폴나폴한 원피스를 찾아 며칠 동안 발품을 팔
았지만'가격대비 만족'이 큰 물건은 눈에 띄지 않았고, 정상매장의 신
상품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나긋나긋하던 판매원의 목
소리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이 묻어났다. 판매원은 수아가 형클어
뜨린 매대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안 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가

판매원의 눈치를 보가며 티셔츠 한 장 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핸드폰의 문자 수신 진동음이 울린 것이다.

이준석, 남편은 또 수아의 별명을 지었다. 폭탄 전문가.

문자를 확인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녀의 얼굴에 낭패감이 스쳤다.

‘마이너스의 손, 에밀레종…….’

준석이 지어준 수아의 별명이다. 신혼 초, 가지고 있던 펀드의 반토막을 필두로 그녀의 손이 닿는 모든 가전제품은 고장이 나곤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웬만해선 집안 살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간단하게 입력된 매뉴얼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저녁을 굶어야했고, 출력을 하다 프린터기에 끼인 종이는 허연 헛바닥을 날름거리며 준석의 손길을 기다렸다.

준석은 주방 일을 하고 있는 수아의 뒤태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한두 번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치한한테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툭 치고 나서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울림이 좋거든. 에밀레종이 그래서 울림이 좋은가 봐.”

휘파람을 불며 준석은 유유히 사라졌다. 마치 아내의 엉덩이를 한두 번 툭툭 치는 것이 일상의 평화로움을 확인하는 지표인 듯.

“아! 그래? 그럼 국보급 엉덩이네?”

금시 화색이 돌며, 그를 향하여 크게 소리쳤다. 수아는 자기 핑퍼짐한 엉덩이를 한순간에 국보급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준석이 싫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수아의 신경은 예민했다. 딸아이가 원하는, 프린이 잔

뜩 달린 핑크색 원피스를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했기 때문이다. 가슴팍의 고양이 한 마리가 왜 그리 비싼 건지, 아무리 여섯 살 눈높이로 보려고 해도 유지한 걸 어쩔 수는 없었다. 또한, 그녀의 팔에는 자신을 위한 고가의 하늘거리는 노란색 쉬폰 드레스가 담긴 쇼핑백이 무겁게 들려 있었다.

남편의 문자는 친절한 경고였다.

지난겨울, 제주도에서 머릿니처럼 생긴 벌레가 잔뜩 묻어 있는 굴두 박스를 택배로 받았다. 수아는 수세미로 벌레를 박박 긁다시피 떼어내고 정성껏 씻어 설탕을 가득 부어 밀봉해 두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다. 매실즙을 넣어 두었던 페트병의 마개가 ‘핑’하는 폭발음과 함께 천장을 향해 날아갔고, 준석은 베란다의 굴을 떠올렸다.

“윤수아, 넌 발효사업을 하면 무조건 돼.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한 번 묻어 두고 나면 절대 열어보지 않는, 그런 거.”

준석의 비아냥거림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오미자도 그랬고, 머루포도도 그랬다. 냉장고에 들어가면 형태를 바꾸어 나오는 것들이 많았다.

주말에 제주도여행이 계획되어져 있었고, 남편의 문자는 떠나기 전에 굴즙을 처리하라는 압력이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여행을 제주도로 가자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수아는 잠시 후회가 됐으나, 팔 사이에 끼고 있던 핑크색 원피스가 흘러내림과 동시에 마디 굵은 누군가의 손이 원피스를 움켜잡는 것을 보곤 남편의 문자를 금방 잊었다. 그녀는 재빨리 팔뚝을 가슴에 힘주어 붙이며 원피스의 끝자락을 잡았고, 짧은 순간 쉽지 않은 쟁탈전이

벌어지리라 생각했다. ‘경쟁자가 있어야 치열해진다’며 아이의 음식을 게걸스럽게 빼앗아 먹던 남편의 말이 귓가에서 왕왕거렸다.

“아, 바다다!”

객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던진 수아는 자석에 들러붙는 쇠 조각처럼 베란다 창문에 두 손바닥과 이마를 붙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거 봐. 역시 P콘도의 전망이 최고라니까.”

바다 전망 값으로 몇 만원을 더 주더라도 꼭 실내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그녀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에선 항상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찌면 연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었는지도 몰랐다. 그것도 아니라면 끝을 유예하고 싶어 눈곱을 매달고 사는지도 몰랐다. 옥색 한복 치마를 무릎 위에 펼쳐 놓고 얼굴을 묻기도 하고 치마폭에 감겨 보기도 했다. 산수화가 그려진 치마폭에 싸여 끝도 없는 산속을 헤매고, 빛도 들지 않는 물속 어둠을 헤맸다. 그녀의 세상은 고작 세 폭 치마 만큼이었다. 여행 내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길 원했고, 지금 눈앞에 푸른 바다가 있었다.

수아는 창을 열고 발코니로 나갔다. 5층까지 뻗은 야자수는 바람의 위력을 보여주는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부풀리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럭비선수처럼 어깨가 들렸다. 오랫동안 숨을 내뿔으며, 올라갔던 어깨를 천천히 내리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바람결에 비릿한 냄새가 묻어왔다.

재래시장에서 대야에 담겨 있는 미역귀를 툇 꺾어 손바닥으로 쓱쓱

닭아 배어 먹으며 가격을 흥정하던 수아였다. 그런 그녀를 준석은 인상을 찡그리며, 한편으로는 새삼스럽게 바라봤었다. 준석은 비릿함을 좋아하는 그녀가 좋았지만, 날것을 같이 먹어주지는 않았다. 수아 자신은 날것을 먹으면서도 준석에게는 부드럽고 푸르게 데쳐 오 센티미터씩 잘라 가지런하게 식탁에 놓아주었다.

길게 이어진 수평선을 한눈에 담고자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목을 빼가며 보던 그녀의 목이 움츠러들었다.

“어, 저게 뭐지? 여보! 저기 보이는 게 뭐야?”

수아는 짐을 풀고 있는 준석에게 들리도록 크게 소리쳤다.

“뭐가?”

준석이 창가로 다가왔다. 노란색 쉬폰 드레스의 어깨선을 맞춰 옷걸이에 거느라 양팔을 뻗은 준석은 마치 왈츠라도 추는 듯이 경쾌해 보였다.

“아, 저거! 해…….”

그 때, 옆에 있던 둘째아이가 베란다 창문을 닫아버렸다. 엄마를 베란다에 가둔 아이는 깔깔대며 웃었고, 영화가 끝난 후 빠르게 내려오는 자막 뒤의 배우처럼, 준석의 말은 야자수 잎의 아우성에 묻혀버렸다.

“안 돼! 안 돼! 이거 놓으란 말야!”

수아는 덮고 있던 훌리볼을 마구 끌어당기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옆에서 자던 준석이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눈을 뜬 수아는 새우처럼 몸을 오그라뜨리며 이볼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다. 준석에게 이볼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준석은 돌아누운 수아의 어깨 위로 야자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야수의 거대한 손이 그녀를 어둠속에 가두었다. 그림자의 갈라진 틈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가 깊은 한숨으로 조금씩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준석은 설핏 문소리를 들었다. 어제 새벽에도, 그제 새벽에도, 지난 밤에도 수아는 아이들이 잠든 후 외출했었다.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준석은 벌떡 일어났다. 아이들이 깨지 않게 주섬주섬 옷을 껴입고 수아의 뒤를 밟아 나섰다. 먼 하늘이 푸르게 번져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사위는 어둑어둑했다. 준석은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그녀의 뒤를 미행했다.

‘해외여행을 마다하고 제주도를 고집했을 때 눈치 챌어야 했어. 바보같이……그놈이 제주 출신이라 했었지. 아, 그게 왜 이제야 생각났지?’

준석은 관광 내내 보여준 그녀의 시큰둥한 반응을 떠올렸다. 아이들에게 억지로 끌려 다니던 수아의 행동이 석연치 않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여겼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멍하니 앉아 그놈 생각을 하다니……아이들과 내 앞에서.’

준석은 가슴이 쿵쥔거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에라도 달려가 수아의 찰랑이는 머리채를 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배신감에 사로잡힌 바로 그 순간,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수아의 흰 목덜미가 가없어서 그는 당혹스러웠다. 그녀는 습관처럼 말했다. 목이 길어 슬프다고. 그래서일까…….

서둘러 걸어가던 수아가 멈춰 섰다. 강정교 난간에 기대어 긴 목을

빠고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입구에서 보초를 서던 전경이 수아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 보았다. 준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풀로 위축됨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여기저기 걸려있는 선동적인 현수막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런 못나떨어진 자신이 불쾌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수아가 강정천 옆 숲길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뒤쫓으며, 준석은 자기도 모르게 냉정해졌다. 낯가름 간질이는 강물의 속삭임과 정수리까지 파고드는 맑은 새소리, 이슬을 머금은 흙냄새가 폐부까지 차올랐다. 심장 박동이 늦추어졌다. 준석은 잠시나마 아침 산책을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자신이 못마땅했다.

수아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무리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던 길을 갔고, 엉거주춤 판전을 피우는 준석의 옆으로 그들이 지나쳤다. 수녀 둘과 남자 하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길 기다리다 숲길을 돌아 봤을 때, 거기에 수아는 없었다. 준석은 숲길을 달렸다. 어느 순간, 길은 끊어지고 하늘이 넓어졌다. 숲의 끝에 바다가 이어져 있었다. 강정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었다.

크고 작은 바위들 사이를 오르내리며 수아를 찾던 준석은 바위 사이에 요새처럼 들어앉아 있는 텐트를 발견했다. 수십 개의 빨랫줄이 마치 죄인을 포박하듯 텐트를 에워싸고 사방의 바위에 묶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사람이 있었던 듯 주위가 어질러져 있었고, 밤새 바닷바람과 싸운 텐트는 패잔병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찌그러지고 퍼지길 반복하고 있었다.

수녀들과 동행하던 남자의 초췌하고 꾸부정한 자세는 그가 텐트의

주인임을 말해주었고, 한뼉잠을 잔 남자의 관절이 걸을 때마다 삐거덕 거리는 것 같았다. 준석은 멀어져가는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해안가에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는 굴착기와 굴삭기는 구조물처럼 서 있었고, 바위에는 노란색 깃발 몇 개가 넘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꽂혀 있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뒤를 밟은 준석을 조롱하듯, 텐트 앞에는 한 아름의 백합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해안가 바위 뒤에서 수아가 긴 장대를 들고 불쑥 나타났다. 그녀는 바위틈에 장대를 꽂고 주위에 자갈들을 쌓았다. 장대 끝 삼분의 일 지점에 짧은 막대를 십자 모양으로 엮어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긴 장대 끝을 잡고 몇 번 흔들어보던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준석은 흠칫 놀랐다. 수아의 노란색 쉬폰 드레스였다. 며칠 동안 사달라고 졸라대던 그 드레스였다. 딸아이와 함께 커플룩으로 입겠다며, 흐린 날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온다고 좋아하더니. 하지만 여행 내내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수아는 천천히 드레스를 펼쳤다.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가로 한 마리 나비가 날개를 펼치듯 드레스는 바람을 타고 너풀거렸다. 수아는 긴 장대에 드레스를 걸었다. 검정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준석은 아내의 몸에 반쯤 가려진 드레스가 호랑나비 같다고 생각했다. 드레스의 주름이 바람에 펼쳐질 때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룩의 정체를 살폈다.

“해애……구우운……기……지 겨얼……사 바안……대……!”

수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부르짖음이었다.

‘해군기지 결사반대?’

바위 뒤에 쪼그려 앉아 있던 준석은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지? 미쳤구나.”

준석은 바위 위로 뛰어 오르며 중얼거렸다.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돌려 세운 준석은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꼭 다물었다. 수아의 등 뒤로 노란 날개가 펼쳐졌다. 그는 수아의 가녀린 어깨를 더 힘주어 잡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날아가버릴 것만 같았다.

“가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준석은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쓸데없는 짓? 저 펜스를 봐! 이 아름다운 구름비에 저 철조망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바위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이 볼 땐 그냥 바위겠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 오랜 세월 그들의 고향이자 역사야. 바위 하나 지키려고 절대권력에 맞서 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강정천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희희낙락 즐길 때, 여기 이 바위에 텐트를 붙들어 매놓고, 쇠사슬을 몸에 감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 그런 것도 모르고, 난……그런 것도 모르고 밀짚 모자에 노란색 쉬폰 드레스를 치렁치렁 걸치고 마을을 거닐었던 거야. 벽화를 감상하며 말이야……. 노란색 깃발이 눈에 들어왔지. 그때 알았어. 나는 깃발의 꼬챙이보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

“부끄러웠어……오랜만에 부끄러웠어. 가슴부터 발끝까지 내려다 보며, 내 옷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 발가벗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선다고 이런 부끄러움을 알까?”

준석은 수아의 입에서 나온 부끄러움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

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나마 아내를 의심했던 치졸함을, 발밑에 흐르고 있는 강물에 실어 아무도 모르게 먼 바다로 떠나보내리라 다짐했다.

“도대체 너의 그 알량한 신념이 뭐 길래 이러는 거야?”

“신념? 난 그런 거 없어. 단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십만 년 된 바위를 깨부수는 건 옳지 않다는 것밖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논리만을 내세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새벽에 돌아다니더니 길거리 투쟁꾼들한테 완전히 세뇌 당했군.”

“당신이야말로 색깔론을 앞세워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경진압을 하는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네?”

“설사 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공사를 강행하다 생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반대하면 안 되지. 반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강정마을 바위들이 대신 싸워주냐?”

수아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다.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야. 중국과 일본이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는데, 우리끼리 평화를 읊조린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야!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준석의 언성이 높아졌다.

“나, 여기 남고 싶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야. 주민들이 많이 지쳤어. 새로운 피가 필요해.”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쭙잖은 감상에 젖어 포즈만 취하지 말고, 말뚱게 액세서리나 하

나 사 가면 되는 거야! 그게 감상적인 너보다 강정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란 걸 몰라? 퍼포먼스는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아!”

준석은 잔인했다.

“평생에 한 번, 마음이 움직이는 데로 하고 싶어. 옆에서, 아니, 멀리서 힐끗힐끗 훑쳐만 보는 비겁한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수아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소리쳐서, 안 된다고, 온몸을 던져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

준석의 시야로 바위에 부딪쳐 잘게 부서지는 파도가 들어왔다.

“좋아, 네가 환경운동가가 되든지 평화운동가가 되든지 난 상관 없겠어. 다만, 명심해야 할 건 더 이상 스무 살의 가증스러운 취미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야. 너의 사치스러운 취미를 위해 내게 많은 걸 강요하지는 마. 내 일상을, 가정을, 내 계획을 망치지 마!”

준석은 자신의 결혼생활이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 균열이 가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은 영혼을 잡아먹히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석은 텅 비어버린 수아의 눈에 채워지는 바다를 보았다. 십 년 전에도 그녀는 저런 눈을 가졌었지…….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외면해야 할 갈망들이 솟구치곤 했었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끝없이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새벽미사를 다녀온 수아는 준석이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음을 알았다. 메모 한 장 없이 트렁크 하나만 덜렁 남겨진 방은 을씨년스러

왔다. 수아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

‘아, 자유다…….’

며칠 동안 쌓인 피곤이 밀려왔다.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갔다.

정오가 넘은 시간, 잠에서 깬 수아는 아이들이 없는 공간이 텅없이 크게 느껴졌다. 휴대폰의 배터리도 한 칸 밖에 남지 않았다. 수아의 배터리를 항상 갈아 끼우는 것은 준석의 손이었다.

‘굴 폭탄도 제거해야 하고, 통장에 급식비도 넣어야 하고, 정육점에 부탁해 두었던 고기도 찾아야 해. 아, 이번 주에 둘째아이 김밥을 싸야 하는데……와이셔츠 다려 놓은 게 몇 개나 남았지?’

흔들리는 야자수를 보며 침대에 누워 있던 수아는 야자수를 흔드는 바람이 자기에게도 불어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내게 욕박을 지르거나 회유책을 쓰지도 않고 홀연히 떠나버렸어. 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나란 존재가 어차피 자기 궤도 안에 존재한다고 자신하니까. 간악하게도……. 그는 내가 서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날 남겨둔 거야. 휘파람을 불며 두 아이 손을 이끌고 게이트를 넘었을 테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수아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항공기 탑승은 이미 시작되었고, 통유리 창밖 하늘은 굴뚝으로 물이 들고 있었다. 공항 대합실 안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시간대. 불행한 일은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수아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동요하는 가슴을 억제하며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에서 5번 게이트 불빛이 반짝거렸다.

배우들이 인사를 한 후, 조명을 내렸다. 객석의 불이 켜지며 웅성웅성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몰리는 사람들을 확인한 다음, 성태는 의자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료 하나가 좁은 조명실로 들어섰다.

“야! 너 오늘 왜 그래?”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배우들은 본능적으로 타이밍의 어긋남을 알아 차렸다.

“짜아식이, 어제 공짜 술이라고 마셔대더니……. 유명한 집이라 그런지 맛있긴 맛있더라. 그 선배 고기값 좀 나왔을 거다. 내가 5인분은 먹었거든.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우리한테 팍팍 좀 뿌려도 되는 거 아냐? 에이, 되는 놈은 어딜 가나 잘 되고, 누군 밥하고 김치도 제때 못 먹고.”

성태보다 술이 덜 깬 듯한 친구의 눈이 축축해지는 것과 동시에, 밥하고 김치도 못 먹은 배 치고는 너무 출렁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

며, 성태는 조명실 문을 밀고 나왔다.

친구는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굶어죽은 감독’과 작품을 같이 했었고 얼마간의 친분이 있었다. 예술가가 아닌 다른 모든 이들이 가해자인 양, 그는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욕을 해댔다. 그 사건을 빌미로 몇 달씩 술에 절어 방향도 없고 대안도 없는 대화로 시간을 보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다.

성태는 단원들의 손에 이끌려 죽은 감독의 장례식은 다녀왔지만, 그 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자기보다는 조금 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울 리 만무했다. 그들에 맞게 정리된 질서를 재정비할 이유는 없었다. 성태는 술기운이 오르면, 살아있다는 것만 다를 뿐 죽은 감독과 처지가 별다르지 않다고 자조하곤 했다.

마주치는 단원들의 의문과 질책을 담은 시선이 불편했다. 성태가 극장을 막 나왔을 때, 지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그를 잡았다.

“선배!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도 자격증이 생길 거라구. 다음 공연에는 배역 맡을 수 있을 거야.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왜 그래? 선배답지 않게.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거야? 나 실망시키지 말고. 알았지? 응?”

언제나 그랬듯 지우는 포기도 빠르고 시작도 빨랐다. 그녀 역시 공연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성태는 그럴 때마다 이질감을 느꼈다. 절망의 숫자가 더 많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언젠가 절망의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될 뿐이었다.

지우의 전화벨이 울리자 둘은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고, 성태는 그녀의 어깨를 두어 번 쳐주며 돌아섰다.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닌 게 문제지.’

그러고 보니, 아직 휴대폰을 찾지 못했다. 어젯밤 술자리에서 지금은 다른 극단으로 옮겨 간 동기가 자기 건 주머니에 넣은 채, 똑같은 기종인 성태의 휴대폰을 가져가 버렸고, 새벽에 지방공연을 갔으니 천생 공연이 없는 월요일에나 만날 수 있었다.

어젯밤 만취해서 지우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흥분했다. 탁자에 걸려 있던 팔꿈치가 연신 아래로 떨어지며 그녀의 몸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상체가 테이블 아래로 쏠릴 때마다 살짝살짝 가슴골이 드러났다. 머쉬멜로처럼 말캉말캉해 보였다. 지우는 핑크색 블라우스의 양쪽 어깨선을 엄지와 검지로 집게로 집듯 쥐곤 등 쪽으로 재봉선을 넘겼다. 목이 짧아진 채로 떠드는 그녀가 우스꽝스러웠지만, 성태는 그런 그녀가 귀엽게 느껴졌다. 이미 지나온 자신의 모습이었다.

‘저쪽 테이블이었나……그 때도 지금처럼 침침한 백열 전구아래였고, 나무를 반으로 자른 탁자였어. 취객들의 부주의한 손놀림으로 엮어진 술잔에선 반쯤 남은 술이 나무결 따라 갈라진 틈새로 흘렀고, 탁자 아래 초라한 허벅지를 축축하게 적시곤 했지. 그야말로 술에 절어 있었어……. 내 안의 못난 것들은 알코올로 모두 휘발시켜 버렸지. 게워 내거나. 내가 가진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바뀐 건 없어. 아하! 있다면 있지. 어떤 조직에서든 힘이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한 모드의 연기가 가능해졌다는 거. 비록 그 힘이라는 것이 1킬로그램짜리 아령 하나 들 힘일지언정.’

성태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인이 붙어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떠올릴 때 찾는 주점이었다. A4용지의 커다란 사인은 마치 그들의 성공을 과시하듯 거침없이 휘갈겨져 있었다. 코팅된 사인은 겸손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었고, 심지어 대각선으로 길게 뻗은 마지막 글자는 하늘 끝까지 오르겠다는 가열찬 야망을 보는 듯해서 비위가 상했다. 성태는 새끼손가락으로 코딱지를 째다. 그 중 제일 무례한 사인에 비비적댔다.

“예술가자격증이란 게 뭐야? 그럼 난 5급쯤은 되는 거야? 누가 어떻게 자격증을 줄 건데. 너 막내! 넌 몇 급이냐?”

선배들이 주는 대로 받아 마시던, 엇그제 새로 들어온 스무 살 가량의 단원에게 모두의 눈길이 쏠렸다. 입구 쪽에서 그는 겨우 한쪽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있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상대로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 과장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기와 끼와 미모에 주눅이 들어 두꺼비처럼 눈만 껌벅거렸다.

“예, 선배님! 전……수능 올 4등급입니다.”

신입의 정중하고 깎듯한 대답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와아’하고 떠들썩해졌다. 코미디 배우 하나 들어왔다고도 하고, 청정지역이라고도 하며 신입 단원을 놀려 댔고, 물주가 있는 술판은 단원들이 오랜만에 주판알 튕기지 않고 맘껏 ‘이모’를 부르게 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지우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녀드리는 메아리처럼 술집 안을 맴돌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단원들도 같았다. 하지만 지우의 말에 대한 동의는 아니었다. 가난과 절망이라는 돌다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들에게 돌다리는 위태로웠고, 그것을 휘감아 도는 세상이라는 물살은 생각보다 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수위였다. 삶의 불확정성과 그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그들은

매순간 무대 위에서 캄캄한 어둠을 상대로 끊임없이 묻고 절규하는 것 인지도 몰랐다. 그런 그들에게 지우의 세상은 관대해 보였고, 소풍처럼 두근거리며 기대가 되는 살만한 곳처럼 보였다. 한술밥을 먹고 있었지만 태생이 다름은 부인할 수 없었다.

지우는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엄마가 화인처럼 따라붙는 것이 진저리치게 싫었지만, 그나마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돈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불어난 재산을 주체 못해 도박하는 엄마와 바람피우는 아빠 사이에서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빨간 스포츠카였고, 명품 백이었다. 그녀가 그 집안에 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타고난 미모와 반항기 짙은 시니컬한 태도는 배우로서는 완벽한 조건이었고,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낮을 잃고 바라볼 만큼 고혹적이었다. 노래할 때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 순수한 영혼이었다. 성태는 껌데기에 불과한 다른 모습들은 개의치 않았다. 단 한 번의 감동만으로도 평생을 기억하며 기꺼이 그녀의 편으로 남으리라 생각했다.

성태는 가난한 연극쟁이 틈에 끼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싶어 하는 그녀를 이해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과 그녀는 분명 구분할 수 있었다. 지우는 바닥을 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에 두려움도 없었다. ‘아님 말고’라는 그녀의 좌우명은, 인생이라는 것이 뒷동산 한 번 올랐다 내려오는 정도의 수고로움처럼 보였다.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방향이었다. 소주 한잔 먹을 때, 건조하지 않을 만큼의 비애를 얻기 위해 젊은 날의 한 귀퉁이를 내주고 있었다.

모두가 가지려고 하는 부와 명예가 처음부터 있어서는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우처럼 소위 ‘있는 집안’ 자식들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버리고 사서 고생을 하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성태는 그런 부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럴수록 더 자신만 비참해질 뿐이었다.

‘내가 너 만큼만 산다면, 너처럼 살지는 않아…….’

새삼 지우에게 느껴지는 자기의 감정이 미안해졌다. 수현에게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지우에게 위로받고, 다시 수현에게로 돌아갔다. 여전히 지우는 그에게 한결같은 피난처였다. 성태는 자기가 비겁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현과 지우, 둘에게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했다.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위안을 받고 싶을 때 수현과 함께 여느 부부처럼 마트에서 시식을 하고 있었고, 배우로서 위기의식어들 때면 예술가의 고뇌를 얘기하며 술 취해 지우와 밤거리를 거닐었다. 이미 연극판을 떠난 수현, 지금의 아내는 성태에게 더 이상 현장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성태 씨는 꿈 없어요? 그런 멍한 표정 말고 몽환적이지만 생기가 넘쳐흐르는, 당신을 보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안돼요?”

몇 해 전, 지하의 썰렁한 연습실에서 작가와 배우로 수현과 성태는 만났다. 성태는 평상시 수현의 잣아들듯 말하는 습관을 좋아했다. 발화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기원까지 거스르는 듯 느린 그녀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속으로 빠져드는 아련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연습중의 수현은 달랐다. 평화로움을 주었던 느낌은 오히려 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상대방을 그윽하게 바

라보는 수현의 눈빛은 그들의 말을 흡수했고, 그 짧은 휴지기는 배우들의 고집을 유연하게 꺾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발강게 달아오른 양 볼, 천천히 내려앉았다 치프는 눈꺼풀 앞에서 배우들은 설득을 당하곤 했다. 성태의 연기에 사사건건 토를 다는 수현에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가 가진 연극에 대한 열정과 촌스럽다고 느껴질 만큼의 고집스러움은 성태에겐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배우보다 이목구비가 더 또렷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우수를 담고 있었다. 투박한 외투 속에 가려져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은 극장 바닥에서 자장면을 먹을 때도, 막차 버스를 쫓아 뛰어가는 뒷모습에도 드러났다. 수현을 배우로 쓰고 싶어 하는 연출자의 간곡한 요청에 무대에 섰던 그녀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처연하게 오들오들 떨었다. 객석에서 수현을 바라보던 성태는 심장이 옥신거리며 뻣근해짐을 느꼈다.

뒤늦게 성태는 지우의 물질 공세에 비해 수현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불평을 했지만, 극작가로 살고 싶다는 그녀의 대본에 밑줄을 쳐가며 겨울 내내 대본을 점퍼 속에 돌돌 말아 넣고 다녔다. 베일 것처럼 날이 서있던 종이들이 숨처럼 보슬보슬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귀통이의 활자들은 굵히고 부러져서 날아가 버렸지만 그는 자다가도 일어나 외울 만큼 그녀의 대본을 아꼈다. 그리고 다음해 봄, 대본을 가슴에 품었듯이 수현을 안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각오로 그녀의 임대 아파트에서 가정을 꾸렸다.

수현은 열심히 뛰면서도 불안했다. 무게를 신지 않고 가볍게 땅을 밟았다. 그렇다고 걸을 수는 없었다. 서울행 마지막 고속버스를 놓치

면 또 찜질방에서 주말 저녁을 보내야했다. 수현은 찜질방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방법이 섬까지 오는 수고의 대가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와서 5만 원씩이나 주고 싸구려 원단으로 치장한 모텔 방에서 잘 수는 없었다.

실크를 가장한 삼베처럼 거친 침구는 왜소한 그녀를 잡아먹을 것처럼 기세등등했다. 침대 위에서 여러 개의 산을 이룬 이불은 손바닥으로 툭툭 쳐 주어야 차분히 가라앉았다. 뒤척일 때마다 산은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했다. 산을 따라 바위가 구르듯 과자 부스러기가 포르르 굴러 내렸다. 수현은 검지로 콧 쪽에 침대 밖으로 털어냈다. 원단의 질이 안 좋은 것은 참을 수 있었다. 갖가지 원색으로 나염된 꽃들 속에 얼굴만 빼꼼히 내놓고 있던 자신을 거울 속에서 마주칠 때 까지는.

사방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멀뚱멀뚱 바라보다 이불을 덮었다. 가슴에는 커다란 붉은 꽃이, 머리에는 노란 꽃이 활짝 피어나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수현은 화보처럼, 긴 머리를 풀어 사방으로 펼쳤다. 맨 다리와 팔을 꺼내 이불 밖에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각도를 바꾸어 보았다. 섹시 배우의 포즈를 흉내 내보던 수현은 천장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문득 낯설었다. 거울 속의 수현이 우주 끝으로 멀어져 갔다. 우리나라 지도 끄트머리에서 산발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밀랍처럼 굳어 있는 자신의 얼굴에선 어떤 표정도 찾아볼 순 없었다.

여수에 와 모텔 방을 이용한 이후, 다시는 모텔 근처의 불빛도 밝지 않았다.

그녀가 예술강사로 두라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은 주위 사람들

은 모두 ‘섬마을 선생님’이라며 놀려댔다. 사람들은 설마 거기까지 가겠냐고 웃어 넘겼지만, 수현의 삶은 이미 남쪽 끝을 넘어 섬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십 장의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예술강사 자리를 얻긴 했지만, 노른자위는 이미 사라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섬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나마 일상을 떠나 바람을 쐬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여수행 버스에 올랐다. 주말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됐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아무진 기대와 포부는 긴 거리를 오가는 동안 다 소진돼 버리고, 토요일 밤 12시를 넘긴 일요일 새벽마다 반쯤은 잠든 채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대개는, 성태는 집에 없었다. 수현이 섬으로 떠나는 주말마다 술을 먹거나, 때로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대학로에서부터 막차를 갈아타며, 경기도의 임대아파트까지 와주는 동료들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책 없는 인간들이다 싶기도 했다. 불쌍한 한 패거리가, 동지를 찾듯 그녀의 집에 모여 서로의 상처를 훑아주고 있었다. 그 중에는 얼마 전부터 세인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후배도 있었다. 이미 스타가 되어, 같이 밤새워 술 마시던 이쁜 후배는 더 이상 그들의 집을 찾지 않았다. 결혼사진에 남아 있는 수술 전 얼굴만이 한때나마 그들과 친분이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들의 집을 거쳐 가면 스타가 된다는 ‘썰’도 돌았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초조함과 불안한 생활에 서서히 평화는 깨지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마지막 고속버스를 가까스로 탄 수현은 흐린 불빛 속에서 좌석을 찾았다. 다행히 창가 쪽이었다. 그녀가 앉아 숨을 고르기

가 무섭게 버스는 출발했다. 급출발을 하는 통에 상체가 흔들리며 약간의 현기증이 났지만, 막차 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뿜었다. 문 닫히는 지하철에 아슬아슬하게 뛰어 들어갔을 때, 맨 앞줄에서 지하철 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다 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운전면허 시험에서 커트라인에 걸린 합격이 만점 합격보다 더 신났던 것처럼, 인생이란 참 묘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며 수현은 씩씩하게 웃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각오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웃음이었다.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칭칭 둘러매었던 목도리를 풀어서 커튼 걸이에 걸었다. 오래된 무대의 막처럼 빛바랜 커튼이 피곤한 듯 무심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둠보다 더 까만 차창에 흔들리며 자꾸만 사라져서는 자신의 얼굴을 붙들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고, 눈은 쾅하게 들어가 있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성태는 감기기운이 있다는 수현에게 그의 목도리를 꼼꼼히 감아 주었다.

“왜? 할 말 있어?”

성태는 목도리를 입가까지 올려주며 물었다. 그의 눈꺼풀도 입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어, 아니…….”

수현은 잠이 덜 깨서 부스스한 성태의 모습을 보고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타이밍은 언제나 중요했다. 인생의 무대에서는 더더욱.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레디 액션’을 외칠 순간을 아는 것이었다. 부모가 사업 운이 있을 때 태어나면 복덩이가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라면 태어난 아이 때문에 집안 운이 기울게 된

것일 테니. 자식들 다 모인 휴일 한낫 세상을 뜬다면 복 많은 노인네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밤중 홀로 비명횡사하는 지지리도 복 없는 노인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수현은 켤한 눈에 브라운 색의 목도리를 두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피식 웃어버렸다. 성태는 너구리같다고 말했었다.

직감적으로 아직 그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비밀번호를 누르다 두세 번을 실패하고는 짜증이 밀려왔다. 복도식 아파트라 등 뒤로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문 열리는 잠시 동안을 못 기다리고 조바심을 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비밀번호를 꺾꺾 눌렀다. 12190427, 그녀의 첫 작품을 무대에 올린 날과 그들의 결혼기념일의 조합이었다. 그제야 문이 열리고, 캄캄한 집안으로 급하게 들어섰다. 쉽게 벗겨지지 않는 부츠를 신경질적으로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현관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발은 오랜 시간 버스에 앉아 오느라 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있었다. 힘없는 손으로 남은 한 짝을 벗어 힘껏 던졌다. 현관문에 부딪친 부츠 한 짝이 뱀 허물처럼 흐물거리며 벗어둔 슬리퍼 위로 떨어졌다. 천천히 신발장에 머리를 기댔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이래야 하는 걸까.’

성태는 디귤자로 막힌 아파트 한 가운데 서서 자기 집을 올려다보았다. 임대료 석 달치가 밀렸다. 불 꺼져 있는 창을 바라보며 담배를 비벼 켜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수현을 생각하니 불 낮이 없었다. 그녀를 만나기가 두려웠다. 여수로 향하는 수현이 많이 피곤해 보였었다. 작품을 쓰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태는 잘 알고 있었다. 책상에 쌓여 있는 공과금 고지서들을 보며 내쉬었을 수현의 한

숨소리가 한밤의 아파트를 에워싸고 있었다.

“왜 전화 안 받아?”

신발을 벗는 성태에게 수현이 따지듯이 물었다. 현관 바닥에는 그녀의 아끼는 부츠가 목이 꺾인 채 제멋대로 엎어져 있었다.

“.....”

“내 말이 안 들려? 왜 전화 안 받냐구!”

성태는 또 지우와의 관계를 의심해서 수현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수현은 집요한 지우의 구애에 잘 버텨주는 그가 고마웠지만, 항상 마음속에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선배 체면에 남편 못 믿어 볶아대는 아줌마로 보이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었다.

“오디션 어떻게 됐어? 잘했어?”

성태는 대답도 없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던지며 욕실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현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누군가가 뒷모습을 보일 때면 털썩 겁부터 났다. 뒤 돌아선 모두의 어깨는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그 흐느낌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몫이었다.

수현이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아내와 자식을 완강하게 뿌리치고 그들 모녀를 떠났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비겁한 뒷모습만 남겼다. 이후로 수현은 누군가가 뒤 돌아서기 전에 먼저 돌아섰고, 어쩌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경우에는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아직도 아버지의 뒷모습은 흐느끼고 있었고, 아버지의 실루엣에 가려진 만큼의 세상은 볼 수 없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성태의 그것과 겹쳐졌다.

“얘기 좀 해. 나, 이제 여수 안 갈래.”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치사하게 느껴졌지만, 오늘은 그를 헐박하고 상처주고 싶었다. 매번 오디션에 떨어질 때마다 괜찮다며, 용기를 잃지 말라며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그를 달랬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하던 버스에서 저녁 내내 수현은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나 사랑하셨나요?’

수현은 진심으로 묻고 또 물었다. 작품의 대사로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낯부끄러운 질문을 되뇌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기도 했다.

물을 마시던 성태가 그녀를 쏘아 보았다.

“내가 가래서 간 거야? 네가 가고 싶다고 간 거잖아!”

“가고 싶어서 갔다구? 그래, 가고 싶어서 갔어. 미치도록 가고 싶어서 갔어! 네가 지우랑 술 퍼먹고 있을 때, 난 찜질방에서 새우잠 자며 이 년을 버텼어. 술 취한 미친놈들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 것 같아?”

수현이 억지를 쓴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태는 지우 얘기가 나오자 억울함에 발끈했다.

“왜 자꾸 상관도 없는 사람을 거론하는데? 너, 지우한테 콤플렉스 있지?”

“어, 맞아. 지우 맨날 힘들다하지? 뭐가? 엄마가 돈이 많아서? 오빠가 의사라서? 조용히 연극판에서 발 빼라 해, 물 흐려놓지 말고. 그만하면 체험은 충분히 했잖아?”

수현답지 않게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그만 하자.”

“왜? 지금이라도 지우한테 가고 싶음 가! 난, 자기한테 미련 없어. 지

쳤어…….”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걸까. 수현은 예민해진 자신을 그가 보듬어주길 바랐다. 너답지 않다고, 너 왜 그러냐고 물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오늘따라 더 냉정했다. 수현은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존재가 필요했다.

“너만 지쳐? 나는? 나는 항상 네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고? 네가 간절히 바랬잖아? 둘 중 하나라도 연극을 하자고. 네 스스로 그만두고, 이제 와서 나를 탓하는 거야? 내가 그만둔다 할 때, 너 어떻게 했어? 이혼하자고 했지?”

절친한 선배부부가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연기를 그만두고, 여자는 치과 조무사로, 남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씁쓸해했었다. 둘 중 하나는 살아남자고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다.

“명절 택배, 마트 주차요원, 빵집 알바, 조명설치, 기업 연수……. 더 대볼까? 넌 나보고 연출가들한테 얼굴 내밀지 못한다고 핀잔주지만, 나 시간 있니? 어떻게든 극장에 붙어 있어야 떡고물이라도 주울 텐데, 그거 안 되잖아!”

수현은 어린 시절 놀던 바닷가를 떠올렸다. 일정한 간격으로 섬 없이 다가오는 파도. 하나를 넘으면 숨 가쁘게 그 다음 파도에 대비해야 되었다. 그런데도 때로는 앞의 것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밀려왔고, 잠시 한 눈을 팔아 때맞춰 점프를 못하면 찌뽕물을 잔뜩 먹고 허우적거리거나 튜브가 뒤집혀 모래를 뒤집어쓰기 일쑤였다. 파도가 밀려오듯 고지서는 일정하게 날아오고 있었다.

“성태선배,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감미로운 향을 풍기며, 지우가 옆자리에 앉았다. 성태는 얼른 서류 봉투 속으로 쓰다 만 종이를 넣었다. 딱풀과 명함판 사진이 책상 위에 뒹굴고 있었다.

“선배! 호중선배가 핸드폰 가지고 온다고 군고구마 앞으로 2시까지 나오래.”

“그래, 고마워.”

공연이 없는 낮시간 동안 혜화동 로터리에서 배우들은 군고구마를 팔았다. 지우는 동네 미장원의 소식통처럼 맛깔나게 자기식대로 해석까지 하면서 잡다한 단원들의 일상을 몇 가지 전해주었다. 있잖아, 그랬대, 설마 그랬겠어? 이랬겠지. 그런 거라니까. 그녀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다.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잘 몰입하지만 끝내는 주관에 의한 가치판단으로 상황을 종료시켰다.

지우는 점심약속이 있다며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극장을 나갔다. 획 돌아 나가는 그녀의 긴 머리가 사방으로 제각각 뻗어 또 어디선가 이야기꺼리를 낚아채 올 축수처럼 너울거렸다. 그녀를 따르는 향기는 한 발짝 느리게 움직였다. 지우가 나간 뒤에도 그녀의 향기는 쿼퀴한 극장 안을 채우고 있었다. 성태는 지우와 있으면 레몬을 먹으면서 시소를 타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전, 손위 처남이 술 한 잔 하자는 전화를 걸어왔다.

“자네, 취직할 생각은 없나? 병원장이 친군데, 내 사정을 얘기하면 들어줄 길세.”

동생이 고생하는 게 못마땅해서인지, 넌지시 물어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월요일까지 접수니 잘 생각해보라는 말과 함께 남겼던 명함이 오늘

아침, 점퍼 속에서 고깃고깃한 채 만져졌다.

수현은 11시가 다 돼서 눈을 떴다. 성태가 이미 극장에 나가고 없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휴대폰을 찾았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더 어려워지는 법.

혜화동로터리를 지나 성대 방향으로 걸었다. 언젠가 봐둔 건물이 이쯤인데……. 수현이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가방 속에선 계속해서 전화가 울려대고 있었다.

‘야! 저기다. 양 산부인과.’

형광 핑크색 간판에 약간의 거부감이 일었지만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수현이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6층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에 주황색 불빛이 들어왔다.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벨소리가 수현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땡’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녀는 휴대폰을 터치했다. 지우였다. 달갑지 않은 전화였지만, 수현은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고 싶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매달린 것처럼, 누구라도 자기를 붙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녀는 전화기의 수신 버튼을 눌렀다.

“응, 지우야.”

“선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태선배가 연극 그만하겠다고면서 이력서 들고 나간 거 알아?”

수현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섞인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그랬다. 결국에 샐러리맨으로 만들려고 성태와 결혼한 거냐고, 지우는 수현에게 추궁하고 있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아랫배가 쭈시듯 아파왔다.

“두 시에 군고구마에서 호중선배 만난다 했어.”

자기 말은 듣지도 않고 나갔다면,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성태의 행방을 일러 주었다.

시계를 보니 2시 10분 전이었다. 수현은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다.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는 마치 상어의 입처럼 그녀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성태는 마음이 급했다. 마감이 되기 전에 이력서를 내야했다. 첫 월급을 타면 수현에게 지우가 입었던 것 같은 기다란 구스다운 점퍼를 사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봉투를 왼 손에 힘을 주었다.

“안 출냐? 고구마 하나 줘 봐라. 임마!”

병거지를 눌러 쓴 후배가 꺼내 준 고구마를 먹으며, 문득 서글퍼졌다.

‘고구마를 팔다가도 돌아갈 무대가 있는 저 자식이 눈물 나게 부럽네…….’

바람이 차가워서인지 콧물을 흘쩍거렸다. 목이 메었다. 잘 넘어가지 않는 게 고구마가 푹푹하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젓히고 주먹으로 가슴을 몇 번 치던 그의 눈이 뿌예졌다. 푸슬푸슬 날리던 눈결정체 하나가 성태의 얼굴 위에서 비칠거리다가 이마에 들러붙었다. 곧 물이 되어 눈가로 흘렀다.

“형! 내 주머니에 손 넣어봐. 아! 거기 말고……. 어, 거기! 호중 형이 바쁘다고 말기고 갔어.”

바닥이 빨간 목장갑을 낀 양손을 들어 올리며 한쪽 옆으로 엉덩이를 빼는 후배의 모습이 피 흘리며 투항해오는 인민군처럼 보였다.

“짜아식! 진작 말하지.”

사흘 만에 주인에게 돌아온 휴대폰은 생기를 되찾고 ‘드룩드룩’ 바쁘게 문자 수신을 알렸다. 스팸 문자가 몇 개, 오디션 안내 문자, 수현이…….

‘용서해. 나 혼자 감당할게.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 벗어나기 힘들 거야. 최소한 우리의 아이가 왔다 갔다는 것만은 알아야할 것 같아서. 아 직은 내 꿈을 실현시킬 때가 아닌가 봐.’

성태의 겨드랑이에 아슬아슬하게 끼었던 누런 서류봉투가 떨어졌다. 서류봉투 위로 먹던 군고구마가 철파덕 떨어져서 뭉개졌다.

혜화동로터리 건너편에서 급히 걸어오는 수현이 보였다.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이 시야를 흐렸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파도소리가 심상치 않다. 유난히 허영계, 간질환자가 부글부글 뿜어내는 입가의 침처럼, 파도는 밤새도록 바위에 부딪치며 포말을 만들어낸다. 며칠째 해를 가린 구름은 낮게 깔려 수평선의 경계가 모호하다. 위험을 감지한 돌고래는 자취를 감추고, 연산호의 군무도 사라진지 오래다. 포구 쪽의 수 백 개 비죽비죽 솟은 삼발이만이 하늘과 바다를 구분 짓는다. 일주일째 흩뿌리는 가랑비는 현무암의 색을 더 짙게 하고,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던 바위 위로 사람들의 육중한 발걸음이 바빠오고 간다.

가족들과 헤어지는 날도 비가 왔었지…….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 조만간 강제이주를 하게 될 거라고. 엄마는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만 한눈을 판 사이 가족들이 사라지고 말았어. 울 틈도 없이 나는 몸을 숨겨야 했고, 내 머리 위로 친구가 번쩍 들려 나가는 걸 쳐다만 봤지. 공중에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쳤

지만, 그 때 나는 내 몸을 더 깊이 숨겼지. 한바탕 아수라장이 된 후의 바위에는 아무도……아무도 없었어.

유나가 말했다.

“너,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엄마가 오면 찾을 수 있게.”

하지만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순 없었다. 바위를 헛짚고 미끄러진 작업화에 깔려 하마터면 집게발을 잃을 뻔했다.

유나의 하얀 원피스 끝에 매달려 타는 그네는, 바위에서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만큼이나 스릴이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매달린 것은 아니었다. 유나의 포플린 원피스는 얇고 미끄러워 매달려 있으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하지만 유나가 치마 끝을 돌돌 말아 집게발 사이에 끼우는 방법을 고안한 후론 한참 동안 매달릴 수 있었다. 달큰한 땀내가 뻘 하얀 치마가 몸에 휘어 감길 때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슬픔이 아련하게 밀려왔다.

“꼭 잡아! 내가 놀이기구 태워 줄게!”

유나는 한껏 치마를 부풀리며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까르르 까르르’ 웃는 유나의 목소리와 파도소리가 어우러져 파란 하늘로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온갖 중장비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며칠 전에는 4미터가 넘게 바위를 뚫기도 했다. 몇 사람이 웅성거리며 다가와 나의 은신처에도 뭔가를 조심스럽게 쑤서 넣더니 옆으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긴장감 속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소리가 근심스럽고 불안하게 들렸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곳을 떠나야겠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유나와도 놀 수 없는데……. 그래, 일단 저 펜스를 넘자. 저쪽 해안가로 돌아

서 가면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유나한테 갈 수 있을 거야.’

괴물처럼 생긴 시끄럽고 거대한 중장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사는 곳에 자주 놀러왔다. 낮에는 아이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래잡기를 했다. 내가 잡힐 듯 말 듯 아이들의 손에 닿으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바위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나는 붉은 몸을 과시하며 바위 틈 사이를 종횡무진했다. 한바탕 아이들과 놀고 난 해질 무렵이면 해녀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바위틈을 따라 흘렀고, 으스스달밤이면 사랑하는 연인들의 속삭임을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턱을 괴고 듣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맹꽁이와 늦게까지 연인들을 흠쳐보느라 늦잠을 자고 말았다. 옆 마을 형이었는데, 어젯밤엔 사귀던 누나가 이별을 통보해왔다. 나와 바위를 지킨다는 이유로 실연을 당했다. 멀쩡한 나의 뭘 지킨다는 건지, 형은 비장해보였다. 맹꽁이는 사태파악도 못하고 시끄럽게 울어댔다. 눈치 없는 맹꽁이 녀석에게 핀잔을 주었더니 토라져버리는 바람에 그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소주 두 병과 새우깡이 든 까만 봉지를 들고 나타난 형을 보면 그들의 이별을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까만 봉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입구를 찾지 못해 버둥거리는 나를 웅덩이에 행귀 주기도 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맹꽁이와 나를 보호한다고 우리를 덜 괴롭혔다. 내게 붙은 꼬리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이라 했다. 덕분에 우리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사람들의 카메라를 향해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포즈를 잡아주기도 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덩달아 신이 났다.

바위틈으로 빛줄기가 새어 들어오는가 싶더니 돌맹이가 획 뒤집혔다. 쏟아져 들어오는 빛에 차마 눈을 뜨지 못한 틈을 타, 누군가가 내 허리를 꼭 잡아 번쩍 들어올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암흑 속에 갇혔고, 심하게 흔들리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아마도 소주병과 새우깡 대신 내가 들어앉았으리라.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차츰 멀어지고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나는 ‘탁’하고 어딘가에 놓여졌다.

인기척이 나더니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잘 놀았니?”

안타까움과 사랑이 짙게 밴 목소리였다.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발소리는 둔탁하지 않고 사뿐사뿐했다.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던 발걸음소리였다.

“아빠! 애 집 지어줘. 내가 잡아왔어.”

계집아이는 나를 또 흔들어대며 말했다. 캄캄하던 하늘이 반쪽으로 갈라지며 이번에는 소 눈 같이 커다란 눈동자가 꿈쩍거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처럼 검은 털이 듬성듬성 난 투박한 손이 쭈욱 내려와 나를 환한 곳으로 데려다 놓았다. 두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식탁 한가운데 나를 두고 마주앉은 남자와 계집아이는 한참 실랑이를 했다. 의지할 바위도 없고 숨을 쉴충고랭이도 없는 밋밋한 평지 위에서 몸을 다 드러내놓은 나는 빨리 이 어색한 시간이 지나길 바랐다.

“싫어! 아빠 올 때까지 심심하단 말야!”

계집아이는 고집이 셌다. 도무지 남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유나야, 아빠는 저 바위만큼 멋진 집을 만들 수가 없어. 말뚝계는

바다가 가장 멋진 집이야.”

계집아이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한층 누그러진 태도라 다행이었다. 지금쯤 가족들이 날 찾느라 온 바위를 다 뒤지고 있을 터였다. 난 간절 한 마음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그리고…….”

남자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며 말을 이었다. 사진은 액자도 없이 테이프로 모서리 네 군데만 붙여져 있었다. 누렇게 바랜 테이프 자국이 여러 겹 남아 있었다. 영성한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진 가운데 부분이 볼록했다.

“애도 가족이 있을 텐데, 기다릴 거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우리처럼?”

고집을 부리던 계집아이의 얼굴에는 실망스런 빛이 역력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보았다. 한쪽 귀퉁이의 테이프가 떨어진 사진은 마치 바닷가 바위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이 팔랑거리며 벽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사진의 배경은 내가 사는 너럭바위였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간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의 하얀 치마는 바람에 휘날려 사진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참이나 나를 쏘아보며 생각에 잠겨 있던 계집아이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지더니 유성 펜을 들고 왔다. 계집아이의 눈이 묘하게 빛이 난 순간, 차갑고 오싹한 느낌이 내 등을 훑고 지나갔다.

“내꺼라는 표시야.”

나는 등에다 검정 하트 문신을 하고, 이번엔 남자의 손에서 흔들리며 바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가족들은 살아 돌아온 나를 반겼으나, 붉은 몸을 반쯤 덮은 검정 하트는 한동안 놀림감이 되었다. 유나. 유나라고 했었지……. 유나는 매일 아침 바위에 와 구석구석 헤집고 다녔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날 찾고 있다는 것을. 나는 층층고랭이 사이에 숨어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유나는 항상 하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는 뒤엎겨 있었다. 땀과 잔물에 젖은 까만 머리카락은 얼굴에 착 달라붙어 손가락으로 떼어 내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때로는 강한 바닷바람이 영킨 머리를 풀어 국수 가락같이 가지런히 빗겨주기도 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는 장수풍뎅이의 등껍질처럼 반질반질 윤이 났고, 습기 머금은 끈적끈적한 바람은 유나의 얼굴에 희끗희끗 소금기를 남겼다.

바위에서 유나가 보이지 않아도 벗어놓은 노란색 고무신이 보이면 나는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유나는 항상 같은 곳에 신발을 벗어 두었다.

“유나가? 내년에 학교 갈 건디게 맨날 여기서 놀기만 허믄 어뎡헐거니?”

물질 나갔다 돌아온 할망이 유나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 어뎡 팔자 닻쨌 험신가……쯔쯔.”

유나는 할망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찾아다녔다. 쭈그리고 앉아 바위를 쪼어대던 유나의 볼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나는 등껍질이 간지럽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했다. 운명처럼 슬금슬금 기어 유나의 무릎 아래까지 가고 말았다. 등이 따뜻해졌고 째

쫄름한 맛이 났다.

나를 본 유나는 반색을 하며 울음을 그쳤고, 노란 고무신 속에 얇전히 넣어 주었다. 고무신은 나의 욕조였다. 찰랑찰랑 채워진 물밑으로 보이는 원색의 미키 마우스는 나의 붉은 몸이 무색하게 현란했다.

그날부터였다. 나는 매일 아침이면 유나를 기다렸고, 유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만나러 왔다. 가끔은 짓궂게도 고무신을 얹어놓고 깔깔댔지만, 유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였다. 맹꽁이도 유나를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밤잠을 못 잔 맹꽁이는 도무지 낮엔 일어나지를 않았다. 나는 굳이 맹꽁이를 깨우지 않았다. 유나와 맹꽁이와 내가 삼각관계가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말뚱개야, 너도 엄마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은데……엄마는 내가 두 살 때 저기 들어갔대. 전복 따러. 근데 아직도 안 와.”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떠나고 나만 남겨졌을 때, 유나는 어둑어둑해 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나처럼 유나도 혼자였다.

며칠씩 물으로 일을 가느라 집을 비웠던 아빠가 요사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잡았다고, 유나는 좋아했다.

펜스는 높았다. 미끄러지고 떨어지길 여러 번한 끝에, 나는 펜스 아래의 틈을 찾았다. 유나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작은 틈이었다. 펜스가 세워진 후에도 유나는 사람들 몰래 나를 만나러 왔다. 유나의 원피스가 더러워진 이유를 알고 나니 등껍질이 간지러운 듯 시큰거렸다.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거야? 밤에는 맹꽁이 때문에 잘 수가 없고, 낮에는 사람들 때문에……. 아, 사람들이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라니까……여기를 떠나긴 해야겠어. 시끄러워 살 수가 있어야

지.’

유나의 집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였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걸 알면 유나는 호들갑을 떨 것이다. 말이 없는 아이이긴 하지만 날 보면 언제나 반달눈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별을 해야 한다. 등의 얹어진 하트도 다시 그려야 했다.

“뭐라구요? 구럼비에요?”

유나아빠는 놀라서 다시 한 번 물었다.

“유나가 구럼비에 갔다구요? 오늘은 집에서 꼼짝 말고 놀고 있으라 했는데…….”

유나아빠는 정신없이 작업화를 꺾었다. 얼떨결에 그의 신발위에 앉아 있던 나는 필사적으로 끈을 잡고 매달렸다. 끈을 놓치는 순간 그의 발에 밟힐 수도 있었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달렸다.

“유나야……유나야! 제발…….”

신음처럼 내뿜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 나는 울고 싶어졌다. 유나의 치마에 매달려 놀면서 문득 문득 드는 슬픔과 닮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예약된 차입니다.”

며칠째 사거리를 돌며, 문제의 지점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이보게, 기사양반! 승차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앞좌석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며, 반쯤 감긴 코알라 눈을 한 오십대의 남자는 그대로 꼬꾸라질 듯이 창문에 매달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어깨와 목이 번갈아가며 떨어지고 있었다.

운전석 앞에 부착되어 있는 씬 없이 고개를 흔드는 바둑이 인형과,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가 입을 뿔 때마다 차 안으로 훅 끼쳐오는 시큼한 냄새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마치 장풍처럼, 나는 남자와는 반대방향으로 상체를 당기며 아래턱을 내렸다. 그리고는 숨을 잠시 멈추었다 들이쉬며 최대한 공손하게 남자를 내 차로부터 떨어버렸다.

괜한 시비에 얽여서 거사를 망칠 수는 없었다. ‘따파블’을 잡으려고 마음먹은 첫날은 그의 소행이 꽤 씹혀서였다. 그런데 허탕을 치고 난 둘째 날은 첫날 공친 것이 분해서 또 사거리를 맴돌고 있었다. 셋째 날이 됐을 때, 슬며시 ‘따파블’의 개인 신상이 궁금해졌다. 낮에도 운전을 하면서 그에 대해 생각하다가 ‘도봉동’을 ‘도농동’이라 잘못 듣고 방향을 잘못 잡아 낭패를 보았다. 요금의 반만 받기로 하고 손님의 짜증을 무마시켰지만, 그에 대한 집착은 배로 커지고 있었다.

순자와 헤어진 후, 누군가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긴 처음이었다. 이래저래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텅 빈 방에서 잠을 깰 때, ‘따파블’이 떠올랐다. 기사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다가도 비슷한 또래의 대머리만 보면 그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를 잡지 못하고 들어간 늦은 저녁, 라면을 끓여 먹다가도 그가 떠올랐다. 라면을 먹고 드러누워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내게 동성애자의 성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이렇게 집요한 인간이었나. 이쯤 되면 연애감정 아니야?’

‘누군가가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죽을 거 같은 심정, 연애 맞잖아……. 내 참! 더럽게 꼬였네.’

‘따파블’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 같은 기분에 어떻게든 그를 잡고야 말리라 생각했다. 아니,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왜곡된 감정이 자꾸만 형체를 달리하고 있었다. 나쁜 만이 아닌 동료기사 여러 명이 그놈에게 당했다고 했다. 상습적이었다. 경찰서 앞에서 빙글거리며 내리는 놈에게 ‘따파블’을 내놓으라며 먹살을 잡을 강심장은 없었다. 동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픈 마음으로 시작된 객기였을 뿐이다. 어설픈 정의감으로 인해 나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있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증세가 보이면 바로 오셔야지, 어찌 이 지경이 돼서야……쯔쯔.”

병원에서의 일이 생각나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항문도 핫핫해지는 것 같았다. 여자간호사가 둘씩이나 있는데서 엉덩이를 까 보이며,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엉덩이를 쑥 내민 꼴이라니……. 엉덩이와 얼굴을 가리기 위해 바쁘게 오가는 손등을 간호사가 찰싹 때렸다. 하기사, 하루 이틀 보는 엉덩이도 아닐 텐데 뭘. 병원비를 치르고 냅다 달려나왔다. 나는 달렸지만, 아마도 뒤에서 보면 경보할 때 쉴룩거리는 엉덩이쯤으로 보였으리라. 마음만 앞서, 양팔만 어깨높이까지 휘적거렸다. 간호사들의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항문의 통증이 느껴져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쪽 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 의자를 받쳤다. 엉덩이를 조금 떼는 순간, 지나가는 앞차의 헤드라이트에 환하게 드러난 대머리가 번쩍였다. 얼른 손을 보니 세 개의 손가락이 보였다. ‘따파블’이었다. 그는 내 차의 불빛에 눈이 부셨는지 다른 한 손으로 눈을 가리며, 손가락 세 개를 다시 높이 쳐들었다. 동시에 그의 세 손가락이 마치 내 항문을 찌른 것처럼 숨이 막히는 통증이 찾아왔다. 그의 대머리에 반사된 헤드라이트 불빛이 황송하게도 그의 세 손가락을 확연하게 비춰 주었다. 망망대해를 떠돌던 배가 등대를 발견한 기쁨이랄까. 감격의 순간도 잠시,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냉정을 되찾았다.

“J초등학교 앞으로 가입시다. 기왕이모 기분 좋게 합승 시키지 말고 가지요.”

이제 ‘따파블’은 전보다 더 천연덕스럽게 나를 대했다.

다행이 나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금방, 차 안은 역한 술 냄새로 채워졌다. 술이 사람 몸속으로만 들어가면 왜 화생방을 연상케 하는지,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의 내장구조는 다른 것인지, 나는 힐끗힐끗 그를 보며 나이를 가늠해 보았다. 하지만, 창문을 열 수는 없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잠들어 있었다. 코트 속으로 기어들어간 목이 안정적으로 보였다. 참아야지. 찬바람에 그가 잠을 깨버리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저렇게 널브러진 인간을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던 말인가.’

내 앞에서 무장해제 된 채 잠들어 있는 초로의 남자를 상대로 전투력은 생겨나지 않았다. 오심을 훌쩍 넘긴 듯한 모습이었다. 미간을 찡그리며 약간 입을 벌리고 잠이 든 그의 얼굴은 하루종일 일터에서 시달린 흔적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다. 그보다 젊은 상사가 던진 결재서류를 허겁지겁 줍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쫓쫓……술김을 빌어 허세를 부리고, 허공에 가느다란 팔을 휘둘러대는 저런 치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는가. 그래, 따따블은 받는 것이 맞다. 화생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 몸뚱아리 배달해주는 것, 주눅 든 정신 다림질하듯 좌악 펴주는 것, 하나는 뭐……. 아니다. 따블만 받는 것이 맞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밤거리를 달렸다.

도로에서 벗어나, 작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차를 세웠다.

“여보, 여어가 어땠고? 내, 분명히 J초등학교로 가자겠을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따따블’은 창문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며, 주위를 살폈다.

나는 라이트를 끄고 차에서 내렸다. 차 문을 열고, 집게손가락 하나

를 까딱거리며 그에게 나오라는 시늉을 했다. 한껏 불량해보이기 위해 한 손은 바지에 꽂은 채, 머리를 빼딱하게 하고, 보일 듯 말듯 머리를 흔들었다. 오른손 검지를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뭔가 품이 어색해 재빨리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손가락과 머리를 흔드는 박자가 어긋나긴 한 것 같은데, 그대로 멈추자니 그의 눈이 나를 뻔히 바라보고 있었다.

“와 그러는데요? 기사님. 오밤중에 내가 여기 와 내립니까? 아이고 마, 호랭이 나타나면 우짤라고 그카고 서있소? 빨리 타소.”

내가 얼른 대응을 안 하니까 다급하게 말했다.

“오줌 내려바서 그러는지요? 화장실 갈라카요? 저쪽에 가서 싸고, 얼릉 오소. 아무데나 싸면 될 낀데 뭇한닥고 산꼭대기까지 와 쏘는기고.”

그의 뻔뻔함과 유들거림이, 퇴색되었던 초심을 일깨웠다. 나는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차에서 내리던 그는 경사진 땅의 흙 때문에 미끄러져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이놈이 사람 잡네! 아이고!”

‘따따블’은 꽤나 간이 큰 놈이었다. 그가 어디가 잘못 되었을까봐 허둥지둥 가슴이 졸아든 나에 비해, 그는 전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그를 일으켜 세우며 차에 기댄 순간, 내 몸이 기울어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바퀴가 슬금슬금 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빨리 돌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빨싸! 사이드를 안 채웠구나.’

경사가 약간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가까스로 차 아래쪽으로 가서 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온힘으로 차를 막

아셨다. 비포장도로의 흙 위에서 미끄러지는 다리에 힘을 주었을 때, 향문을 찌르는 듯한 아픔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얼떨결에 내 옆으로 와서 차를 같이 막고 있던 ‘따따블’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머칠 전에 치질수술을 했어요. ……공, 으, 으, 아악!”

“으으, 헉! 절대로 똥이라는 거는 참아뿌면 안 되는기라요. 택시기사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치질이라카대요, 어으!”

그는 안간힘을 쓰며 비탈길을 내려오는 차를 막고 있었다.

수술 후, 첫 똥을 눌 때보다 열배는 더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엉덩이에 활활 불이 붙은 듯 로케트가 발사되는 힘으로, 내려오는 차의 가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보소! 힘 좀 더 주봐라! 으……헉, 저 밑에 울렁울렁 되는 게 물 아이가? 우짜모 좋노?”

내가 향문의 통증과 안간힘 때문에 대꾸를 못하는 반면, ‘따따블’은 달랐다.

“니, 차에 깔리가꼬 포가 될래? 물귀신 될래? 빨리 더 힘 안 주냐? 으아!”

“형씨는 물에 빠지면 주둥아리만 동동 뜰거요오, 아!”

신발이 흙에 미끄러져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차가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지옥에 데불꼬 갈 친구는 최고로 골랐구마. 심심찮게 해줄끼요, 내가. 헉,헉!”

‘따따블’은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말도 따따블로 했다. 설사 나와 같이 저승길을 가게 되더라도 원망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와 나는, 차에 깔려 포가 되거나 차와 함께 물귀신이 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했다. 찰랑찰랑하는 물소리를 들었을 때, 불과 이삼 미터 앞
이 호수임을 알았다.

“보소! 내가 이래각고 막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드가서 사이드 채우
소!”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차 안으로 들어가 겨우 사이드를 채우고, 비
명과 함께 튕기듯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그날 밤의 ‘따파블’과 나의 차력 쇼는 치질의 재수술을 야기했고, 나
는 기왕에 내 엉덩이와 안면을 튼 간호사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모르는 새로운 간호사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늦은 밤 라면을 끓
여먹고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김시영 편

수필 노을의 아름다움

바늘꽃

소박한 설 이야기

시 어버이 송(頌)

나에게 쓰는 편지

수필 | 노을의 아름다움

푸드득!

참새 두 마리가 앉았다 날아간다.

감이 한 아름만큼이나 달린 감나무 꼭대기가 휘청 흔들린다.

황록색 새순이 나서 싱그러운 봄을 알리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주먹보다 더 큰 감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차례, 팔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감나무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사동 어느 가게 안마당에서 붉게 물들어 떨어진 감나무 잎을 보며 우리 집에서도 이런 정취를 느껴보고 싶구나 했었는데, 이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다니…….

예닐곱 살 어릴 적 옛일이 생각난다.

새벽 어둑어둑할 때 감꽃을 주울 욕심에 잠을 설치다 일어나 살짝

열린 남의 집 사립문을 소리 나지 않게 밀치고 들어가 정신없이 치마에 주워 담던 일, 어쩌다 개가 짖어대기라도 하면 놀라 도망치던 그때가 그림다. 그리 대단한 나쁜 일도 아니었음에도.

집에 와서 큰 소쿠리에 담아놓고, 예쁜 감꽃을 실로 길게 꿰어 아기 손목에 채워주는 딸랑이 은방울처럼 만든 다음, 한 개씩 빼서 먹을 때 입안에 고이던 달콤함이 아련히 떠오른다.

이제 우리 집의 그리 크지 않은 두 그루 감나무에도 감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렸다.

아침이면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황홀한 자태는 눈이 부시어 무한정 바라봐도 도무지 싫지 않다.

올여름 지독한 더위와 강한 태풍 속에서도 낱알 두 개 밖에 안 떨어지고 가을을 맞은 것은 지난 늦가을에 계분과 한약 달인 찌꺼기를 깔아준 덕분인 것 같다.

작년에는 다 떨어지고 한 개만 달랑거리다가 결국 까치가 쪼아 떨어지고 말았는데.

식물도 이처럼 잘 보살핌으로써 생명을 지속하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은 오죽하랴!

나는 화사하며 밝고 따뜻한 감색을 제일 좋아한다.

뿌영게 서리가 앉은 듯, 손가락이 닿으면 오렌지 빛 자국이 나는 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본다.

감이 견뎠을 일 년의 세월을 음미하면서 감의 숨결을 듣는다.

지난여름 태풍으로 낮게 쓰러져 꽃을 피운 구절초, 설악초, 맨드라

미, 산국, 유홍초가 아래에서 아름답게 받쳐주니 더욱 근사하고 든든한 나무가 된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고, 나름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제 몫을 다하는 초목들. 때가 되면 푸름 속에 감춰졌던 모습이 밝게 또렷하게 드러나듯, 나도 그렇게 조용히 삶을 익혀가는 존재가 되고 싶다.

누가 안 보는 동안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문학저널 신인상 수필 당선작〉

수필 | 바늘꽃

해가 진 후, 이른 저녁식사를 마치고 잠을 청한다.

한밤중에 자연스레 눈이 떠지면 창문을 모두 열어젖힌다.

제법 서늘한 바깥공기가 상쾌하기 그지없다.

순간, 앞집 갈색 벽돌담을 배경으로 하얗게 팔랑대는 무수한 나비들에 놀란다.

아! 이건 나비가 아니라 가볍게 줄지어 밤부터 서둘러 피어난 바늘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어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긴 꽃봉오리들. 2미터가 넘는 가는 줄기에 달린 무수한 바늘꽃들이 춤을 추고 있다. 이따금씩 불어대는 바람결대로.

꽃이 지고 나서 멍한 열매의 씨가 바늘모양으로 뽕족하다 하여 이름이 바늘꽃이지만, 꽃이 전혀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여려서 몽환적이기까지 하니, 나로서도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기 어렵다. 바늘꽃 아니면 바람꽃이나 나비꽃이라 함이 제격이리라.

사실은 이 꽃을 보며 즐기기 위해 어제 잠들기 전에 화분에 물을 흠뻑 주고 한밤중 잠이 깰 수 있기를 은근히 고대하며 잠을 청했던 것이다.

자정을 두어 시간 넘긴 한밤중, 한낮엔 활짝 피지도 못하는 수줍고 고운 예쁜 바늘꽃 위에 달빛이 깔리면 귀뚜라미가 규칙적으로 울어댄다. 창밖 조출한 풀숲 연하늘색 꽃을 피우는 달개비 덩굴에 숨어서 운다. 찌르르 찌르 찌르르르. 몇 쌍이나 서로 구애하며 자기 위치를 알리기엔 저리 바쁘다.

끝없이 울리는 밤의 교향악, 티 없이 맑은 밤의 분위기에 취하여 내 영혼은 몇 시간이나 헤맨다.

가을을 청하는 푸른빛 밤하늘에 듬성듬성 흰구름이 모였다 흩어진다.

이렇게 운치 있는 고요한 밤엔 영혼이 맑은 사람들 얼굴이 스쳐간다. 그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해진다. 그러고는 그 설렘에, 날개달린 아기곰이 수놓인 얇은 여름이불을 깔고 되도록이면 창틀에서 하늘대는 바늘꽃에 가깝게 드러눕는다.

작년 겨울이 시작될 때, 꽃이 지고 난 줄기를 잘라내며 아까워서 차마 밖에 심지 못하고 베란다에 놓아뒀더니, 봄기운이 오자 가장 먼저 움이 터서 일찍 꽃을 피워냈다.

야생화라서 씨가 흠에 떨어지기만 하면 한포기 꽃으로 자라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바늘꽃. 그 만만치 않은 강인한 생명력에 해마다 놀라곤 한다.

20여 년 전 어느 날 밤, 높은 빌딩 옥상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비를 보는 듯했던 그 꽃에 매료되어 눈에 밝혀 잠을 못 이루던 꽃이다.

얼마 후 한포기를 얻어 애지중지 가꾸니 수가 붙어나서, 아무데나
흙 위라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 같은 시각에 일제히 피
어나는 꽃봉오리의 풍성함에 흐뭇하기 그지없다.

나는 이 꽃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한다. 한여름 올이 곧게 다림질
된 하얀 모시적삼 속에서 하얗고 도도룩하게 드러나는 어머니의 청초
한 모습이다. 적삼 쉼, 섬세한 도련이 살짝 말리어 위로 들리면 쉼코 밑
으로 드러나던 어머니의 예쁜 삼십대 가슴을 생각하면 눈물이 고인다.
지금은 걸을 수 없이 허약해지신 어머니가 아리도록 가슴속으로 파고
든다.

열일곱 소녀가 시집와서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아낌없이 바친 칠십
평생! 종갓집 만며느리의 삶이 애잔하기 그지없다.

어머니는 유난히 꽃을 좋아하셔서, 한겨울을 빼고는 우리 시골집엔
이름도 알 수 없는 꽃들이 지천으로 깔린다.

“오늘은 무슨 무슨 꽃이 하도 이뻐서 샀다. 네가 넓은 집에 이사하면
갓다 심어라.”

어머니가 즐거운 음성으로 자랑하실 때면, 나는 그 꽃을 이미 내 집
에 심은 듯하여 행복해진다.

그 꽃을 보는 재미로 외로움을 달래시는 우리 어머니. 내 삶은 어머
니께서 살아오신 대로 연결고리가 된다.

어머니! 어머니! 그립습니다.

〈문학저널 신인상 수필 당선작〉

수필 | 소박한 설 이야기

오십여 년 전 내 어린 시절에는 겨울이 오면 눈이 많이 내렸다. 긴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과 길을 한참동안 쓸고, 돌아서면 금방 눈이 쌓여 발목을 덮었다.

함박눈이 하루 이틀 내린 후, 아침에 일어나보면 시골의 겨울풍경은 눈이 부셨다.

초가지붕들은 마치 하얀 버섯모양을 하고, 대문에서 바라보면 주위의 소나무는 눈에 덮여 동양화를 보는 듯 정답다.

따뜻한 햇볕으로 눈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늦가을에 새로 이엉을 두른 노란 초가지붕 처마 끝에는 큰 것은 팔뚝만큼이나 굵고 길이가 일 미터나 되는 긴 고드름이 달리곤 했다.

튼튼한 것을 골라 따서 싸움도 하고, 찢리면 아파 울기도 하였다.

맑은 얼음과자가 집집마다 주렁주렁, 참으로 아름답게 반짝였다.

우리들은 주저없이 지푸라기가 달린 긴 얼음과자를 뽕족한 끝에서

부터 신나게 오도독오도독 깨물어 녹여 먹었다. 딸기코가 되면서도 그 저 재미로, 잠깐 동안이지만.

얼음을 쥔 손이 저러 이내 버리면 '쨍그렁!'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지면서 퍼지던 그 소리가 그리워진다.

그리고는 텃밭의, 아무런 흙도 없이 폭신한 새하얀 이불 위에 드러눕는다.

장난기 심한 친구는 내 배와 머리를 오랫동안 눌러대고, 추워서 올상을 지으면 크게 생각한 듯이 생색을 내며 손을 떼면, 나의 몸 크기만큼 눈사진이 찍힌다.

꽁꽁 얼어 감각이 없이 멍한 손으로 눈을 털고 눈 사진을 한참동안 바라보며 재미있어 깔깔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내검마을은 일백여 호 초가집들이 모여 부락을 이루고(새마을운동 이후엔 모두 개량하였음), 집집마다의 소식들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온 마을에 짙 퍼진다.

다른 집의 좋은 소문에는 부러워하고, 우리집안의 좋은 소문에는 우쭐대기도 했다.

명절 전날, 초등학교 수업을 오전에 일찍 마치치자마자 벌써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필통 속의 잘 깎은 연필심이 부러지거나 말거나 집을 향하여 달음박질을 친다.

천 보자기로 책을 싸서 허리에 매었기 때문에 알루미늄 필통 안의 연필은 끊임없이 달가닥거린다.

이윽고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전을 부치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온통 마을을 뒤덮는다.

지금은 지정된 전통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기름틀까지 집에 갖추고

있어 무거운 돌로 눌러 기름을 짜니, 그 향기가 진동한 것이다.

그땐 물질이 넉넉한 시절이 아니었지만, 명절만큼은 차례를 모시지 않는 집이라도 정성껏 음식준비를 했다.

우리집에서는 아름드리 커다란 채반에 홍어, 상어, 조기 등을 손질 하여 강아지나 닭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철나무 위에 올려 말리곤 했다.

엄마는 내가 할 만한 일을 설 사이 없이 부탁하셨다.

솔이 걸린 너른 마당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 일도 도우며, 땀감이 덜 마른 데다 바람 때문에 매운 연기가 엄습해 주먹과 저고리 소매 끝으로 눈물을 흠치기도 했다.

쳐서 말린 찹쌀과 깨끗이 씻어 보관한 왕모래를 섞어 볶아 돌을 골라내고 할머니와 함께 밀대로 밀어가며 강정도 만들었다.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음식을 그릇에 담기도 했다.

어린이로서는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어른들의 칭찬에 신이 나서 끝까지 도와드렸던 것 같다.

그뿐인가. 유과를 만들 때면 콩을 갈아 걸러낸 되직한 콩물과 찹쌀가루를 섞은 찹쌀반죽을 솔뚜껑에 얹어 파리가 생길 정도로 팔이 빠지라고 짓는 일은 정말 힘든 고역이었다.

솔뚜껑 가장자리에 팔을 데이기도 하면서, 내 숨씨가 점점 익숙해지면 동네 어른들이 구경 왔다가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반죽을 말리려고, 뜨겁게 달구어진 아랫목에서 까치발을 들며 잘 마르도록 줄을 맞춰가며 번갈아 뒤집던 일들이 생각난다.

덜 말랐을 때 모양을 잡아가며 수시로 뒤집을 때, 찹쌀떡 같이 말랑 말랑한 게 먹음직해 살짝 하나 입에 넣어보면, 달달하면서도 날콩의

비린 맛이 약간 남아 있었다.

완전히 마른 네모반듯한 유과 재료를 떨어뜨리길라도 하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투명한 속을 드러낸다.

질겁하는 나하고는 달리 어른들은 ‘잘 말라서 유과가 아주 맛있게 될 징조다’하며 웃으셨다.

튀겨내기 전에 밀가루 묻은 몸체를 솔로 완전히 털어내어야 기름이 탁해지지 않아서 많은 양을 튀길 수 있는데, 밀가루를 털고 나면 얼굴과 머리는 뽕양계 서리를 맞은 것 같고, 거울을 보면 밀가루가 흰머리에 앉아 어린 할머니가 되어 모두를 웃겼다.

며칠 전부터 식혜를 만들어 밥알은 건져내고 그 물을 가마솥에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졸이면 달짝지근한 옛이 고아지고, 일부는 조청으로 쓰려고 꿀단지에 담아놓는다.

커다란 절구통에 찢은 떡살을 넣고 떡메로 쳐 만든 인절미를 조청에 찍어먹던 시절이 그리워지면, 그 특별한 원통 고목 절구를 보존하지 못한 아쉬움이 절절해진다. 장식도 되고 집안의 역사유물이 될 만도 한 물건이었는데.

무우를 네모나게 썰어 넣고 엿물로 오래 뭉근한 불로 졸이면 졸깃한 무우정과가 된다.

간식이 귀한 당시에 몰래 하나씩 꺼내먹던 그 맛이란!

범씨를 튀겨 까끄라기를 골라낸 뒤 매화꽃처럼 피어난 튀밥을 솥양푼에 담아놓고 잘 부푼 유과에 물엿을 발라서 제사 모실 때 쓸 양은 큰 동구리에 담아놓는다. 어른들은 그 동구리를 높은 곳에 모시듯 간수하신다.

실수로 모양이 부서진 것이 나오면 먹을 생각에 얼마나 좋던지.

손에 묻은 엿이 아까워 손가락을 핥아먹던 그리움!

한입 베어 물면 구수하면서도 입안에서 살살 녹던 그 맛은 지금 최고의 양과에 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향수에 젖는다.

예전에는 쌀이 귀한 시절이라 밀주를 담그면 그 방은 문을 꼭꼭 닫아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단속반에 걸리면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

술이 보글보글 괴어 익으면 용수로 걸러낸 막걸리에 설탕을 타서 맛있게 마시고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흐느적거려서 어른들이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

설이 되어 친척 어른들을 찾아 세배하러 다니면 거의 같은 음식들로 배를 채운다. 산적, 꼬치, 유과, 식혜 등으로.

운이 좋으면 세뱃돈을 받기도 하지만,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약간 섭섭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엄마께 드렸다.

예쁘고 알뜰한 엄마가 살림에 유용하게 쓰실 게 뻔하지만'이 돈 저금했다가 주마'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서운함이 조금 가시기도 했다.

그 시절, 설날은 선달 그믐밤 풍악놀이부터가 시작이었다.

정작 설날이 되면 어머니는 아침부터 시작해 거의 자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배객들을 대접하느라 개다리소반에 정성껏 차린 술상을 대령하기에 종종걸음을 치셨다.

그 어머니가 이제는 구순에 가깝다.

내가 터득한 여자의, 삶의 지혜는 모두 작은 거인 어머니의 인생을 거울삼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 | 어버이 송^頌

아버님 어머님
꿈에도 그리운 이름입니다.
세상에 오직 한 분들
사랑과 헌신, 고뇌 속에 저희를 길러주시니
크신 은혜 가늠키 어렵습니다.

온몸으로
이 땅을 이루시고 지키기 위해
일로 세월을 보내셨지요.
달빛을 햇빛삼아 밭곡식 가꾸시며 고통을 낙으로 돌리셨지요.
천둥번개 온갖 언어 세월로 흘려보내고
반듯한 외길 내어 주시느라
구불구불 자갈길 고르셨지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지요.

유난히 훈훈하시던 아버님 인자와 겸양의 미덕
한여름 피약벌 속 여린 맨발로 날시기 논둑을 날던 어머님

벌겋게 달아오른 홍시감 얼굴
머리 위 밥광주리에 자라목 되신 모습 선연합니다.

부모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생명이요 부활의 말씀
“세상을 바르게 부지런히 살라!”
저희들에게 인생의 지침과 등불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시| 나에게 쓰는 편지

왜 남을 원망하니?
네가 지은 결과인데.

너 왜 받지 못하니?
주지 않아 돌아오는 화풀이
아주 비싼 선물인데.

이 선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곰곰 생각해본다.



서향근 편

수필 어느 중환자의 하루
아버지의 영웅

수필 | 어느 중환자의 하루

오늘도 모든 사물이 잠에서 깨어나듯,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간병사의 손을 빌려야만 돌아누울 수 있는 몸이지만, 난 아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간호사들의 부산한 움직임과 복도에서 들려오는 보호자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 때면 틀림없는 아침이다.

어제 낮 동안에 보호자들이 장례식장 알아보는 전화소리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옆 병실의 환자가 서서히 나빠지는지, 아니면 보호자와 의사가 이미 병의 경과를 예견하고 있었는지, 별로 큰 소란 없이 바쁜 발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여기 걱정 말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래 아파 힘들었죠? 아버지 잘 가세요. 이젠 편안히 가세요.”

기계 끄는 소리가 잠시 난 후, 울음소리가 커졌다.

주치의가 조용조용 주의를 준다.

“여긴 모두 중환자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비록 의식이 없는 분이라도 이 상황을 느낄 수 있고, 혹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망까지 연결하여 생각하니 큰소리 내는 것은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실제로 전혀 의식이 없는 환자인데도 그 방의 동료 중 한 명이 사망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 움직임이 많아지는 것을 종종 본다.

아침회진이다. 환자들은 차분한 발소리와 나직한 목소리를 기대하는데, 유난히 나의 주치의는 내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지른다.

“안녕하세요? 밤 동안 잘 주무셨나요?”

백이면 백, 나로부터 반응이 없을 줄 알면서도, 내가 잠시 귀가 먹어서 못 듣는 사람인 양 내 손을 잡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

어떤 때는 내 모습을 보면 모르나 싶어 짜증 날 때도 있지만, 자꾸 들으니 나를 실제의 나보다 더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싶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

주치의가 가까이 오면 난 알아차릴 수 있다.

향기로 내 젊었을 때의 기억을 되돌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여러 냄새를 풍긴다. 상큼한 냄새, 꽃냄새, 달콤한 것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로 느낄 수 있는 것, 향수라고밖에는 다른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향기 등등…….

난 숨 쉴 때마다 침을 자꾸 입 밖으로 내어뱉는다.

간병사가 자주 닦아주지만, 회진할 때 그러면 내 주치의는 꼭 티슈를 빼어 입을 닦아주고 청진기로 숨과 심장소리를 들어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과 청진기가 내 가슴 이곳저곳을 대어볼 때,
나는 오늘도 무사하리라는 안도감에 젖는다.

모든 환자의 욕창과 여러 가지 튜브를 소독하는 시간이다.

내 옆에 누운 할아버지 환자는 욕창치료를 할 때 아프면 꼬집고, 그
것도 안 되면 침을 마구 뱉는다. 그러다가도 주치의가 오면 언제 그랬
냐는 듯이 잠잠다. 묻는 질문에 단답형이지만 존댓말을 쓴다. 담임선
생님께 잘 보이려는 착한 학생처럼. 이 할아버지의 아내인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내 사랑’이라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고
“내 장모님이야, 늙었으니까 장모님이지.” 그런다. 남자는 언제나 아내
가 예쁘고 젊었을 때만 기억하고 싶나 보다.

이제 새참 시간이다.

아니, 식사를 나누어서 주니 새참이라고 해도 적은 양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난 간병사가 늙혀준 대로 누워있고, 나의 코 줄을 통해 음식이 들어
온다. 뜨겁거나 차지도 않게 약간 따뜻하게 데워져 위 속으로 들어오
는 죽은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바로 그 온도이다.

열이 높고 가래와 기침이 심해 들어온 환자는 몇 날 며칠 극진한 간
호와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지 다른 병실로 옮긴다고 한다. 집에서 오
로지 할아버지 간호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입
원하자 잠시 면회만으로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어 안절
부절못하다가 잘되었다. 천생연분인 노 부부.

난, 행복한가?

영감이 없으니 그 할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행복하다.

처음엔 일어나고 싶고 마음대로 걸어서 밖에도 나가고 싶었지만, 날마다 찾아오는 막내딸이 있고, 누워 있지만 욕창이 안 생기게 해주고 폐렴은 물론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니 행복한 거지.

난 막내딸을 자랑하고 싶다. 나이 지긋해서 낳은 딸이지만 나에겐 더 할 나위 없이 잘한다.

내 침대 주위를 부분적으로 화사한 꽃무늬 벽지로 수시로 갈아 붙여 준다. 생명이 있는 걸 보아야 한다면, 작은 화분에 든 작은 꽃을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실눈을 떠서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들지 않게 가꾸어 준다.

내 딸은 프리랜서란다.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서 날 만나러 온다. 아니, 하루에 몇 시간은 나랑 살러오는 것 같다.

내가 입는 환자복은 다른 환자용이랑 섞이지 않게 집에 가서 빨아 외출복이라도 되는 양 꼭 뽀뽀하게 다려서 가져온다. 난 딸이 가지고 온 옷을 입을 때면 눈 감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깨워서라도 보여주고 싶다.

막내라 키울 때 손도 더 많이 못 갔고, 위엿놈 키우느라 있는 등 마는 등했고, 손주들 나면서부터는 뭣 하나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극진히 해주니, 건강할 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부모사랑 많이 받는 놈이 부모에게 잘하는 수학적 원칙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보다.

내 앞에 있는 환자는 어젯밤에 열이 났다. 가래 뱉는 횟수도 늘었고
쌩쌩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녁 늦게까지 아들이 옆에 있었고, 걱정
이 되었는지 아침 출근 전에 또 병원에 들렸다. 워낙 10년 가까이 몸을
못 움직이다 보니 폐렴은 수시로 들었다 나갔다 한다.

모든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아닌지 보호
자가 결정해야 한다.

어떤 보호자는 환자가 못 들으리라는 생각에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
을 말한다.

“인생 팔십이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해.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었으니 그 이상은 어디까지나 덤이잖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고 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미련도
없지만 어쩐지 그 말에 섭섭함이 느껴진다.

‘이젠 내 생명에 대해 손을 놓겠다고……. 그냥 내버리겠다는구나.’

그러나 한나절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었고, 형제자매
들과 때로는 다투며 때론 형제가 있음에 행복해하며, 사랑이 뭔지 인
생이 뭔지 다 알지 못하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내 아이를 낳으며
행복해했고, 키우면서 나 스스로를 못 이겨 짜증을 부렸고, 고이 키운
자녀들 출가시키면서 눈물 절끔 흘렸고, 이제 혼자 몸 기를 수 없어 병
원 신세지며 자녀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봐도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연장이 아닌, 단순히 일시적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과연 받아야 할까?

난 밤 내내 생각을 정리했다.

나에게 모진 말을 무심히 뱉은 식구들도 용서하고, 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쏟는 막내딸도 편히 놓아주며, 잠을 자듯이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과연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의 평가’는 무엇일까?

비석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 정말 궁금하다.

난 이 말을 마지막에 꼭 하고 싶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간다, 그래서 행복했노라고.

난 내 남편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고 싶었다. 대쪽같이 곧은 성격, 그러나 가족을 많이 사랑한 사람, 가족에게 큰 그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누워 있다가 보니 정말 생각의 날개를 달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게 된다.

영화에서 본 마지막 장면처럼.

바람에 날리는 흰 새털이 앓을 듯하면서도 또 바람에 날리고, 또 날리고……잠시 천천히 가다가 다시 지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날아다니는……끝나지 않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나는 오늘도 꿈을 꾸듯 상상을 한다.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해서 내 인생이 말짱 지난 과거로 젖혀지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다가오는 매 순간의 현실이 지금의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정리한다.

수필 | 아버지의 영웅

우리 아버지는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용감한 형’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 그분의 예를 인용하시며, 여자나 남자나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무슨 일든지 용감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용감해 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어린 우리들은 실력을 쌓으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인가 보다 싶어 늘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빠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오래도록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사람이 있다니, 그분은 아빠의 진정한 영웅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처럼 말로만 듣던 그분을, 두 분이 헤어진 지 30년 만에 만난다고 하신다. 내 마음도 이처럼 설레는데, 아버지야 오죽하시겠는가. 긴장이 되는지 연신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만져보시고, 괜히 화장실도

다녀오셨다. 흥분되시는 모양이다.

나의 영웅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영웅이라는 아저씨에 대해서 나는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연세가 드셔도 눈빛은 살아있겠지? 몸도 아직 젊음이 못지않게 날렵하실 거야. 마음은 아마 바다를 품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의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얼싸안으며 오랜만의 상봉을 기뻐하는 두 분은 젊었을 때의 용기와 패기는 찾아볼 수 없이, 이제 인생의 노을을 바라보는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들이었다.

큰 실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분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도 모를 정도로 대화에 깊이 빠져 들어갔다.

영웅아저씨의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성격이 워낙 대쪽 같아서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생이 막심했던 모양이다. 영웅아저씨는 초등학교를 여섯 번이나 전학하며 다녀야 했고, 그러다 보니 나이 육십이 되도록 마음의 외로움을 털어놓을 오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아버지목사님 자신은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면서도 교인에 대한 희생과 봉사는 넘쳐, 누구네 집이 어렵다고 하면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다 갖다 주었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영웅아저씨의 어머니는 몸이 허약한 분이였다. 그런데도 식구 많은 가난한 살림에다 경제관념이 빈약한 남편 비위 맞추고 치다꺼리하느라 항상 피곤했고, 나이 고만고만한 딸들 다섯은 대화의 상대도 되기 커녕 짐만 되었다.

그나마 교회에서 영웅아저씨에게 항상 다가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잡아주며 보살펴주는 사람은 우리아버지의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할머니인 집사님이었다.

영웅아저씨가 초등학교이던 시절, 그 집사님이 손을 꼭 잡아주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사라져버렸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집사님이 담임목사님인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나쁜 마음을 집사님께 들키지 않도록 항상 조마조마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고마운 집사님과 손잡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긴장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서 손에 땀이 너무 나지 뭐야. 그래서 집사님한테 잡힌 손을 살며시 빼어 내 바지에 땀을 닦은 후 다시 잡았지.”

영웅아저씨는 이런 회고담을 하며 웃었다.

나라 전체가 어렵고 삶이 힘들던 시절, 영웅아저씨는 고학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다.

항상 아버지가 가족보다 교인들을 더 생각하는 것이 섭섭했고, 담임목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희생을 강요하는 교회도 싫었으며, 집안이 그 지경이 되도록 말 한마디 못하는 어머니도 싫었고, 힘들게 계속 돌봐야 하는 동생들도 싫어서 집에도 교회에도 정을 붙일 수가 없었다. 주변에 왜 술이 없겠느냐 마는, 목사아들이 파행을 저지른다고 흉을 볼까봐 술도 마시지 못했다. 만일 술을 마실 수만 있었다면, 밤새워 울며 웃으며 취한 김에 고함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리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던 집사님이 많지도 않은 나이에 몸이 아파 덜컥 세상을 떠나자, 영웅아저씨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하나 없는

막막함과 슬픔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라도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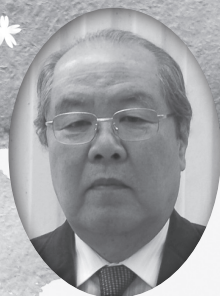
이처럼 감개무량해하는 영웅아저씨는 우리아버지가 몸이 편찮아 수술을 받게 된 계기로 이처럼 병원에서만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아니 할 소리로 아버지의 환후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니냐며 히히 웃었다.

아버지는 영웅아저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적한 골목에서 여학생들이 깡패들에게 희롱당하는 광경을 보고 뛰어들어 깡패들을 물리치고 여학생들을 구해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였다.

싸움 과정에 영웅아저씨는 깡패의 칼에 등을 찔렸는데도 끝까지 싸웠다고 한다. 그 일로 영웅아저씨 ‘용감한시민상’을 받았고, 그 표상(表象)인 별 모양의 배지를 졸업할 때까지 교복에 달고 다녔다고 한다.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빛나는 별 배지가 되는 것인가 보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고, 잘 자라서 이젠 의젓한 직장인이 되었으며, 옛날처럼 밥 굶고 사는 형편은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신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한 것 같았다.

이처럼 회고와 현재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는 두 분을 지켜보며, 나는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재수 편

소설 둔덕리의 화창한 가을

수필 보리싹 돌아날 때면

아날로그 설날과 디지털 추석

시 고운 님 고운 바람

연못 하나, 가슴속에

소설 | 둔덕리의 확장한 가을

둔덕리의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도 푸르려 보인다. 아침 햇살도 한층 눈이 부신다. 마을 이름 그대로 뒷산에서부터 뻗어 나온 얇은 둔덕이 동네 양 날개를 나직이 둘러싸고, 그 가운데 50여 호의 가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둔덕리의 형상이 마치 동화나라에서나 있음직한 모습이다. 새마을운동이 불길처럼 전국을 한창 휩쓸고 있는 덕에 잘 포장된 도로며 빨간 지붕, 파란 지붕들이 색색이 어울려 금방이라도 일곱난쟁이가 줄지어 나올 것만 같다.

이런 둔덕리 마을에 오늘은 큰 경사가 있는 날이다. 마을 위쪽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반편이네 마당에 아침부터 동네사람들이 모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아서도 이 집에 무슨 큰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야기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라도 반편이와 그의 병어리각시의 이름을 찾아주기로 하자.

나이 삼십에 겨우 장가라고 간 반편이는 북한의 육이오 남침으로 열
떨결에 군대에 징집되어 갈 때까지는 그냥 반편이었지만, 그에게도 어
엿한 이름이 있었다. 가난에 찌든 아버지가 아들만이라도 부자로 살라
고, 동네의 글깨나 안다는 노인에게 몇 번이나 술대접하고 지어 받은
이름은 만석이었다. 박만석(朴萬石)이란 어엿한 이름을 두고도 그의
어리숙하고 덜떨어진 행동으로 반편이 박만석으로 불리다가 그냥 반
편이로 불리면서 이름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군대에 가서는 사정이 달랐다. 비록 반편이 같은 행동으
로 취사반에서 밥이나 해 나르고 고지로 탄약 운반이나 할망정 그의
가슴에는 어엿하게 ‘박만석’이라고 수놓은 이름표가 붙어 있고, 모자에
는 일등병일망정 노랗게 윤이 나는 깡통 계급장이 빛나는 일등병 박만
석이었다.

인간 됴됨이도 군대생활 몇 개월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다. 총소리와
포탄 터지는 소리에 날이 새고 지는 전쟁터에서 비록 취사병일망정 느
린 동작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요령을 터득하고는 동작도 빨라지
고, 주먹밥을 지고 고지를 오를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도착해서 밥을
나누어 주고 부상병이 발생하면 위생병을 도와서 업어다 날랐다. 어눌
한 말씨도 항상 보고할 때마다 지적을 받다 보니 이젠 제법 누구 못지
않게 토박토박 조리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박만석 일병은 누가 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군인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박만석 일병에게는 고단한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
이 발생했다. 어느 칠혹같이 어두운 밤, 고지로 저녁밥을 배달하고 오
는 길에 적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숲속으로 피한다는 것이 동료들과 떨
어져 이탈했다가 길을 잃은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부대를 찾아왔다. 중대장으로부터 기합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더라도 엉뚱한 데서 일이 잘못된 것이다. 새로 온 인사담당 신병이며칠 기다려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박만석 일병의 전사통지를 발송해 버렸다. 물론 박만석 일병은 이 사실을 알 리도 없었고, 신출내기 인사담당은 나중에 알았으면서도 이 사실을 정정하는 통보를 까먹어버린 것이 문제였다. 정상으로 근무하는 박만석 일병은 군사우편을 타고 둔덕리에 도착을 해서는 전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병어리 각시에게도 어엿한 이름이 있었다. 김귀순(金貴順)이라는 이름은 병어리 각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옥수수 한 바가지 삶아 들고 동네 옛 훈장 찾아가 사정해서 지어 받은 이름이다. 이 귀하고 순한 이름을 본인은 물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타고난 병어리에 귀머거리인 귀순이에게는 어머니 이외는 불러주는 이 없이 병어리로만 불리다가 반편이에게 시집을 온 것이다. 웬만하면 감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골이라 불리는 동네서 시집왔으니 감골댁이라고 택호로 불러줄 만도 하건만, 세상은 그저 병어리 각시로만 불렀다. 이제 우리만이라도 김귀순은 아니어도 감골댁으로 불러주기로 하자.

남편 박만석을 징집으로 군대에 보내고 여전히 밭품 팔고 남의 집 잔치에 일품 팔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감골댁은 어느 날 문득 몸에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다. 경험 없는 감골댁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 있다가 퍼뜩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임신? 아기?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다.

남편이 징집되기 전날 밤, 준비랍시고는 옷가지 두어 벌에 양말 수건 몇 가지 싸놓고는 불도 안 땀 방에 들어서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온전치 못한 이 여편네를 혼자 놔두고 군대에 가면 저 혼자 어찌 살 것인가. 불쌍한 것…….’

박만석은 속으로 이렇게 시름했고, 김귀순은 그녀대로 방정맞은 생각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이이가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 앞으로 나 혼자 어찌 살지? 그나저나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는데, 혹시……’

그러다가 문득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제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원초적인 욕망이 일어나 둘이는 한데 엉키어 붉은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황홀한 기분으로 그 밤을 새웠던 것이다.

‘혹시 그때 그 일이……?’

다음 순간, 감골댁은 옆집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동네에서 누구보다도 감골댁을 불쌍하다며 보살펴주는, 혼자 사는 할머니였다. 경험 많은 할머니는 감골댁의 손짓 몸짓만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으이그, 불쌍헌 것! 그래, 임신이 확실허구먼. 어쩔거나 혼자 몸이……. 불쌍도 하지.”

이렇게 탄식하고는, 곧 태도를 바꾸어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다.

“그래도 생명은 삼신할망이 점지해준 소중한 것인께 마음 단단히 먹거라, 허튼 생각 허지 말고.”

감골댁은 다는 못 알아들어도 무슨 뜻인지는 눈치로 알아채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왔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이웃집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겨우 마음을 잡고

지내는 감골 덕에게 박만석 부대의 신참 병사가 실수로 보낸 전사통지서가 군사우편을 타고 배달되고 말았다. 감골덕의 슬픔과 고난을 어찌 다 쓸 수가 있겠는가. 다행히 감골덕은 옆집 할머니의 보살핌 덕에 아들을 순산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없는 힘든 하루하루를 시름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두어 해가 더 지나고 어느 컴컴한 저녁나절에 둔덕리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마을에 군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반편이었다. 전사했던 반편이가 의젓하게 군복을 입고 ‘박만복’이라는 어엿한 명찰까지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귀신이 나타난 양 놀래서 모였던 동네사람들도 한참 후에는 전쟁 중의 행정착오였을 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가워하고 축하하는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반편이의 사람됨이 너무나 변한 것이었다. 말소리도 의젓하고 행동거지가 보통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박만복’ 세 글자는 그 이후로 반편이라는 호칭을 동네사람들 입에서 지워버렸다. 상대의 나이에 따라 ‘만복이’ ‘만복 씨’ ‘만복아제’ ‘만복이형’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박만석 씨는 군대 가기 전으로 돌아간 듯 여전히 남의 땅일 망정 빌려서 열심히 일하고, 틈틈이 동네일에 앞장서 봉사하며,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 보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몇 년간을 보내면서 동네주민들의 신임을 받아 이장일도 맡아서 하고, 살림 형편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운명의 신은 이런 착한 박만복 씨에게 한 번 더 큰 기쁨으로 보상 해주시려나 보다. 박만복 씨가 살아서 돌아온 지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 5.16군사혁명이라는 커다란 물결이 온 동네의 기본 틀을 바꾸

어 놓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어 마을길도 넓히고 주택 개량사업도 착착 진행되어 새로운 사회질서 속에 마을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던 어느 날, 전쟁통에만 보던 지프 한 대가 나타나 박만석 씨를 데리고 간 것이다. 웬 영문인지 모르는 둔덕리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궁금해 하고 있을 때, 박만복 씨는 다 저녁때나 되어서야 검은 승용차를 타고 자기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 때 타고 온 차가 보통 차가 아니라 군수님의 차라는 것과, 군수님이 동행하여 내려주고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이었다.

궁금해서 모인 동네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박만복 씨가 털어 놓은 이야기는 이랬다.

휴전이 임박해서 적군과 아군은 한 뼘의 땅이라도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양쪽이 밤낮없이 온 화력을 퍼부으며 단말마적인 격전을 하고 있을 때, 박만복이 속한 부대 역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전쟁 막바지인 어느 날, 고지에 식사를 날라주고 어둠 속에 부대로 내려오던 박 하사는 소변을 보기위해 일행과 떨어져 숲으로 들어갔다가 기절을 할 뻔했다. 커다란 바위 옆에 웬 인민군 병사 하나가 꾸부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낀 박 하사는 바로 냉정을 되찾고 전쟁터 삼 년에 터득한 진리가 생각났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마음을 진정한 박 하사는 메고 있던 M1소총 개머리로 힘껏 내리쳐 인민군을 제압하고 손을 뒤로 묶은 채 부대로 끌고 와서 중대본부에 인계를 했다.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박

하사는 말은바 취사준비에만 열심일 뿐이었다. 박 하사의 부대는 포로로 잡은 인민군한테서 얻은 정보로 적의 예상 침투로에 잠복했다가 적군을 박살내고, 여세를 몰아 난공불락이던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 그렇지만 박 하사 자신은 그저 그런가보다 했을 뿐, 자신의 공적은 어디 가고 부대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부대표창과 지휘관들의 표창으로 마무리되고 만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고지 점령이 얼마만큼 중요했는지도 물론 알 턱이 없었다.

그 며칠 후, 정전협정이 발효되고 치열했던 전투가 끝을 내면서 박만석 하사는 제대를 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전쟁 중의 모든 사실을 확인 기록하는 전사편찬 작업 중에 위원들이 이 전투의 엄청난 공적을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에 비해 그 단초가 되는 첩보의 출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중대장을 소환하여 증언을 들었다. 지난 일로 항상 양심의 부담을 느끼던 중대장은 치열한 전투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박만석 하사의 공적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했노라고 사실을 토로했다.

군수실에 불려간 박만석 씨는 당시의 상황을 묻는 편찬위원들의 물음에 사실대로 증언하고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하여 박만석 하사의 공적이 확실해지자, 출장 나온 위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경례를 붙이며 치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불찰로 진정한 영웅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즉시 전사(戰史)에 사실을 기록하고 응분의 표창과 훈장을 상신하겠습니다.”

박만석이 얼떨결에 마주 일어서서 경례를 하자, 한술 더 떠서 펄쩍 뛰며 기뻐하는 것은 군수님이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악수를 청하면

서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했다.

“우리 군(郡)의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군의 커다란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박만석의 귀가 길을 자기 차로 모셨던 것이다.

다음날부터 둔덕리와 박만석 씨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군(郡)으로부터는 박만석 씨를 공적인 둔덕리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소 지지부진하던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이 군의 배려로 둔덕리가 우선순위를 차지해 각종 자재도 우선적으로 넉넉하게 지원되면서 마을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갔다. 박만석 씨가 집을 지을 셈으로 신청해 놓았던 동네 위쪽의 국유지가 군의 협조로 불하가 결정되어 양지바른 쪽 널찍한 대지 위에 근사한 집도 지을 수가 있었다. 모든 숙원사업들이 군의 협조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웃 마을들의 부러움을 사는 속에 둔덕리의 주민들은 박만석 씨의 공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에서 직원 한 사람이 방문하여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지난번 박만석 씨의 모든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어, 정부에서는 늦었지만 그에게 대통령표창과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에 도지사과 인근 부대장이 군 내의 유지들과 함께 와서, 얼마 전에 준공한 둔덕리 새마을회관에서 수여식을 할 테니 준비를 해달라는 전갈이었다. 그리고 준비하는 데 쓰라고 금일봉도 같이 전하고 갔다.

소식을 전해들은 둔덕리에는 그야말로 생난리가 났다. 마을회관을 만국기로 장식을 해야 한다. 돼지도 한 마리 잡아서 인근 동네 주민들도 초대하자. 읍내 양조장에 술도 넉넉히 주문하자. 오랫동안 써본 일이 없던 풍물도 꺼내서 풍물패도 조직하고 한바탕 질펀하게 놀아보자. 언제 둔덕리에서 이런 경사를 또 치르겠나. 이렇게 다들 법석을 떠는

가운데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이다.

온 동네주민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에는 태극기 하나씩 들고 마을 어귀로 나갔다. 동네에는 박만석 씨와 감골댁 둘이서만 남은성싶다. 박만석 씨 내외는 동네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복 한 벌씩 장만해 입고 새로 지은 집 마루에 손잡고 나란히 서서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고 서있었다.

이윽고 멀리서 쌍라이트를 밝힌 차를 선두로 여러 대의 차들이 대오를 지어 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박만석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을 감고, 아들이 써준 답사를 다시 한 번 외어본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저를 오늘 이렇게 성대히…….”

외우다 말고 아내를 돌아본다. 감골댁의 두 눈에 아침이슬 같은 눈물이 고인다. 박만석 씨는 얼른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살며시 안아본다. 그리곤 계면쩍은 듯이 한마디 한다.

“우리도 가지.”

그러면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뜰로 내려서며 답사의 마지막을 외워본다.

“이제 이 모든 영광을 같이 싸우던 전우들에게 돌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조국이 필요해서 부르면 주저 없이 이 한 몸…….”

별써 마을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차들이 보인다.

둔덕리의 가을하늘이 높고 푸르다. 새로 지은 마을회관 앞의 국기계양대에 달린 깃발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힘차게 펄럭이는 것 같다.

수필 | 보리싹 돋아날 때면

몇십 년 만의 추위라던 겨울도 아주 갔는지,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도 예이는 듯한 섬뜩함이 가시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든다. 완연한 봄의 문턱에 온듯하다.

“봄” 하고 한 음절 외마디소리를 뇌어보면 사람마다 제각각 떠올리는 것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희망, 기대’ 이런 단어들이 것 같다. 추운 겨울에 구상했던 새로운 인생설계, 지난 가을에 토라진 애인과의 짜릿한 만남, 신혼부부의 예쁜 아기 탄생 등, 대개가 이런 희망적인 기다림이 아닐까 싶다.

들녘에 파란 보리 싹이 바람에 나부끼는 전원적인 풍경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다.

수년 전부터 한동네 가까운 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안부도 묻고 세상살이 경험담을 들어가며 점심을 같이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매달 돌아가면서 음식의 종류나 장소를 정하는데, 어느 해 봄날인가

마침 순번이 돌아온 회원이 이번 달에는 아주 귀한 맛을 보여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우리는 약속 장소에 모여 그 회원의 길 안내로 시장 한귀퉁이에 있다는 그 식당에 찾아갔다. 하지만 찾아간 식당 앞에 도착하니 회원들 모두의 얼굴이 표 안 나게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식당이래야 대어섯 펴 남짓하고, 그나마 건물 한쪽에 달아내어 볼품없기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인데다, 탁자라야 고작 너댓 개, 간판도 낡은 판자쪽에 빨간 글씨로 ‘홍어’ 딱 두 글자가 쓰여 있고, 환기조차 안 되는 굴속 같아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안내한 회원은 우리들의 기분도 모르는지, 주인인 듯한 께죄죄한 할머니에게 자리를 부탁하고, 우리는 밖에서 잠시 벌레 씹은 상으로 기다려야 했다. 그 끝에도 단골은 많은지 네댓 개 되는 좌석이 만석이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자리가 났다는 주인할머니의 이야기에 일행은 안으로 들어가 대포집 의자처럼 빠그덕거리는 둥근 의자에 뒷손님과 등을 맞대고 자리를 잡았다. 안내한 회원이 일행의 기분은 아랑곳 않고 의기양양하게 멋대로 시킨 음식이라니!

“할머니, 여기 홍어젓국 다섯이요!”

어이가 없어진 일행은 기가 막힌 듯 멍하니 조리하는 할머니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을음이 잔뜩 붙은 커다란 양은 냄비에 물경한 홍어 애(내장)듬뿍, 벌건 고춧가루 양념도 듬뿍, 그리고는 다 끓어간다 싶을 때에 첨가하는 파란 보리쌀 한 움큼,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부글부글 끓어가니 제법 구수한 냄새가 풍겨온다.

“다 익었으께 맛있게들 잡수시오잉?”

그러면서 할머니는 식탁 위에 막걸리 한 병을 턱 올려놓았다.

어쨌든 우리 일행은 땀을 흠뻑 흘려가며, 시원한 막걸리로 입가심을 해가며 양푼을 비웠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보리 새싹 때문에 생각보다 싱그러우면서도 칼칼하고 얼큰하면서도 톡 쏘는, 그야말로 감칠맛을 흠뻑 즐겼다. 안내한 회원이 그것 보라는 듯이 어깨를 짚 펴며 한마디를 해서 일행을 웃겼다.

“홍어엿국은 보리싹 나는 지금 아니면 못 먹거든. 자네들 오늘 내 덕에 남도의 봄을 미리 맛보는 행운을 잡은 거야.”

우리는 그 맛에 빠져 봄이 되면 두세 번씩 그곳에 들렀고, 그야말로 남도의 봄소식을 흠뻑 미리 맛보곤 했다.

그런데 서운한 일이 생겼다. 작년 봄에도 예외없이 그곳에 들러 홍어엿국을 즐기고 있을 때, 주인할머니가 막걸리 한 병을 건네주면서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막걸리 오늘은 공짜야. 시장 리모델링인가 뭔가 한다. 나도 인제 힘이 부쳐 가게를 접기로 했어. 오늘이 마지막인데 잘들 먹고 가. 어쩐지 오늘쯤은 자네들이 올 것 같혔구만. 각시들 새끼들 사랑허구, 오래 오래 재밌게들 살어. 내사 인자 고향에 가서 텃밭에 호미질이나 허다가 갈 때 되문 가야제. 자네들 생각 오래 날껴.”

세상에 어떤 이별사가 이보다 더 마음 잔하게 들릴 수 있을까. 일행은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김 서린 문을 나왔다. 뭔가가 가슴을 울컥하게 했었나 보다.

일 년에 몇 번 가는 것도 아니면서 단골식당 문 닫은 것처럼 서운하고 아쉬움이 오래 가는 것은 이제 나이를 먹은 탓이 아닐까 하면서도, 사람의 정이라는 게 오래 쌓인다고 꼭 도타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올해도 방송에서는 어김없이 봄타령이 시작되니, 청보리싹 듬뿍 들어간 홍어엿국 생각에 입맛을 다시게 되지만, 어쩐지 다른 곳에서 먹는 홍어엿국은 그 할머니의 손맛이 아닐 것 같다.

비록 구수하고 얼큰한 홍어엿국 먹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그 할머니 고향에 가서서 쉬엄쉬엄 운동 삼아 텃밭이나 매면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보리싹 돌아나면

들판에 청보리 싹
한 뼉이나 넘게 자라고
목덜미를 스쳐 가는 바람도
한결 부드럽게 보리밭 위를 물결치는데

봄 되면 시장 한 쪽에
탁자 서너 개 벌려 놓고
보리싹 한 움큼씩 뭉쳐 넣어
얼큰하고 구수한
홍어엿국 끓여주던 할머니

이젠
깊어진 세월의 무게가 힘겨워
뭉땅 놓고 고향 갈란다고

공짜 막걸리 한 사발 곁들여주며
쓴웃음에 작별했는데

이 봄엔
어느 보리밭 가에서
구수한 흥어 옛국 추억에 취해
호뿔자루 쥐고 졸고 제실까
(애 : 물고기의 내장)

수필 | 아날로그 설날과 디지털 추석

더위 속에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니 특별한 약속이 아니고는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간다.

오늘도 날씨를 보아 외출 생각은 별로 없고, 조간신문을 대충 훑어 보고선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FM음악 방송을 듣다. 날씨에 잘 조화되는 곡을 고른 듯, 가냘프고 애잔한 목소리로 ‘솔베이지 송’이 흘러 나온다. 머리가 하얗게 센 참 곱게 늙은 여인네가 창가에 앉아서 멀리 빨갭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꿈 많고 가슴 설레든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듯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우리 집안은 대가족이다. 큰집이 되는 우리 집에는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적게는 30여 명에서 많게는 40여 명 가족이 모여 차례(茶禮)를 지내게 된다.

차례 전날에는 여인네들이 모여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이며 식구들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고, 차례 당일에는 차례 지내

라 대가족의 식사 준비하랴 온 종일 왁자지껄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당연한 것으로 행해지던 모임에 차츰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일가친척이라고 해서 각자가 흠어져 살더라도 한동네 아니면 고개 하나 넘어 가까이 살았고, 생업이라야 농사지으며 서로들 비슷한 패턴의 생활이었기에 명절에 종갓집이나 큰집에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지루한 생활 속에서 기다려지는 즐거운 행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면서 각자 사는 곳도 상당히 먼 곳으로 뿔뿔이 흠어져 살기가 일쑤이고, 각자의 생업도 모두가 달라졌다. 뻘뻘하게 돌아가는 환경에 휴식이라는 여유도 필요해졌고, 요일이라도 잘 엮여져 징검다리 휴일이라도 되면 하루의 휴일로 며칠씩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요행도 있어서 사랑하는 처와 자녀들만의 오붓한 시간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집안을 사실상 이끌어 가는 연장자들에게는 이런 흐름을 알고 그냥 넘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영향력이 있는 연장자 몇이 모여 조심스럽게 의논하기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우선 추석차례는 대가족의 울타리를 잠시 벗어나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즉, 추석에는 한곳에 모두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대신 가구 단위로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예를 표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두어 해를 지내본 결과, 추석 임시에는 기독교의 추수 감사절도 겸해서 조상에 대한 감사의식을 나름대로 경건하게 지내고 나머지 시간을 국내외 여행 등, 효과 있게 보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 내 판에는 다행이다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설날도 그렇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신호가 또다시 노골적으로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몇이서 모여 의견들을 모아 보려고 했으나, 곧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왕에 추석을 그리 지내기로 하였고 결과도 모두 만족할 만하니 설날차례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과, 일 년에 한 번 뿐인 가족모임인데 설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결론을 낼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관례대로 장손인 나를 보고 결정하라는 곤란한 주문이었다.

난처해진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당분간은 지금처럼 온 가족이 모여 설날차례를 지내자는 쪽으로 마무리를 했다. 물론 당분간이라는 전제를 두어 한쪽 의견을 달래어 놓았지만, 실제로 내 생각에는 아직은 어린아이들이 설날만은 새 옷 입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얼굴도 익혀야 하고,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으며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 세어보는 재미를 빼앗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추억거리라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금을 사는 어른들의 도리일 것 같았다.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대에게만은 꼭 물려주고 싶었던 마음의 유산이 아니었을까? 결국, 아날로그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추석 보내기는 디지털화해놓고 설날 보내기는 아날로그로 그냥 남겨 놓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숙부님의 기일이 되어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앙선을 타고 덕소를 갔다. 제사가 끝나고 덕소에서 돌아오기는 너무 늦기는 하지만 평소에 가깝게 지내온 탓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조금 일

찍 가서 제사상 차림을 거들어주곤 했는데, 이날은 어쩐 일인지 도착해서 보니 벌써 상차림이 끝나 있었다. 자세히 보니 진설(陳設-제사 상차림)도 훌륭했다.

하도 기특해서 수고한 고인의 며느리에게, 이제는 혼자 해도 훌륭하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더니,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스마트폰 화면에는 제사상 상차림 그림이 선명한 게 아닌가. 아뿔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대가 이렇게까지 와 있구나 하며 속으로 멧쩍게 웃어넘기고 말았다.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나는 속으로 뭔가 집히는 게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검색창에 ‘제사대행’이라고 치니 장례식장처럼, 제사를 대행해주는 업소가 벌써 많이 생겨 있었다. 제사 장소와 제수(祭需-제사음식)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와이셔츠와 넥타이에 샤워시설까지 갖춰놓고 퇴근 후 약속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검은 넥타이 갈아매고 옆에서 도우미가 시키는 대로 제주(祭酒) 올리고 절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제 오래지 않아서 제사 때가 되면 컴퓨터로 제사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하고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해 놓으면 잘 차려진 제사상 그림이 나오고, 제사 모실 분의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지방(紙榜)도 교체되고, ‘제사 지내기’를 누르면 촛불 켜지며 향 피어오르고, 잔에 제주 채워 올려지고, 축문(祝文)까지 낭랑하게……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TV 앞에 자리 깔고 죽 서 있다가 하라는 대로 절만 하면 마무리되는 스마트 제사 시대가 곧 올 것만 같다. 아니, 벌써 어디엔가 와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조상님들이 이제는 컴퓨터도 배우시고 사이버 공간에서 길도 찾

으셔야 하니 참 바쁘시게 생겼구나 생각하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날로그 제사 시대가 디지털 제사 시대로, 그리고 급기야는 스마트 제사 시대가 눈앞에 닥칠 것 같은 생각에 이르니 가슴이 착잡하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저물녘의 바닷가에 홀로 서서 멀리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 위에 붉게 물들어 있는 노을을 바라보는 듯 허전하고 쓸쓸해진다.

이젠 조상님들 제사상에는 맛이 별로인 대추 밤 대신 고성능 3차원 내비게이션 한 접시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 고운님 고운 바람

고운 바람 불면
그 고운 바람 타고
내 고운님 오시려나

힘한 바람 불 때
그 힘한 바람 타고
내 성낸 님 가셨는데

오늘은 저 산 넘에서
어느 바람 불어올까

성낸 님 화를 풀고 고운님 되어
고운 바람 타고 오신다면
발부리 깨어져라 뛰어 나가련마는

그 바람 나 보기 싫어
내 몰래 샛길로 재넘어 가버렸나?

해질녘

모퉁이 돌담 집 앞에서

까치발 하고 재 넘어 바라보는

목이 긴— 사람

〈한국미소문학 신인상 당선작〉

시 연못 하나, 가슴속에

내 가슴 깊은 곳에
작고 아담한 연못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금붕어 몇 마리 헤엄치고
잔잔한 수초 몇 줄기 싱싱한
파랗고 투명한 그런 연못

몹시 화가 날 때 비춰보면
맑은 물결이 화난 얼굴 밝게 펴주고

감당 못할 괴로움에 시달릴 땐
금붕어들이 미소 지어 달래주고

말 못할 슬픔에 힘들어하면
부드러운 수초들이 쓰다듬어 달래주는
그런 연못 하나 지니면 좋을 텐데,

감정이 메마르면 시원하게 채워주고
걱정에 방황할 땐 차분하게 다독여주는

그런 연못 하나

가슴속 어디엔가,

그런 연못 하나

꼭 가져보고 싶다.

〈한국미소문학 신인상 당선작〉



손순옥 편

수필 캄보디아, 공존의 미학

2월

매미와 알려지

시 선잠단

비오는 날의 정경

내가 앙코르와트 사원을 안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세계적으로 신기하거나 미스터리한 일들을 모아 놓은 어린이용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앙코르와트 사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머릿속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워낙 강렬하게 각인되었던지라 50년이 지난 지금도 내용과 삽화가 기억난다.

프랑스 곤충학자가 나비채집을 하고 있었다. 희귀한 나비를 좇고 있었는데 보조원인 원주민들은 일정한 지점이 이르자, 더 이상 들어 가면 죽는다고 모든 작업을 거부했다. 수고비를 몇 배로 주기로 하고서야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나비를 좇아 밀림 숲을 헤매는데, 갑자기 눈앞에 장엄한 건축물이 나타났다. 규모로 보아 거대한 제국이 있었을 법하지만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거대한 건축물만 나타난 것이었다. 원주민들이 그곳을 가기를 두려워한 것으로 미루어, 제국은 전염병으로 멸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다. 여기저기 앙코르와트 사원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다. 그때가 1960년대 중반 정도였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별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 후 앙코르와트는 내가 일생을 두고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다. 난 내 생애에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앙코르와트는 꼭 가보리라 다짐했다. 아니, 앙코르와트를 가보기 위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랐다.

요원할 것 같았던 어린 시절 나의 꿈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내가 그토록 답사하고 싶어 했던 앙코르와트신전은 10세기 전후에 번창했던 크메르족이 남긴 많은 유적 중 하나였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씨엠립에는 앙코르와트 신전만이 아니고 앙코르 톰사원을 비롯한 수많은 유적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하나마다 저절로 경탄이 나올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과거의 번영을 처연히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앙코르톰’이었다.

‘누가 뱀을 이토록 멋지게 형상화 할 수 있을까?’

해자를 통과하는 다리(橋)는 일곱 개의 머리를 치켜든 거대한 ‘나가’(수호신으로 다두의 코부라)의 머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108명의 신들이 나가의 몸체를 받쳐 들음으로서 난간을 만들었다. 오른쪽 신들은 선신(善神)들이고 왼쪽 신들은 악신(惡神)들이었다. 선신 54명과 악신 54명, 108인의 신상은 모두 표정이 달랐다(복원 중인 것도 있었고, 두상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있었다).

‘선신과 악신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호기심으로 서로 대조해 보았다. 선신과 악신의 구별은 쉬웠다. 선신이라고 해서 모두 웃고 있지 않았다. 심오한 표정도 있고 근엄한 표정도 있었다. 즉, 선신들은 모두 깊은 생각과 진리를 탐구하는 듯하는 얼굴이었다. 이에 비해 악신들은 우울한 얼굴이거나 억지웃음을 띤 표정, 또는 마음이 비어있는 표정이었다. 무표정도 있었다. 선악의 차이와 분기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모습이었다.

선신과 악신을 좌우에 두고 다리를 건너 입구에 다다랐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축되고 주눅이 들만큼 거대한 성벽이었지만, 사람이 통과하는 출입문은 이상하리만큼 좁았다. 인간이 코끼리를 타고 통과할 만한 폭밖에 되지 않았다.

침략에 대비함이었을까?

나는 코끼리가 아닌 툽툽이(오토바이를 개조한 캄보디아 특유의 이동 수단)를 타고 성문을 통과했다. ‘옛날이었다면 어림이나 있었을까?’ 불경을 저지르는 기분이 들었다.

한참을 가니, 건물이라기보다 거대한 조형물이 나타났다. 석탑마다 동서남북으로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는 바이온 사원이었다. 사면(四面)의 인물상은 모두 다른 사람(아마도 왕?)이었고 표정도 달랐다. 뿐만 아니라, 54체의 탑들은 서로 적당한 크기와 높이로 건물의 윗부분을 멋지게 마무리 하고 있었다.

커다란 돌을 이용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다음 위에서부터 조각해 내려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외형을 지니고 있으면서 내부는 사원으로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 벽면의 조각은 외부의 육중함과 달리 가슴이 서늘할 만큼 정교

했다. 왕의 전투장면 부조는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듯 선명했다. 그러면서도 뛰어난 입체감을 보여주었다.

석탑을 돌아오는 위치에서 옆의 석탑을 바라보았다. 탑의 끝은 둥그런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둥근 꼭대기 아래 모서리는 확연한 사각을 드러내었다. 원이 직선이 되고 직선이 다시 원으로 되어 이어지는, 그래서 원과 사각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바푸아 사원’을 지나 코끼리 테라스에 이르렀다. ‘이름이 왜 코끼리 테라스일까?’했던 의문은 담장을 보는 순간 단박에 풀렸다. 그들의 표현방식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350m 긴 벽면에 코끼리가 여러 마리 부조되어 있는데, 코만 돌출되어 입체로 조각되어 있었다. 벽에서 코끼리들이 긴 코를 쭉 내밀고 전진하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거대한 스펡나무 뿌리가 허물어져 가는 사원을 움켜쥐듯 하고 있는 타프롬 사원으로 갔다. 스펡나무 뿌리로 인해 사원은 허물어져 갔고, 허물어져 가는 사원을 스펡나무 뿌리가 휘감아 보존하고 있었다. 자연이 인간의 유형물을 망가트리려고 다시 보존하는 기이한 형국의 존립이었다. 거대한 나무뿌리는 특이한 역할만큼이나 생김새도 기이했다.

자연의 외경을 느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벽면의 얇고도 섬세한 부조는 마치 선녀의 손으로 짠 실크를 벽면에 발라 놓은 듯했다.

‘도대체 어떠한 손을 가졌기에……’하는 의문에서 현지인들의 손과 발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과연, 그들의 손과 발은 돌을 닮아 보였다. 아

마도 그들의 조상은 돌과 하나가 되어서 이토록 멋지고 위대한 유산을 남겼으리라!

‘앙코르와트 사원’은 조금 떨어져 있었다. 어려서부터 열망해왔던 답사가 눈앞에 다가오자 만감이 교차했다.

검은색의 사원은 길고 안정된 자세로 정연히 나타났다. 신전과 왕궁의 겸용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후의 세계(묘)라는 설이 설득력 있어 보였다.

정면에서 바라보니 봉우리 같은 건축물이 세 개였다. 옆으로 비스듬히 보자 사진에서 보던 다섯 봉우리가 정확한 대칭을 이루며 모습을 드러냈다. 워낙 정확한 위치에 있어서 뒤의 건물은 앞의 건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검은색과 돌의 조화는 오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죽은 자의 정원을 연상케 했다.

건축물 자체에 힌두교의 교리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 많은 벽면과 공간이 의미가 없는 곳이 없었다.

신전의 가파른 계단은 신의 위엄을 위해 인간은 네 발로 기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했다. 실제로 신전에 오르기 시작하자 심한 현기증을 느꼈고, 저절로 네 발로 기어오르게 되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네 발로 기고 있는 것은 나 한 사람뿐이었다).

모든 것은 돌로 되어 있었다. 창도 돌이었다. 벽면에 네모 난 창이 뚫려 있고 공간 사이로 돌로 된 주렴이 있었다. 주렴은 현대의 창문을 의미하고 있었다.

육중한 돌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자로 잰 듯 정확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건물을 벗어나면 다른 건축물이 바

로 눈앞에 나타났다. 긴 회랑을 따라 가다 잠깐 고개를 내밀면 갑자기 눈앞에 건축물이 나타났다가 고개를 돌리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시야에서 없어졌다. 그러니 모두가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토록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크메르족들의 후예가 지금은 자력으로로는 호텔 하나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서글프다 못해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관광이 끝난 후 시장에서 전통 옷을 하나 샀다. 이 옷은 일종의 바지 치마였다. 넓은 폭으로 치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아랫단은 발목만 빠져나올 정도로 트여있고 나머지는 막혀 있어 바지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치마와 바지의 중간이 아닌, 완벽한 바지와 완벽한 치마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졌다. 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가지를 어정쩡하지 않고 확실하게 공존시키는 그들의 사고를 엿보았다. 장중함과 섬세함, 원과 사각, 바지와 치마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결코 개성을 잃지 않는, 마법 같은 공존의 미학을 보았다.

1975년, 부패한 론논 정권을 타도하고 폴포트의 크메르루즈 정권이 집권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한 공산사회를 최단시간 내에 건설하기 위해, 혁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버렸다. ‘킬링필드’라 불리는 대학살의 처형대상은 전문직, 공무원, 교수, 의사, 약사, 외국어 구사능력자, 해외경기 참가 경력이 있는 운동선수 등 대부분 중류층 이상의 지식인 있었다. 심지어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안경의 착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도 한다.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사회지도층을 모두 잃어버리고 국가기반이 붕괴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세계 최빈국 6위라고 한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상념이 오갔다. ‘과연 그들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조상들의 후손답게 재기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간절히 기원한다. 캄보디아의 앞날이 독창적이고도 화려했던
문명을 구축했던 대제국의 후예답게, 나가(뱀)의 머리처럼 높게 치켜
세워지기를…….

〈한국수필가협회 신인상 수상작〉

꽁꽁 얼어있던 시냇가의 얼음을 녹여 활기찬 봄의 시냇물을 만드는 것은 2월이다. 이는 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얼음이 녹듯 포근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랑과 곧잘 비유된다. 이런 이유로 2월은 ‘사랑의 달’이라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밸런타인데이는 2월의 한 가운데인 14일이다.

2월은 참 빨리 간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과 포부를 설계하던 거창한 1월을 보내고 한 숨 돌리는 사이, 어느 듯 2월은 가버린다. ‘언제 내가 보냈나……지가 가버렸지……’하는 변명까지 들 정도다. 근본적으로 날 수가 28일밖에 없으니 빨리 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짧은 사이에 가버리지만, 2월은 봄을 가져다놓고 간다. 겨울 동안 죽은 듯 서 있던 가로수도 뭔가 움질움질하는 기운을 보인다. 한파를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거실로 피난 와 기죽어 있던 화분들도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듯 부산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우리 집에는 아주 멋진 화분이 하나 있다. 추위를 아주 좋아하여 겨울 내내 베란다에 있던 한란(寒蘭)이다. 겨울 내내 모질다 싶게 추위를 품어낸다. 그러다 봄이 오면 이젠 때가 되었다는 듯 고고한 잎들을 추켜세우고 그 사이로 그윽한 꽃대를 쑥 뻗쳐낸다. 꽃망울은 홀수로 맺히고 꽃은 아래서부터 피기 시작한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감히 범접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기품이 서린다. 향은 쉽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은은하게 풍긴다.

이토록 고고하고 품격 높은 이 화분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우아해지고 속물과는 동떨어진 품위를 가지고 싶어진다.

추위를 좋아하는 식물을 추위 속에 놓아두고 따뜻함을 좋아하는 화분을 겨울 동안 실내로 옮기는 관리를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예전의 나는 그러지 못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 나는 많은 화분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잎사귀의 모양이나 빛깔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관엽식물들이었다. 봄이 되자, 나는 진분홍색 꽃이 만개해있는 있는 영산홍화분을 하나 샀다. 과연 꽃은 푸른 잎들만 있던 우리 집에 봄의 화사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영산홍과 함께 만끽한 화려했던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가고 추위가 느껴지자, 영산홍은 마치 쪼끄만 헛바닥을 쑥 내민 것처럼 진홍의 꽃봉오리를 소담스럽게 화분 가득 맺었다.

나는 집 안에서 영산홍과 함께 봄의 향연을 즐길 요량으로 화분을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옮겨 놓았다. 활짝 피어서 보랏빛 감도는 분홍의 꽃더미를 연상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꽃망울이 터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꽃망울에서 꽃을 피우는 건 어찌다 한 두 송이 뿐이었다.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오도록 거의가 꽃망울을 터트리지 못했다. 탐스럽게 화분 가득 맺혔던 꽃망울은 나의 기대와 함께 그대로 말라버렸다. 그 해 봄은 그렇게 기다림과 아쉬움 속에 가버리고 말았다.

가을이 되자, 영산홍은 다시 꽃망울을 화분 가득 채웠다. 이번엔 거실에 활짝 피어날 꽃이 있을 자리를 마련했다. 한데, 또다시 작년처럼 꽃은 한 두 송이만 피어날 뿐, 거의가 꽃망울을 터트리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무언가 잘못 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까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을 주고 비료도 적당히 주는 등,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폈으므로 나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영산홍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별 이상을 찾지 못했다. 나는 모든 잘못은 이 화분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다시 봄이 왔다. 이번에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다음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한 5년이 지나자, '올해에는' 했던 기대감은 배신감으로 변해버렸다. 그 화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점점 적개심에 불탔다.

어느 해 겨울, 추위가 몰아오자, 나는 다른 화분들은 모두 거실로 피난을 시키면서, 영산홍만은 매정하게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해버렸다. 그러자 베란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저 혼자 구박데기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화분이 진분홍의 꽃을 활짝 피워낸 것이다.

그제야 이리저리 알아보니, 영산홍은 추위를 한 번 겪어내어야만 꽃을 피운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흥분했다. 아이들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활짝 핀 영산홍

을 자랑했고, 나는 옆집 친구를 불러 특별 커피파티를 열었다. 남편은 그 화분을 거실 제일 좋은 자리로 놓아두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다

“내시가 회춘 했군.”

그렇게 해서 몇 년에 걸친 영산홍과의 개화(開花)전쟁은 끝났다.

그 후 ‘꽃은 추위를 이겨내어야 꽃을 피운다.’는 사실은 한동안 나의 화두(話頭)가 되었다. 봄이 되면 당연히 피어나는 꽃 한 송이가 이토록 치열한 몸부림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놀라왔다. 꽃이 필요로 한 것은 봄의 온기와 영양분과 물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겨우내 죽은 듯 물기 없이 서 있던 가로수가 봄이 되어 움을 틔울 때, 이 또한 얼마나 겨울 추위를 버티고 거부하면서 속으로 자신을 불태워내었을까?

2월에는 엄청난 겨울 에너지가 숨어있다. 그 에너지를 풀어내어 움을 틔우고 꽃을 피워낸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듯하지만, 얼어있던 겨울 땅을 꽃 피는 봄의 대지로 만들어 놓고 간다. 이렇듯 2월은 짧은 기간 동안 분주히 제 할 일을 모두 해놓고 훌쩍 떠나버린다.

미국 인디언 체로키족 언어로 2월은 ‘홀로 걷는 달’이라고 한다. 2월, 달 밝은 밤 홀로 먼 길을 떠나는 인디언을 상상해본다.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싶다.

〈한국수필가협회 신인상 수상작〉

수필 | 매미와 알러지

한동안 억세게 퍼붓던 장맛비가 그쳤다. 장마전선이 남부로 내려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방송되었다.

예보대로 하늘은 맑게 개었고, 아침부터 햇빛이 짹짹 내려쬰며 한여름의 폭염이 시작되었다. 장마가 그쳤음을 알려주려는 듯, 다음날부터 우렁찬 매미소리가 들려왔다. 자연의 섭리를 인간보다 훨씬 더 미묘하게 알아차리는 감각이 신비롭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마철이 매미가 부화하기 적합한 습도와 온도라고 한다. 또, 매미는 부화하기 전에 지면 위로 5~10cm 정도 탑을 쌓는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자면 장마철의 축축한 시기가 적기라는 설명이다.

여름 내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시원스레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듣노라면 ‘참 팔자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매미의 일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매미는 나무줄기 속에 알을 낳는다. 알은 그 상태로 1년을 보내고, 이듬해 유충이 되면 스스로 땅에 떨어진다. 유충은 흙 속으로 기어 들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17년까지 굶뎡이로 지낸다. 그 사이 여러 번 허물을 벗고 변태를 한다. 마지막 변태로 매미 비슷하게 생긴 굶뎡이는 땅을 뚫고 나와 나무줄기에 매달려 있다가 등이 갈라지면서 탈피하는 우화과정을 거친다. 그 후 몇 시간에 걸쳐 얇고 투명하면서도 현란한 날개를 말린 매미는 짹짹기를 위해 여기 저기 날아다니며 울어댄다. 암컷 매미는 울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단지 뱃속의 막으로 진동만 느낄 수 있다. 암컷 매미는 짹짹기를 마치면 나무껍질 속에 산란을 하고 기진하여 땅으로 떨어져 죽는다. 성충이 된 매미의 수명은 사흘에서 길어야 한 달이다. 이러한 일생을 누리고 가는 매미는 극소수이다. 유충의 95%가 개미, 두더지 등에게 잡아먹히고, 천신만고 끝에 매미가 되어서도 절반 넘게 새, 거미에게 희생당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억울하기라도 한 양, 여름 내내 주야창천 노래만 불러대는 것 같은 매미의 소리는 실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소리라고 한다. 암컷에 대한 세레나데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수컷끼리의 경쟁에 있어서는 더 큰 소리를 내어야 한다. 또, 경쟁자를 방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큰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러니 매미소리는 세레나데라기보다 종족 보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외침이기도 하다.

매미가 한창 울어대는 8월 초순이 되면 나에겐 안구가려움증이 시작된다.

한 10여 년 전, 가려운 안구 때문에 안과에 갔다. 의사는 내 차트를

보더니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안구가 가려워서 오셨죠?”

의사는 매우 재미있다는 투였다.

“오 년째 일 년에 한 번씩 안과에 오시는데, 거의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왔군요. 가을철 알려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가을철 찬바람을 거부하는데,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이 안구가려움증인 것이다. 그 후 이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를 유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8월 7일 아니면 8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은 입추라는 사실이다.

못된 시어미마냥 늦더위가 기승을 떨치던 해가 있었다. 아침저녁으로는 선들거리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8월 중순이 지나도록 오후일 같은 폭염이 계속되던 해였다. 그때도 어김없이 내 눈은 정확히 입추가 되자 가려워지기 시작했다. 내 몸이 동물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마가 끝나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니, 땅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매미들이 일제히 나무 위로 올라와 단단한 껍질을 벗고 드디어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나의 안구가려움증도 시작될 것이다.

결국, 징그러운 생김새에 미련하고 느려터진 굼벵이 출신 매미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성을 지닌 인간인 나나 같은 자연의 동물계라는 사실에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 중 한 대목이 생각난다.

시 원집단

나무가 아랑거리며 날렵하게 올라간다
허리에 가야금 산조자락을 휘감아올리며
가지 끝에 푸른 잎들이 이영을 이어가다
마침내 커다란 네모난 판을 만든다
왕비의 떨잠이 떨리 듯 잎사귀 사이로
누에머리 꿈지락거리다 사라진다

〈김광섭 추모 창작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시 비오는 날의 정경

하늘에 회색 악보가 걸렸다.
바람에 밀린 음표 하나가 내 우산 위로 떨어진다.
튀겨나간 ‘솔#’은 내 신발 아래 밟혀버렸다.

허공을 맴돌던 눈물분자들이 비를 타고 내린다.
나를 세워두고 눈물줄기 울타리를 만들었다.
꼼짝없이 눈물 감옥에 갇혀버렸다.

우산 위로 하느님이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신다.
툑 툑툑 툑 툑툑 툑툑툑 툑툑 ...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셨다.

화가 난 먹구름이 액셀을 밟았다.
심술 머금은 회초리가 와르르 쏟아진다.
등어리를 내어놓은 우산이 나 대신 마구 매를 맞았다.



심희진 편

소설 남자 머리 위에 앉은 여자

할머니, 오늘도 행쇼!

수필 콩닥콩닥

매일 하늘나라로 출장 가는 아빠

시 애심(哀心)

구속

소설 | 남자 머리 위에 앉은 여자

남자는 순탄한 코스를 밟아 온 대한민국 사나이이다. 물론 스카이대를 나온 엘리트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낙방 없이 바로 입학하여, 남자라면 꼭 가야 하는 군대도 방위 아닌 현역으로 제대하고 복학하여 입사까지, 남들은 운이 좋아 일이 술술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은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던 남자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사람들이 말하듯 안정적인 회사생활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순탄하기만 했던 자신의 인생에 전환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나가려 했으나,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그만두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부모는 혼자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자는 그냥 서울에 남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평소에 유난히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방학 때면 동대문에서 관련업

종 사업을 하는 작은아버지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쪽 해왔던 터라 진로 선택에 그다지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다. 왜 좋은 회사 그만두고 사서 고생이냐, 밤낮 바뀐 생활하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등, 주변에선 안타까운 맘으로 걱정을 하지만, 평안감 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던가. 삼십대를 코앞에 두고 지금 목표를 정해야 진짜 서른 살이 되면서부터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자심감도 줄 테니, 조금이라도 배짱이 남아 있을 때 시도를 해야 했다.

그래서 남자는 오늘도 깜깜한 밤에 출근해 흰한 대낮에 퇴근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가 선택한 이 일도 몸이 고되고 힘들다. 하지만 마음만큼을 가볍다.

남자는 밤새 일하고 들어와 씻는 둥 마는 둥 욕실을 나와 언제 빨랐는지 알 수 없는, 무릎이 삼각자만큼이나 볼록 튀어나온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옛날 학교 강당에서나 썼을 법한 시커먼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 사람이 패션을 논하는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불품없는 모습이었다.

침대에 몸을 누인 남자에게 이보다 더 꿀맛 같은 단잠은 없었다.

“드르륵, 드르르륵……!”

위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남자는 흠칫 놀랐지만,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 눈꺼풀은 이내 곧 그를 다시 잠들게 했다.

“이이잉……!”

계속되는 소음에 남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반쯤 뜬 채 거실 인터폰으로 윗집사람을 불러냈다. 인터폰 너머로 여

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여기 아래층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아……제가 가구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서 아직 작업실을 못 구했거든요. 하던 작업을 내일까지 마쳐야해서……. 늦지 않게 빨리 끝낼게요.”

“아니, 저는 야간에 일하고 낮에 자는데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쏟아지는 잠에 짜증이 났다. 여자는 잠시 조용했다.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아저씨 때문에 작업을 밤에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도 이 상황이 불편했는지 처음과 다르게 통명스런 말투다.

“곧 작업실을 구할 테니 내일까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기…….”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툭하고 인터폰이 끊겼다. 잠을 깨운 것도 화가 났지만, 좀 전에 여자가 나에게 쓴 아저씨란 호칭이 더 거슬렸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

한동안 그 생각에 사로 잡혀, 마땅한 호칭이 없다 보니 그랬으리라 믿으며 조용해진 틈을 타 다시 잠을 청했다.

“드르륵, 드르륵!”

예의상 버터준 시간은 10분이었다.

‘아니 저 여자는 뉴스도 안 보나? 요즘 층간소음으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겁도 없이…….’

얼마 전 윗집이 이사하고 새 이삿짐이 들어올 때만 해도 잘 참아 넘겼었다. 쪽 반복되던 소음도 아니고 그냥 사정이 있다하니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평소답지 않게 자꾸 신경 쓰이는 이유가 어제 그 여자의 부드럽지 않은 말투 때문인지, 그동안 풀지 못한 피로 때문인진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여자가 작업실을 구했는지 그날 이후 집은 조용했다.

이날도 퇴근한 남자는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고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가 현관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반갑지 않은 초인종 소리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가 현관문을 열었다. 웬 젊은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윗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집에선 작업 잘 안하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이거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서 사온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조심스레 케이크를 건넸다.

“아……네…….”

남자는 괜찮다든가, 잘 먹겠다든가, 무슨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잠결이라 그랬는지 그냥 멍하니 케이크 상자만 내려다보았다.

“그럼, 주무세요.”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여자에게 남자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래부터 훑어 본 자신의 모습은 그냥 잠이 필요한 아저씨였으니까…….

남자는 받아든 상자를 식탁에 올리고 의자에 앉았다. 여자는 남자가 상상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다. 조금은 거칠고 선머슴 같은 매무세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머슴은커녕 모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남자가 자주 접하는 피팅 모델처럼 키, 몸매, 얼굴 뭐 하나 모자람이 없었다. 오늘에서야 알았지만 성격도 제법 괜찮은 것 같았다.

그에 반해 자기가 여자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자는 동안인데다 밖에선 꽤나 패션 감각 있는 인상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하는 일도 그렇고 상대하는 사람들도 일과 관련되다 보니 타인에게 관심만큼 신경도 많이 쓰는 편이었다. 그 반사작용이라고 할까, 그래서 집에선 그냥 편한 게 제일이었다. 누구에게 꼴을 보일 일도 없었으니까.

남자는 좀처럼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여자의 첫인상이 강하게 머리에 남아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남자는 어두운 밤이 돼서야 또 출근준비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여자가 불룩한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를 건네자 여자는 가볍게 눈인사로 답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어색해했다.

“저……701호…….”

“아, 누구신가요. 일 나가시나 봐요?”

“네.”

“케이크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네, 맛있더군요. 잘 먹었습니다.”

“먹어보셨으니 가끔 생각나실 걸요.”

“그렇지도 모르겠네요.”

남자가 미소했다. 여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제멋대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였다.

그럴 때 1층에 도달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남녀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잠 못 들었던 그날, 남자는 단번에 케이크를 다 먹었다. 원래 단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여자의 말처럼 그 케이크에는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 후로도 오고 가며 가끔 여자를 보았다. 말 대신 눈인사만 건네는 사이였지만, 그렇게 마주치는 게 남자는 싫지 않았다. 조금 아쉬울 뿐이었다.

남자는 휴일을 맞아 대청소를 해볼 참이었다. 일단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를 빨아 닦아볼 생각으로 걸레를 들고 욕실에 들어갔다. 하수관을 타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위층 여자임이 틀림없었다. 남자는 청소 생각을 까맣게 잊고 온 신경을 모아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다. 여자는 한참 울고 있었다.

남자는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안절부절 거실을 배회하다 용기 내어 계단을 올랐다.

저항하는 손가락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나 기척 없이 조용했다. 재촉하지 않았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또 한 번 초인종을 눌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걸쇠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701호인데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아…….지난번에 케이크도 아주 잘 먹고 해서……어……밥이라도 살까하는데……괜

참으세요?”

여자는 조금 당황스러운지 머뭇거렸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걸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밥 대신 술 사주세요.”

“네? 아……그럴까요?”

남자는 여자와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있었다. 앞장섰던 여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온 것이다. 볼수록 여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주를 물마시듯 표정하나 안 변하고 마셔댄다.

“오늘 속상한 일 있었나 봐요.”

“네……. 저처럼 가구 만드는 사람들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완성한 가구들이 자식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보낸 집에서 가구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유가 뭐 줄 아세요? 아들이 맘에 안 든다고 했대요. 아들 선물이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세요? 아저씨한테 민폐까지 끼쳐가면서…….”

‘흠……난 여전히 아저씨군.’

“제가 문이 닳도록 들락거리면서 디자인 수정하고 아들 취향 확인하고 그랬다고요.”

여자는 술기운을 빌려 하소연하고 있었다.

“그럼, 그 애들 제가 입양할까요?”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여자를 계속 만날 거리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정말요? 저 술 마셨다고 나중에 탄소리하기 없기예요. 아……그러지 말고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여자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옳거니…….’

남자는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눌렀다. 남자의 휴대폰에 여자의 전화번호가 떴다.

“내일 전화주세요.”

남자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기쁨 말고는.

각자 멋대로 소득을 얻은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술기운 때문인지 모처럼 깊은 잠을 잔 남자는 집에서 꿈쩍도 않고 여자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다 되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먼저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보세요.”

“저 701호데요. 전화 기다렸는데 안 하셔서 제가 했네요.”

“네……어젠 술기운에 제 생각만 한 거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아니예요, 저도 방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던 참이라 괜찮아요.”

“아……그럼, 제 작업실에 한번 들르실래요?”

남자는 그렇게 해서 여자의 작업실 주소까지 얻었다.

“내일 일 끝내고 1시쯤 가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내일 뵈게요.”

다음날, 남자는 여자의 작업실을 찾아갔고 되돌아왔다는 가구들도 구경했다. 맘에 안 든다던 그 아들의 취향이 의심스러울 만큼 가구는 근사했다. 남자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다면 황송한 마음에 꽤 오랫동안 말 잘 듣는 아들노릇을 했을 것이다.

“아동가구 느낌이 많이 나니까 제가 조금 고쳐볼게요.”

“이대로도 아주 멋진 대요?”

“그래야 덜 미안하고 마음도 편할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가구가 되겠네요.”

남자는 여자의 작업실을 둘러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었다.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묻는 건 실례인 줄은 알지만 아저씨란 호칭이 좀……그래서요. 701호라고 하는 것도 웬지 죄수번호 같은 게 좀……흐흐!”

“죄송해요.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그만……보기보다 좀 많아요. 29살이에요.”

“그래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저보다 어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쪽도 동안이세요.”

“동안인 아저씨겠죠.”

여자와의 대화는 즐거웠다. 외모와는 다르게 털털한 성격을 가진 여자에게 남자는 호감이 갔다. 아니, 첫 만남 이후 쪽 끌리고 있었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가구가 완성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번에 봤던 그 가구들이 맞나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일로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집을 드나들며 새로 들인 가구들도 배치해주고, 전부터 어울리지 않았던 커튼 바꾸는 일도 도와주었고, 겹사겹사 청소도 해주었다. 남자가 집에서 늘 입었던 구질구질한 추리닝이 자취를 감춘 것도 물론이다.

남자와 여자는 조금 편한 사이가 되었다. 가끔 전화 걸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고,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일도 종종 있었다. 서

로 시간이 맞지 않아 더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게 남자의 아쉬움일 뿐이었다.

그는 동갑인 여자에게 말을 놓진 않았다. 여자와 단지 친구사이이긴 싫었던 탓이다. 서로 이야기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도 지금 하는 일이 좋아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했다. 남자에겐 반가운 이야기였다. 그래서 솔로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엔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다. 무뎠던 여자의 성격 때문인지 친구들도 많은 듯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했던가? 친구들이 모였다 싶으면 그 수다가 남자의 귓가에도 들리는 듯싶었고, 먼저 결혼했다는 여동생네가 놀러올 때면 조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예전 같았으면 예민하게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소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큼 적응이 됐다. 아니, 그보다 더 앞서 이제는 여자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진동만으로도 기분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충간소음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는 요즘, 남자는 오히려 위층에서 조용하면 궁금하고 초조했다. 여자의 늦은 귀가가 걱정되고 신경 쓰였다.

‘뭐야, 이거……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누가 들으면 날 이상한 놈 취급할 거야……스토커? 변태? 집착? 에이, 모르겠다.’

남자는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건 관심이었고 사랑이었다. 정작 본인은 그런 감정을 애써 외면했지만.

때론 기분이 안 좋을 때 서로 친구처럼 위로해주기도 했고, 연인처

럼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지만, 딱히 친구도 연인도 아닌 그런 사이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1년을 보냈다.

여자가 퇴근을 했는지 위층에서 현관문이 열리고 이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깬 남자는 일찌감치 출근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혼이 자유로운 분, 지금 뭐하세요? ㅎㅎ’

“띠링…….”

바로 답장이 들어왔다.

‘아저씨 머리 위에서 커피 마시는데요.^^’

남자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자에게 동갑내기 아저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부담 없고 편한 호칭이 없단다. 그보단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딱 좋은 호칭임엔 틀림없었다.

‘저도 한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네, 물 올려놓을게요. 올라오세요.’

식탁에는 향이 좋은 커피와 그들의 첫 만남에서 남자가 선물 받았던 그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안 그래도 퇴근길에 저 케이크가 너무 생각나서 하나 사왔어요. 잘 됐다……저 케이크 한 번 손대면 자제가 안 되는데, 우리 같이 먹어볼까요?”

“배 나온 아저씨는 곤란한데……호.”

커피와 함께 먹는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다. 더구나 그녀가 앞에 앉아 저리도 환하게 웃어주니 남자는 마냥 행복했다.

머그잔 바닥이 드러날 즈음, 여자는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 곧 이사 가요. 지방에 일이 잡혀서…….”

“아……그래요? 언제 가는데요?”

“집을 내놨는데 나가는 대로 옮길 거 같아요.”

남자는 머리가 복잡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 오빠가 아빠 되듯, 자연스럽게 여자와 결혼이란 걸 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가끔 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이별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남자는 붙잡지도 못하면서, 보내기도 싫은 마음을 감추고 여자에게 텅텅히 말했다.

“서울 올라오면 동대문에도 들러요. 신상으로 옷 한 벌 선물할게요.”

소신 있게 회사를 그만뒀을 때의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이 순간 한다는 얘기가 고작 서울 오면 놀러 오라니.

여자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이 그냥 살짝 미소로 답했다.

그 날 이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두 주일을 남자는 허무하게 흘려보냈다.

돌아오는 주말, 남자는 본가에 갈 참이었다. 아버지 환갑을 맞아 가까운 친지들과 형제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주말 동안, 남자는 혼자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고민을 내 하고 있었다.

‘일이 좋다는 그녀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청혼을 하면 받아줄까?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나저나 그녀도 나를 좋아하긴 할까?’

남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계속 망설이기만 하다 마침내 결심한 그는 일요일 점심식사를 대충 끝내고 급히 일어섰다.

숨을 가다듬은 남자는 여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저…… 여기 살던 여자 분은……?”

“아, 오늘 그 아가씨는 이사 가고 우리가 들어왔어요.”

“네? 아……네……실례했습니다.”

남자는 절망했다. 좀 더 빨리 여자를 붙잡지 못하고, 마음을 전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한참을 계단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다.

새로 단장한 깔끔한 거실에는 누가 봐도 직접 만든 개성 있는 가구들이 많았다. 여자는 커피가 담긴 머그컵을 들고선, 거실을 돈보이게 하는 하얀 커튼을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 하늘이 어쩔 저리도 맑을까?”

달콤할 것 같은 따뜻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여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그곳엔 조금 달라진 듯하지만 익숙함이 남아있는 가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보…….”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알았어, 알았어. 휴지 갖다 줄게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래봬도 당신 머리 위에 앉았던 여자잖아!”

소설 | 할머니, 오늘도 행쇼!

그녀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집안행사 준비로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눈치 없고 둔한 편은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 했다. 조금 일찍 서두른 덕에 정오가 조금 지나자 웬만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저녁까지 시간이 많으니 너도 좀 쉬어라. 나는 볼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오마.”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한숨 돌리고 나니 커피 생각이 간절했다. 머그잔 가득 커피를 타서 는 식탁에 앉아 분위기 있게 여유를 부려볼 참이었다. 정적이 흐르자, 아득한 추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일찍이 홀로된 할머니는 시골 토박이로 쪽 살아오다 맛벌이하는 아들네의 큰 고민, 아이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올라

왔다. 자그마치 15년 전에. 생활터전인 고향을 떠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부모는 자식 앞에서 늘 약자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강산은 이미 바뀌고도 남았고, 한 명이던 손자가 두 명이 되는 동안 할머니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어만 갔다.

요즘 도시에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손주 돌보는 어르신들을 유행처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내 자식도 부담스럽다고 안 낳는 세상에, 당신들의 자식 키우랴, 노년에 손주들까지. 인생은 고단하다. 할머니도 고단했다. 아니, 말 할 수없이 외로웠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들이었다.

“할머니, 난 이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녀석들 키우는 재미에 이마 주름이 깊어지는지, 허리가 휘어가는지도 몰랐다.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만큼 자라는 반면, 할머니는 녀석들의 무관심만큼 늙어갔다.

“할머니, 이제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내 베프(베스트 프렌드를 줄여 만든 신조어)들이 내 방에서 할머니 댁새난대.”

“베……퍼…그게 뭐디?”

“아, 몰라. 할머니하곤 말이 안 통해.”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웅알이를 시작해 말을 배운 녀석들이 이제 할머니와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하기 일쑤다.

하루 온종일 아들부부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할머니는 아들부부가 퇴근하면 피곤한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할까봐 조용히 자기 방을 지켰다.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곤 하던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말 할 수 없이 허무하고 쓸쓸했다.

어느 날, 아들내외는 출근하고 손자들은 등교해서 집에 혼자 남은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한 듯 오래돼 낡아 보이는 손가방에 주섬주섬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 정문을 나오니 벌써 걸음이 멎었다. 늘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는 막상 집을 나서니 발길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을 앞만 보고 있다 길을 걷던 청년과 몸이 부딪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전화하다 잠깐 한눈을 팔았네요. 죄송해요.”

“괜안여……아무렇지도 않아. 가던 길 가.”

청년은 마지못해 자리를 뜨면서도 몇 번이고 죄송하다 인사하며 할머니를 돌아봤지만, 정작 할머니는 청년과 부딪치는 바람에 고민이 해결돼 오히려 잘됐단 생각을 했다. 충돌로 인해 몸이 자연스레 왼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님의 집 자식들은 저리도 잘 자라주는데……잘못 키운 내 탓이지 뭐, 휴…….’

결국은 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얼마쯤 걸어 왔을까, 버스정류장이 보였다. 행선지가 정해져 버스를 기다릴 작정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자꾸 의탁하려고 했다.

일단 의자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으려니 버스가 한 대, 두 대, 바쁘게도 지나갔다. 그때, 할머니 앞을 지나쳐가는 버스에 창경궁이라 쓰인 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 설 살면서 창경궁에도 한 번 안 가봤네.’

그렇게 할머니의 목적지가 정해졌다.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 기사에게 창경궁 가는 버스가 맞느냐, 창경궁에 도착하면 얘기 좀 해 달라, 몇 번을 부탁하고 나서야 버스에 올라섰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망설임도 없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내주었다.

‘오늘따라 이쁜 녀석들만 보이네 그러…… 휴…….’

창밖으로 낯선 도시가 할머니를 긴장하게 했다.

‘이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나…….’

불안함에 한껏 움츠러들 때, 자리를 양보한 여학생이 말을 걸었다.

“할머니, 창경궁 가시는 거 맞죠?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고마워, 학생.”

여학생의 목적지도 이곳이었는지, 함께 내리고는 가볍게 인사하고 서둘러 가버렸다.

입구는 금방 눈에 들어왔다. 매표소가 있어 물어보니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했다.

‘나이 들어 서럽기만 하더니, 이렇게 나이 덕을 볼 때도 있구먼.’

입구를 지나 천천히 주위를 살펴가며 발걸음을 떼는 할머니는 마냥 기뻐다. 나 혼자도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구나하는 자신감에 이런 저런 걱정 따위는 잠시 잊으려 애썼다.

평일이라 사람구경 할 만큼 붐비지는 않았지만 봄 햇살이 좋아서 적잖은 입장객들이 있었다. 쉬엄쉬엄 걷다 보니, 앉아 쉬기 딱 좋은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연못가를 따라 그들이 드리워져 있었고, 적당히 바람도 불어주는 자리에 의자까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에 앉았다.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아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준 그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아는 체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괜

히 멧쩍었다. 여학생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느라 주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할머니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다.

‘왜 그동안은 이렇게 나와 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꼬. 그럼 설 생활이 지금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을 틈다…….’

올려다본 하늘은 할머니가 젊은 시절을 보낸 시골의 하늘과 다를 게 없어 보였고, 기분 탓인지 천천히 들이마시는 공기도 선선한 바람과 어우러져 상쾌했다.

지금의 평화로움으로 15년 세월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한 움큼의 외로움은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생각에 잠겨 여학생이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어? 그러, 근디 학생도 혼자 온 거?”

“네.”

“요즘 학생들 이 시간이면 학원이다 뭐다해서 바쁘지 않은가?”

“다른 애들은 바쁘는데 전 학원 안 다녀서요.”

“그럼, 어여 집에 들어가야지.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어.”

“아빠는 저 어렸을 때 하늘나라 가셨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는 일하시느라 늦게 들어오세요.”

“저런……밥은?”

“할머니, 저 고등학생이에요. 밥은 제가 알아서 챙겨 먹어요.”

인사는커녕 차려주는 밥도 이렇다 저렇다 군소리가 많은 손자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철이 든 여학생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가끔 손자가 아닌 손녀였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했던 터라, 여학생이 마냥 예쁘고 대견스러웠다.

“그럼, 친구들하고 놀지 왜 혼자 여길 왔어?”

“전 엄마 힘드시니까 걱정 안 시키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할 일도 알아서 하려고 애Tm는데, 친구들은 학원도 안 다니는 제가 자기네들보다 성적이 좋은 게 싫은가 봐요. 할머니, TV에서 왕따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 왕따인 거 같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이랑 엄마한테 얘기 해봤어?”

“엄만 얘기하면 걱정하실 테고……. 그게 원래……얘기해도 해결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혼자 오셨어요?”

“나? 그라고 보니 나도 집에서, 학생처럼 왕따지 몬진가 보네.”

“왜요? 할머니 식구가 몇 명인데요?”

“아들내외랑 손자 둘. 큰 손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 손자는 중학교 2학년.”

“에이, 동생들이네요. 할머니 보면 애들도 착할 거 같은데. 제가 혼내줄까요?”

지금 피차 누가 누구를 걱정할 입장이 아님에도 얼굴에 그늘 하나 없이 제 할머니를 걱정하듯 하는 여학생이 그저 사랑스러웠다.

“그럼, 오늘부터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 전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있음 정말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떼쓸 때, 왜 난 할머니가 없냐고 투정부렸어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안 계셔서. 히히.”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휴대폰 있으세요? 우리도 베프처럼 전화번호 주고받는 거예요. 어때요?”

“뭐어? 베에……포?”

“하하, 베스트 프렌드라고, 친한 친구를 말하는 건데 줄여서 베프라고 해요. 절친한 친구를 줄여서 절친이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말이에요.”

그제야 할머니 손자가 전에 말했던 베프가 그 말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손가방을 뒤져 유행과 시대를 조금 빗겨간 휴대전화를 꺼내셨다.

“할머니, 제 이름은 정아름이에요. 제가 전화번호 입력해 드릴게요. 어? 할머니 단축번호가 다 비어있네요?”

“단추……뭐? 그게 뭐디?”

“전화번호에 번호를 매겨서 간편하게 전화 걸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 제 번호를 1번으로 넣을게요. 우리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거 같아요. 그냥 베프라고 저장해 넣을게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거실 땐 1번을 길게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려요. 이렇게.”

정말 1번을 길게 누르니 전화가 걸렸다. 그렇게 여학생의 전화에도 할머니 번호가 남겨졌다. 이렇게 간편한 것을 할머니에게 알려준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고작 늙은 할머니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이리 좋아해준 사람도 아름이가 처음이었다.

“뭐가 그리 좋누. 늙은 할매랑 친구하는 게 뭐 그리 좋다구.”

“그냥 친구 아니고 베프라니까요. 고민도 얘기하고 비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할머니도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해결은 못해드려도 잘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원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잖아요.”

“이렇게 푹부러지는 딸을 둔 아름이 엄마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

것네.”

아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내내 웃는 얼굴로 할머니와 눈을 맞춰 주었다.

“할머니,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집? 아직 시간도 이른데……혹시 시간되심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저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관에 혼자 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건 익숙하지만…….”

“무신 영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얘기?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이거 재미있대요. 제가 친구된 기념으로 보여드릴게요.”

서울 올라와서 영화관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할머니에게, 오늘 처음 만난 여학생이 친구해주는 것도 모자라 영화까지 보여준다니, 정말 이지 할머니가 제대로 날을 잡은 모양이었다.

“학생이 무신 돈이 있다구…….”

“걱정하지 마세요. 돈 대신 쓸 수 있는 상품권도 있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영화관에 가는 동안, 아름이는 누가 봐도 손녀라고 할 만큼 할머니에게 친절하고 다정했다. 영화관에선 이걸 꼭 먹어줘야 한 다며 팝콘과 음료를 건네주었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할머니를 보살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러, 나 암시롱 안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영화나 봐.”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오니 꽤 어둑해져있었다. 영화를 보느라 꺼 두었던 휴대폰을 켜니 손지들과 아들내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가 이 시간에 집을 비우는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 놀랄 일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이제 집에 돌아갈 일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여서 우리 집까지 어찌 가야 하는겨?”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늦었는데 괜히 번거롭게.”

“괜찮아요. 할머니 댁에서 저희 집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번거롭지 않아요.”

“미안해서…….”

할머니는 아람이에게 미안했지만, 혼자 집을 찾아가는 건 너무 막막
했기 때문에 그냥 못이기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길 건너에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할머
니는 이제야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아름아, 여기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너두 더 늦기 전에 집에 가야
재.”

“네, 할머니. 오늘 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화 드릴게
요.”

그리고는 뒤에 오는 버스에 올라탔다. 연신 손을 흔들면서. 아람이
를 태운 버스가 할머니 시야에서 벗어난 건 한참이지만, 쉽게 발걸음
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애들이 어데 갔다 왔냐고 물으든 뭐라고 하재?’

할머니는 걱정을 가득 안고 집을 향했다. 집에 다다랐을 때, 밖에서
서성이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다. 큰손자가 할머니를 알아보곤 달려왔
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그 뒤를 따른 아들내외와 작은손자 녀석도 걱정스런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전화도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돼서 많이 걱정했어요. 괜찮으신 거죠?”

며느리의 관심도 나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자기를 살펴봐주는 아들녀석의 시선도.

“괘안여, 그냥 좀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족의 호위를 받으며 집에 온 할머니는 요즘 말로 쿨하게 한마디 던졌다.

“그럼, 들어가들 쉬어. 나도 쉴 텐께.”

할머니는 어이없어 대꾸도 못하고 서 있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방에 들어왔다. 정신없고 긴장하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할머니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할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저도 잘 도착했어요. 오늘 아주 즐거웠어요. 처음 만나 귀찮게 구는 저, 버릇없다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문자를 보고 나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더욱 생생해졌고 자꾸 미소가 지어졌다. 문자 보내기가 서툰 할머니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러—

할머니는 오늘을 보내기가 아쉬워서인지, 내일이 오는 게 기대돼서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소풍 앞둔 학생처럼 기분 좋은 설렘을 느껴 본 게 얼마만인지 생각도 나지 않지만, 잠자리에 누워 오늘일은 되뇌고 또 되뇌었다.

휴대폰 문자 알림음 소리에 잠을 깬 할머니는 시계를 보았다. 7시였

다. 평소 같으면 더 일찍 일어나 조반준비를 했을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문자가 올 일은 없었기에, 궁금해서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았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행쇼! 행쇼는 저희들 말로 행복하십쇼의 준말이에요.^^—

‘행쇼? 왜 이리들 말로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웬지 젊어지는 것 같은 생각에 기분은 좋았다.

‘그러, 베프도 오늘 행쇼! 허허허’

할머니의 그 특별한 날 이후, 가족들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툭툭거리던 손자들의 말투는 조심스러워졌고, 아들내외도 할머니와 마주칠 때면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고 애썼다. 특별한 건 또 하나 있었다. 베프의 문자 메시지. 아름이는 알람이 울리듯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인사로 ‘할머니, 오늘도 행쇼!’로 마무리되는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는 오늘도 외출을 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조금씩 거리를 넓혀가며 서울 지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도, 즐길 거리도 많아졌다. 가끔은 아름이가 보내주는 문자를 안내삼아 움직였다.

—할머니 버스정류장에서 106번 타시고 종로5가에서 내리시면 광장시장이라고 있어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대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저처럼 예쁜 학생에게 물어보세요.ㅋㅋ 화이팅!—

아름이는 번거롭게 버스를 갈아타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야 하는 지하철 말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볼거리 위주로 가르쳐주었다. 할머니는 자기에 대한 배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둘만의 비밀스런 만남도 계속되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아름아, 인저 공부해야 허니까 이렇게 전화 안 해도 돼. 그라고 아침에 문자 보내는 것도 그만허구.”

“문자는 몇 분 안 걸리는 거니까 계속 보낼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러. 우리 똑똑한 아름이 알아서 잘 할꺼. 아름이가 대학생 되면 할매가 자판기 커피 말고 근사한 데서 겁나게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좋아하는 영화도 많이 보여줄게.”

“네, 할머니 최고!”

그녀는 바닥을 보이는 머그잔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근사한 데서 파는 맛있는 커피 이제 제가 사드릴 수 있는데…….’

가슴 한편이 찢릿하게 아파왔다.

저녁시간이 가까워오자 작은댁 식구들이며, 시누이들, 조카들까지 정말 많은 친지들이 집에 왔다. 참석할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상차림이 시작됐다.

여자들은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을 제기에 담았고, 남자들은 거실에 놓인 상에 부지런히 옮겨 놓았다. 많은 음식들이 제사상에 푸짐히 놓여졌다. 지방마다,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댁은 제사 때 남자들만 절을 한다고 하니 여자들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오늘 제사상을 받으시는 시할머니는 든든하겠단 생각이 들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상에 아들, 손자, 사위까지 나란히 서 있으니 뒤

에서 보는 사람도 이렇게 듚직한데 위에서 내려다보실 할머니는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녀는 자기도 형제가 많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순간, 제사상에 놓인 시할머니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제사상의 주인은 바로 할머니였다. 아름이의 베프. 그리고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 할머니가 ‘아름아’하고 부를 것만 같았다.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 제사는 끝났고, 남편은 아내를 몇 번이고 불러도 대답이 없자, 넋을 잃고 서 있는 그녀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말했다.

“뭘 그렇게 정신 놓고 봐?”

아내의 시선이 할머니 사진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 챈 남편이 말했다.

“내가 우리 할머니 닮아 한인물하지!”

‘아! 두 살 어린 남편이 내 머릿속에 버릇없는 놈으로 기억되어 있는, 할머니의 바로 그 손자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제사상을 정리하다 남편에게 물었다.

“할머니 사진, 내가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될까?”

“어? 그걸 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남편이 당황스럽게 쳐다보았다.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새댁이 맞는 첫 집안행사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작은댁 식구들과 시

누이들도 수고했던 인사를 건네고 돌아갔고 집안정리도 끝이 났다.

“아가, 오늘 수고 많았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어. 내일아침은 천천히 먹어도 되니 일찍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네, 어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

방에 들어와서도 놀란 가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할머니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은 자꾸 재촉했다. 나중에 해준다는 얘기가 뭐냐고.

그제야 그녀는 할머니와의 인연을 얘기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뻔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할머니 베프가 당신이었어?”

“어? 그걸 어떻게……?”

“할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쳤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병원에 계시다 영영 깨어나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어……근데 그게 당신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난 고3이었고. 하지만, 대학에 입학해서도 한동안 할머니랑 문자를 주고받은걸?”

“사실은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낸 건 나였어.”

“뭐……라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걸 봤어. 처음엔 베프라고 찍히길래 정말로 친구분한테서 문자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서울에 많지 않은 친구분 중에 베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려면 연락을 드려야겠단 생각이 들었어. 전화번호를 찾다 문자를 확인하게 됐는데, 지난 문자들을 쭉 읽다 보니 베프가 수험생이라는 걸 알게 됐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 할

머니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인양 문자를 보냈던 거야.”

“갑자기 귀가 어두워져 통화가 힘들다고 하셨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응.”

“그런데, 어쩌다 병관길에……?”

“급히 어딜 가시던 길이었나 봐. 보온병에 죽이 담겨 있었어.”

그녀는 갑자기 몸이 굳었다. 혹시 하는 생각이 자꾸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냈던 아침 문자를 심한 감기몸살로 건너 뛴 그날, 할머니가 궁금해서 전화했을 때 아프다고 했던 그날이 이즈음이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두 방울, 불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소나기처럼 마구 쏟아져 내렸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그 죽의 주인이 자기였다고 말할 자신도 없었다.

‘할머니……할머니……죄송해요.’

그녀는 다독이는 남편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을 울고 또 울었다.

“너무 슬퍼하지 마. 어쩌면 할머니가 우릴 만나게 해주셨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으셨나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고. 식구들을 긴장하게 했던 할머니의 가출 이후, 할머니는 많이 변하셨고 즐거워 보이셨어. 그제 문자를 주고받은 베프 덕이란 걸 알았을 때 많이 궁금했고 고마웠어. 만약 할머니 휴대폰에 베프가 아닌 당신 이름이 입력되어 있었다라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바로 알아차렸을까? 아님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글쎄, 오늘 보니 지금 이대로가

더 운명적이었던 거 같은데?”

남편은 보여줄게 있다며 옷장 서랍 한쪽에 넣어둔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밀었다.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녀가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했던 할머니의 휴대폰이었다. 또 목이 메었다.

“지금은 개통도 끊기고 꺼놓은 지 오래되어 충전을 해야겠지만, 당신이 할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들 중 일부는 남아있을 거야. 그때 문자가 뜰해지기에 나도 충전을 소홀히 했고, 차츰 꺼진 채로 두는 일이 잦다가 결국은 해지하게 됐어.”

“그랬구나. 나도 대학입학 후 통화는 못하고 문자만 보내다 보니,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서서히 할머니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아. 언젠가 내가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걸 문득 깨달았을 때,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걸번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리고……이 휴대폰에 관한 건 나밖에 몰라.”

‘아, 알고 있었구나. 그 죽의 주인을…….’

모르는 사이 끊겼던 그녀의 과거가 오늘 이어졌다.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충전을 마친 할머니의 휴대폰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서서히 날이 밝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휴대폰으로.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전송되기를 바라면서.

—할머니, 아릅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랑 친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사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오늘도 행쇼!

내 나이 서른,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고 있자니 아쉬움이 크기만 했던 2004년 겨울이었다. 곧 맞이할 학생들의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 망년회 등으로 조금은 들떠 있었을 12월이었지만, 내게는 누구보다 춥고 힘든 시간이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늘 독감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해도 유난히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집의 그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

겨울이면 누구나 몇 번쯤은 감기로 병원을 들락거리고 약의 힘을 빌려 몸을 추스르지만, 11월 말쯤부터 시작된 감기는 날을 더해가는 동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의 평생 과제인 다이어트를 위해 폭발하는 식욕을 누르는 일은 있었어도 밥이 밥인지 돌인지 입에서 거슬리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끼니를 채우는 일조차 너무 귀찮고 힘들었다. 일주일 동안

먹은 식사량을 다 합쳐도 평소 먹던 양으로 이삼 일본 정도. 다이어트가 절로 되고 있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해 안부가 궁금했던 친구와의 만나자던 약속도, 맘머느리 노릇이 필요한 집안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다니던 병원도 바꾸었다. 내 평소의 믿음에다 주위 분들의 추천까지 더해 병원진료를 예약했다.

진료 당일, 나는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심, 희, 진님!”

진료실에 들어가 감기가 시작된 시기와 약을 복용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진찰을 시작했다. 의사는 일단 X-ray를 찍고 일주일쯤 약을 복용한 뒤 한 번 더 X-ray를 찍어 비교를 해보자고 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식사와 약을 열심히 챙겨 먹었다.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껴져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X-ray 사진 두 장을 번갈아 살피던 의사가 물었다.

“옷 같은 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의료지식이 없는 내가 보기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사진 두 장을 더 찬찬히 본 의사가 다시 물었다.

“심장모양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네요. 많이 커져 있기도 하구……. 가슴 앞쪽으로 청진을 한번 해볼게요.”

‘심장?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다는 등, 여러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비유하곤 하는 그 심장?’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내 심장은 긴장과 불안함으로 더 심하게 속도

를 높였고, 의사에게 그런 나의 심장소리를 들키고 말았다. 청진기가 닿는 순간의 차가움이 가시기도 전에 진단이 내려졌다.

“아, 심장판막증이네요. 진단서를 써줄 테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판막증이요? 그게 뭔가요?”

“애기는 있어요? 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박이면 뛰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숨이 많이 찼을 텐데…….”

내 질문의 답을 듣기도 전에 의사의 질문이 계속 날아왔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을 다 듣지 못한 채 그냥 멍한 상태로 진단서를 받아 들고는 집에 돌아왔다.

남편에게 상황을 쭉 설명하고 이리 저리 병원을 알아보았다. 다행히 아는 분의 도움으로 K병원에 빠른 진료예약을 할 수 있었다.

진료 당일, 나는 심장내과에서 검사실로, 또 다른 검사실로, 원무과로, 다시 심장내과로 정신없이 종종걸음을 쳤고, 남편은 그냥 조용히 동행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찌나 초조하던지…….

오랜 기다림 끝에 진료실에서 의사와 마주했다.

“승모판협착증이네요. 심장엔 4개의 판막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승모판에 류머티스열이라고, 어렸을 때 앓은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으로 협착이 일어나 좁아진 겁니다. 피가 순환할 때 500원 동전만큼 넓어야 하는 길이 와이셔츠 단추만큼 작아져 있어서 아마 숨이 많이 찼을 거예요. 뛰기도 힘들고 등산도 어려웠을 거예요. 되도록 빨리 입원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애기 있어요?”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 병은 애기를 나올 수 없나요?”

궁금해서 물었다. 아이를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은 처지가 너무 다른 문제이니까.

“아주 낳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고 약이라도 먹게 되면 더 힘들죠.”

그 때 우리에겐 4살 된 딸아이가 있었고, 나는 입버릇처럼 둘째는 안 낳을 거라고 얘기했었다. 의사는 아이를 만약 하나 더 낳을 거면 판막을 넓혀주는 풍선 시술을 받고 빨리 낳으라고 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제가 만약 모른 채로 지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아니면 중풍이 오든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질병을 짊어지게 된 환자에게 대수롭지 않은 듯 너무나 성의 없는 대답이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지만, 이 병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보니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돌아올 대답이 두려워 못한 건지도 모르겠다.

남편이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나는 대기의자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드라마에서 간혹 주인공이 주변을 개의치 않고 엉엉 우는 장면을 보곤 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었다. 눈물이 시야를 완전히 가릴 만큼 실 새 없이 흘러 내렸다.

어린이집에 보내 놓은 딸아이가 너무나 그립고 불쌍했다. 30살 밖에 안 된 내 인생도 불쌍했고, 입원 예약을 잡느라 분주한 남편의 뒷모습은 또 어찌나 안쓰러운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나를, 남편

은 당황해하면서도 위로하려고 애썼다.

집에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듯 나의 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괜히 마음만 심란해질 뿐일 테니 적당히 하라고 남편은 충고했지만, 내 입장에서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알면 병이라더니,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남편의 말처럼 걱정도 더해져 갔다. 그렇게 자신의 근심에 추를 더해가고 있을 때, 한 인터넷 카페에서 무거워진 나의 걱정해 답이 되는 글을 읽게 되었다.

‘수술 잘 받고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벽에 통칠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표현이 너무 과격하고 천박한 느낌도 들지만, 그 당시 나에게 이만큼 큰 위안이 되는 글도 없었다.

2005년 새해가 밝았고, 나는 병원에 있었다. 딸과 며칠간의 이별, 입원, 시술, 퇴원……. 병원에 있는 시계는 딴 세상의 물건 같았다.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가던지……. 하지만, 그 느리다는 국방부 시계도 가는데, 나의 시간인들 멈출 리가 있나. 시간에 쫓겨 아등바등 여유 없이 살아온 나에겐 의미가 큰 휴식의 시간이기도 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돈만 주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란 노래 가사에 공감하지만, 호되게 아프고 나니 ‘세상을 조금 바보스럽게 살면 어때? 느리게 가는 자전거가 빨리 가는 자동차가 미처 보지 못한 풍경을 선물하듯이, 조금 모자라게 살면서 채우는 재미로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뭐든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건강 역시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해도 되돌려지는 게 아니었다.

그처럼 좀 더 열심히 건강을 돌보기 시작한 그 해,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를 선물 받았다. 내 걱정과 염려를 싹 날려줄 만큼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다.

그 후 시술을 한 번 더 받았고, 깜박이는 초록불 신호등을 보고 100m 달리기하는 심정으로 건널목을 건너는 것은 여전하지만, 나의 심장은 최선을 다해 ‘쿵닥 쿵닥’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긍정에 주파수를 맞추고 매일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금만 소홀하다 싶으면 관심 가져달라고 ‘쿵쾅 쿵쾅’ 신호를 보내는 녀석을 잘 달래가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봄별의 새싹처럼 쑥쑥 자라나오면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커 주어서 고마워.’하고 자칫 넘치려는 마음을 다스린다. 그렇게 나는 몸과 더불어 정신이 건강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내공이 한참 부족한 엄마이기에, 오늘도 난 목소리를 높인다.

“애들아, 숙제랑 학습지 다 했니? 컴퓨터는 이제 그만하자!”

오늘도 나는 ‘파이팅!’을 외친다. 39년 열심히 키워 온 나의 나무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잎새’가 너무나 많으니까.

수필 | 매일 하늘나라로 출장 가는 아빠

작은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친해진 엄마들이 있다. 아빠들도 가끔 함께 할 때가 있는데, 일곱 가족이다 보니 그 인원만도 어마어마하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다는 말처럼 우린 자주, 아니,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니 주말만 지내고 서로 만나도 어찌나 반가운지……. 그렇게 늘 어울려 다니면서 일상을 즐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반이 달라지긴 했지만 방과 후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 우린 여전히 함께 움직인다.

하교를 한 아이들을 태권도에 보내고, 우리 중 누군가의 집에 모여 차를 마시고 부족한 수다를 떨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남아 있는 작은녀석들, 즉, 둘째인 여자아이들은 으레 소꿉장난을 하곤 한다. 보통은 방에 자리를 잡고 놀이를 시작하는데, 그 날은 맘이 급했는지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자마자 각자 역할 분담을 하

기 시작했다.

“언닌 엄마, 난 언니, 넌 동생, 그리고 음……아빠는 없으니까 죽었다고 하자.”

헉! 여자아이들이 보통 남자역할을 잘 안하려 하는 건 알지만, 낮시간에 아빠가 집에 있을 일도 만무하고, 그럼 지금까지 쪽 그래왔던 건가? 오늘도, 내일도, 소꿉장난을 할 때면 늘 아빠는 멀리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몇 해 전 인터넷에서 검색순위를 높였던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가 떠올랐다. 세상 아빠들 기운 빠지게 만든 시, 술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했을 그 시가…….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나 역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듯 크게 웃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참 마음이 무거웠다.

‘난 엄마니까 웃음이 나왔던 건 아닐까? 내가 아빠였다면 과연 웃을 수 있었을까?’

세상 살아가는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 시를 읽었을 때 너무 허무하고 씁쓸해서 헛웃음은 나왔겠지. 그냥 별 의미 없이 순수하

고 어린 마음에 쓴 시라고 위로는 해보겠지만, 오래도록 머리에 남아 자꾸 마음을 어지럽힐 것 같다.

그래도 그 시 속의 아빠는 현실에 존재라도 했지만 우리 예쁜 공주들은 멀리 하늘나라로 보냈으니, 그냥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라고 치부하기엔 아빠들이 너무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은, 남자들이 여자가 하는 일 없이 논다고 생각하는 것에 흥분하고 속상해 한다. 그런데 아이들 눈엔 아빠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괜히 미안하기도 했다.

아이들 눈에야 엄마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기네들 챙겨주고 놀아주고 하니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여겨지겠지만,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술냄새 풍기며 들어오거나, 조금 일찍 들어와도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TV 보고, 주말에도 함께 놀아주기 보단 피곤하다며 그냥 쉬고 싶어 하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으니, 냉장고나 강아지보다 더 존재감이 없다 느끼지 않았을까?

아빠들이 느꼈을 헛헛함을 공감하면서, 갑자기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대하는 나의 언행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길 바라면 내가 아이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면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게 하려면 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건 쉽게 간과했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내가 기억하는 나의 어린 시절 아빠 역시 전형적인 가장의 모습이었다. 지금처럼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때와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어렸을 그 당시, 조금은 버거웠을 책임감을 가지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

을 것이다. 자식들과 살갑게 놀아주거나 사랑한단 표현에 서툴기만 했던 일반적인 가장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부모님을 이토록 존경하는 건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존중이 바탕에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어릴 적 기억하는 것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가족관계에 적극적이고 세심한 아빠들도 많다.

우리 무리 중 한 아빠의 별명이 ‘마누라 보이, 패밀리 보이’인 것을 봐도 그렇다. 아내나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남편이자 아빠라면 더 바랄 게 없어 보이지만 나름 고충도 있긴 한가보다. 휴대폰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은……후훗!

또 한 녀석은 어찌나 아빠를 안쓰러워하고 걱정하는지 모른다. 늦게까지 일하는 힘든 아빠를 생각하며, 엄마가 예쁜 구두에 관심을 보일 라치면 신발장을 활짝 열고선 이렇게 얘기한단다.

“엄마, 이거 다 엄마 신발이거든?”

엄마의 쇼핑 유혹을 단숨에 잠재우는 아들, 듣직하면서도 조금은 야속하다는, 철 너무 많이 든 8살짜리 아들도 있다.

이렇듯 초등학교생의 시가 보여준 아빠의 모습이 세상 모든 아빠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냥 재미로 웃어넘길 만큼 가벼운 이야기도 아닌듯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자리와 위신이 위태롭게 흔들리듯이,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 역시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어야겠다.

엄마인 나 역시 반성할 것이 많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란 말처럼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소꿉놀이 속의 엄마는 늘 아이들을 가르치려 들고 잔소리 하는 모습으로 반영되는 거 보면 그냥 ‘허허’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나의 이런 마음가짐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잘라야지.

오늘은 저녁 밥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랑 반찬 두어 가지 더 올려놓고, 아이들 듣는 자리에서 코에 힘 줌 주고 한마디 해야겠다.

“여보,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어요.”

더불어 내가 저 멀리 하늘나라로 다녀오는 일은 피할 수 있겠지?

당신이 건네는 희고 큰 손에
수줍게 움츠러든 손을 얹었습니다.
손에 베인 묵향이 당신에게 건네지길 바랐지만,
원치 않는 부담감만 실어줬나 봅니다.
버거워하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신이 미소를 걷어낸 얼굴로 바라볼 때면
내 심장은 딱딱해집니다.
기다림에 지친 당신이 자유롭게 살라
새장을 열어주지만
나는 날갯짓하는 법을 잊은지 오래입니다.
벗어나려 애쓰는 만큼 상처만 더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에
무더진 내 심장이
귀를 기울입니다.
아직 새장을 떠날 때가 아닌가봅니다.

시 | 구 속

물처럼 구름처럼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씨를 품었어도
꽃을 피우진 말라합니다.
공작새가 뿜내는 꼬리는
따가운 시선이 되어 날 응시합니다.
나로인해 돌아가는 세상도 아니건만
그대는 나를 고독의 섬에 가두려합니다.
세상을 품에 안아보자 욕심낸 적도 없는데
그대는 자꾸 내 팔을 붙들어 매려합니다.
세상의 고운 음성 답아
그대 귓가에 속삭이고 싶는데
그냥 조용히 눈감고 귀 닫아
병어리처럼 살라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저 ‘아~’ 하는 소통인 것을.



이미숙 편

수필 화분 하나
어머니의 노래
시계와 생명

화분에 푸른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집에는 판에 박은 듯 항상 똑같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어 무미건조하다. 꽃이 심어진 화분이라도 있으면, 삭막한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여 활력이 된다. 작은 식물일망정 초록빛을 발해주면 마음도 밝아지고 평온해진다.

그런데 나는 불행하게도 사들인 꽃마다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비실비실 거리다 죽게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런 실력자라 불린다.

“참 대단한 실력이다. 그렇게 죽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물만 주면 잘 자라는 것을 왜 죽게 만들지?”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한 목소리 내는 말이다.

식물은 며칠에 한 번, 혹은 십오 일에 한 번 등, 몇 가지 방법으로 물을 주면 된다고 한다.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식물이, 내

손에 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세상을 하직한다.

“언니, 물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무를 길러봐. 그렇지 않으면 쉽게 기를 수 있는 다육식물도 있어.”

그래도 집에서 식물을 길러보겠다고 기를 쓰는 나를 보며 동생이 하는 말이다.

“그래? 정말 그러면 잘 자랄까?”

동생이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그러면 꼭 성공해서 집에서 푸른빛을 만날 수 있겠지, 은근슬쩍 가슴도 설레었다.

그 후, 동생이 말해준 대로 작은 나무들을 사서 화분에 심어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면서 알뜰살뜰 보살폈다.

“나무야! 잘 자라줘. 건강하게 꼭 살아나 줘.”

잘 자라달라고 나무에게 사정조로 당부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사정이지, 몇 달이 지나면 나무는 어김없이 잎이 하나, 둘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시들시들 말라버린다. 작은 가지를 조금 꺾어보면 바짝 마른 나무가 되어있다. 그래도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각별히 보살피며 다음 해까지 끌고 가지만, 결국 그 나무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엄마, 이제 그만 키워. 제발 사지마.”

집으로 오는 것마다 그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니, 식물 사는 것을 자제하라고 아이들이 요구한다.

“언니가 사랑을 너무 많이 주나보다.”

나의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동생이 위로하는 말이다.

그런 일이 반복 되다보니, 죽어가는 나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

다.

‘그래! 살아있는 것을 죽게 만드는 것은 죄지. 그만큼 자라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것들도 생명 있는 것인데 죄 받지, 죄받아.’

그리하여 다시는 식물을 집에 들여놓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화분에 푸른 식물을 키워 집안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나의 작은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 집에서는 푸른빛의 식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8년 전, 20년 넘게 산 집을 팔고 이사를 했다. 복잡한 집정리가 끝나지도 않고, 작은 데로 이사 와서 그런지 베란다에 짐이 한가득이다. 정리도 귀찮고 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 길음시장에 들르게 되었다.

손수레에 식물을 가득 싣고 파는 아저씨가 있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나무가 발길을 잡았다.

플라스틱 화분에 들어있는 나무는 튼실하고 단단해 보였다. 은근히 그 나무에 마음이 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보고 또 쳐다보고 했다.

“팔천 원이요.”

구경하는 내가 살까 말까 망설인다고 생각한 아저씨는 대뜸 값을 불렀다. 내 머릿속에 팔천 원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 순간, 또 다른 내가 유혹했다.

‘저거 키워봐!’

그래도 얼른 결정을 못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것저것 값을 물었다.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다가오고, 손님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 징조다.

“아저씨! 그거 주세요.”

마음에 든 나무를 누가 사 갈 것 같아, 얼른 값을 지불했다. 그것을

비닐봉투에 잘 넣어 묶어달라고 했다.

이 나무를 잘 키워볼 작정이었다. 동네 꽃가게에서 예쁜 화분을 나무의 세 배나 되는 고가에 샀고, 흙도 같이 구입했다. 플라스틱 화분에 있는 나무를 새로 사온 멋진 화분으로 분갈이도 했다. 물을 흠뻑 주고 베란다에서 가장 별이 잘 들고 바람도 맞을 수 있는 곳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다행히 나무는 잘 자랐다. 밑동도 튼튼해지고, 옆가지도 몇 개 번어 있다. 잎도 많아져 이제는 튼실한 나무가 되었다.

그 정도면 성공이라 생각을 하고, 몇 개의 나무를 더 사왔다. 어쨌든 혼자 자라는 것보다 옆에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더 잘 자랄 것이라 생각했다.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꽃들도 반응해 움직인다 하지 않는가. 그러니 친구들까지 데려다주면 더 잘 자라겠지.

몇 개 안되는 관상수를 키우는 재미는 쏠쏠하다. 물을 주며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나와 더불어 오래도록 살자고 부탁도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나무에는 언제쯤 물을 줘야 한다는 나만의 요령도 생겼다.

작년 여름, 공들여 키워 놓은 그 나무에게 위기가 왔다. 외출했다 들어와 보니, 베란다가 깨끗하고 환했다.

‘어! 이게 무슨 일이래.’

7년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나무가 위쪽 부분이 싹둑 잘려나가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누가 그랬어?”

그 나무는 밑동에서 가지가 다섯 개 자라났다. 위로 자라면서 가지에 또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가지는 길고 가늘기 때문에 가

지와 가지를 엮어 놓았다. 꼬아지며 자라게 변형을 주며 길러보자는
심사(心思)였다.

“언니, 이거 예쁘고 깨끗하지? 나 이 나무 정정해 줘. 너무 지저분
하더라고.”

나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멀거니 서 있었다.

놀러 온 동생이 베란다 청소를 해 주고 간다고, 쌓인 책과 복잡한 곳
을 정리하면서 화분까지도 손을 본 모양이다. 나는 뉘 빠진 사람마냥
그 나무를 안타깝게 한참을 바라보았다.

“미경아! 이거 내가 아끼는 거라, 계속 자라게 두고 싶은 건데. 나랑
이사를 같이 와 이 집에서 산 횡수가 같은 아이라고…….”

“그래도 예쁘지? 예쁘지?”

동생은 밝게 웃으며, 정리를 잘하지 않았냐고 말하다, 정색을 하는
나를 보니까 멧쩍은지,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 동생에게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더운 여름날, 언니 돕는다고 애쓴 그 정성을 생각한단
면 고맙지.

이미 잘려져 나간 가지를 어찌할 수 없는 일.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쉬움이 남아, 신문에 돌돌
말려있는 잘려진 가지를 꺼내, 그 화분에 꽂아 주었다. 화분이 풍성해
졌다.

나뭇가지가 잘려나간 후, 나는 날마다 베란다를 방문했다. 잘려나간
나무의 끝부분을 손끝으로 쓰다듬어준다. 준비 없는 이별을 한 탓에
아쉬움이 더욱더 짙다.

그 해, 여름의 끝자락에 잘린 상태로 화분에 꽂힌 나무의 잎들이 힘
없이 축 쳐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이 이상했다. 그 잎이 떨어지는 모

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잎이 떨어지기 전에 화분에서 가지를 꺼내어 이별을 했다. 그것은 혹시나 땅에 묻힌 나무에 뿌리가 돌아나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기대에 심었기 때문이다.

올여름도 나무는 잘 자라고 있다. 그것을 보면 지난여름 두어 달 동생과 지낸 시간이 떠 올린다. 막무가내로 잘라낸 가지도 옆으로 또 다른 가지가 조금 자라, 작은 잎이 햇빛을 받아 싱그럽다.

우리들의 상처도 나무처럼 바위에서 새싹이 돌아나듯 힘차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고대한다.

자마이카는 더위가 물씬거리는 베란다에서 우리 집 창문을 막아주는 가리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가끔 내 하소연과 투덜거림을 부담 없이 들어주는 좋은 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수필 | 어머니의 노래

마룻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방문턱을 베개 삼아 누운 어머니의 입에서 구성진 노래가 흘러나온다. 흥얼흥얼 하던 리듬이 어느새 타령이 되고, 어머니의 삶이 노래가 되어 나온다. 애잔하고 슬픈 음악이다.

나는 어머니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외할머니 때문이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만나면 함박웃음을 짓고 신나게 딸자랑을 했다.

“우리 수복인 노래도 잘 허고, 얼굴도 예쁘난 사람들이 좋아했저어.”

그런 말을 하고 나서는 큰소리로 웃었다.

어머니가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고운 목소리가 싫지는 않았다. 날이 어둑해진 저녁 무렵,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안은 킁킁한데 낮은 음악소리가 들린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부르는 어머니의 노랫소리.

‘엄마는 왜 맨날 슬픈 노래만 하지?’

어둠이 깔린 안에서 혼자만의 음악을 만들었던 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은 꼭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말을 걸면 차분한 음성으로 짧은 말로 응하고서 계속 부른다. 그러다 긴 한숨을 토해 내고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 낸다. 슬픈 가락을 즐겨 불렀던 어머니의 노래는 한의 섞인 울음인 것 같다.

직장을 다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이모가 사는 동네에 땅을 사서 과수를 심으려 했다. 농사꾼이 된다고 허허벌판에 돌덩이가 범벅인 땅을 옥토로 만들 동안,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데 겪어야 하는 고초, 고달픈 삶과 방황들을 그렇게 표출했던 것이리라. 자식이 일 굶이나 되니 얼마나 고단했겠는가. 내가 엄마가 되고 며느리가 되어보니,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요즘 딸만 가진 사람을 위로하는 말인지,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배 탄다.’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비행기를 두세 번 탈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딸이 다섯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 어머니를 비행기 태워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없다.

사람들은 ‘딸은 엄마팔자와 같더라.’라는 말도 한다. 그것은 아마 여자란 같은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니 말이다.

큰며느리인 나는 명절이 되면 꼼짝할 수가 없다. 친척들이 집으로와 차례를 지내고 난 후, 답소도 나누고 놀이판도 벌어지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바쁘다. 어찌다 연휴가 되면, 몇몇 가족은 며칠 지내다 가기도 한다. 친정에 간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거리가 멀기도 하고, 큰며느리라는 명분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라 여겼다. 설날이면 하는 것이 고작 전화세배뿐이다.

나는 한 집안의 며느리이며 딸이고 엄마이다. 일인 삼역을 고스란히 해내며 살아야 하는 인생살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이란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았다. 딸로써 해야 할 일들이 흔적도 없이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잊고 살았다 해야 옳은 말이다. 나는 며느리이고 엄마가 되어 있을 뿐이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야.’

옛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괜스레 서글퍼진다.

딸이 되는 제자리 찾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어느 날, 결혼 후 19년 만에 세배를 하기 위한 친정나들이를 했다.

1월 1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는 작은 상 세 개에 떡국을 차리게 한다. 그 상을 각각 다른 곳에 놓고 절을 한다. 친척들이 모이기 전, 떡국차례를 지내고, 식구들이 모이면 장만한 음식을 상에 올려놓고 또 한 번의 의식을 치른다. 그리고 식구들이 조반도 끝났다.

“저,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가방을 들고 나타난 나를 보며 서로서로 얼굴만 쳐다본다.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했는지, 화난 듯 놀란 표정으로 탄성을 한다.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모두가 놀란 토끼 눈이 되어 바라 볼 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기철아, 큰외숙모 공항까지 태워다 드려라.”

무겁게 흐르는 공기를 깨는 소리, 큰 시누이가 아들에게 공항까지 태워다 주라고 한다. 식구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길은 몹시 불편했다. 하지만 집밖으로 나오니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들뜬 가슴에 만감이 교차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세배를 직접하고 싶었다. 이대로 있다가 평생

못 할 것 같은 생각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빔을 짊어지며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제 흥가분한 기분이지만 슬픈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 쌓여있다. 내 안에 잠재하던 슬픈 언어들이 리듬을 타고 흘렀다.

예전에는 기쁠 때만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다. 마음이 즐거우면 자기도 모르는 새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러다보면 아는 노래가 총동원되어 가사가 모두 한국어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울적할 때도 저절로 노래가 나온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 같다. 알 수 없는 음악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겁게 흐른다. 그 슬픔을 깊이 들이마셔 뿜어내듯, 옛날 어머니처럼 불러댄다. 구성진 가락을 붙여 이었다 끊었다하며 내키는 대로 부르면 단독 음악회가 된다.

‘달그락 달그락’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는다. 그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면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어머니가 읊던 노랫가락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곡을 만들어 마음을 다스리던 어머니가 아픔이 되어 가슴 한 자락에 쌓인다.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던 딸이 묻는다.

“엄마! 그게 무슨 노래야. 정말 웃긴다.”

딸은 깔깔거리며 웃는다. 멋대로 지어 부른다고 놀려대기까지 한다.

나는 대답 대신 노래에 취해서 그대로 부르기만 한다.

작은 방, 그 안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북한산이 기다랗게 늘어서 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 세상이 맑아지면, 산등성이가 굽이굽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산 정상에 올라 청량한 공기와 우거진 숲의 향기를 만끽하고 있을 것을 상상한다.

창문을 열고 책상 앞에 앉으면, 고가도로가 멀리 나와 마주하고 있다. 그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높은 곳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든다. 차들이 뽕뽕 줄기차게 달린다. 여러 종류의 차가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 힘찬 기운에 덩달아 신이 난다.

이 방에는 작은 벽시계가 걸려있다. 그 옆을 따라 화선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다. 그 너울거리는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생각들을 낳게 된다.

어느 날,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추어 서 있었다.

‘집안에 시계가 멈추어 있으면 좋지 않아.’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들어온 생각이다. 어디에서 온 말인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말이 약간의 공포를 느끼게 했다. 어쩌면 그 말은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다른 방에 있는 시계들도 가끔 그러긴 했지만, 그날은 좋지 않다는 말에 집중되었다.

나는 시계를 외면했다. 당장 어떻게 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도록 마주 칠 때마다 싸움한 사람처럼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러다 보니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시계의 초라해진 모습이 내 마음을 혼돈다.

편의점으로 가서 건전지 두 개를 샀다. 시계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다. 어쩌면 그것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작은 건전지 하나로 생명을 부여받을 시계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다. 다시는 이런 괴로움을 주지 말아야지 후회했다.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도 시계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을까? 아니, 고통이란 것을 느낄 수 없이 살다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살아가는 것이 시계처럼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기만 하다면 어떨까? 그것 또한 죽음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시계는 생명을 연장했으니 행복할까?

가끔 동창들을 만난다. 그 만남은 늘 기다려진다. 나이 들어 오래된 벗을 만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들과 만들어진 대화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며, 천진난만하던 시절이 고스란히 떠오르게 한다. 행복했던 추억을 낚아 한보파리 가져갈 수 있는 낚시터이다. 거기에서 나는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

친구들을 만나러 다른 날보다 일찍 나갔다. 약속 장소에서 가까운

공원으로 갔다. 벤치는 여기저기 한가롭고 드문드문 앉아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인다. 주위를 살피며 한쪽 구석에 앉았다. 나무그늘이 시원했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가 앉아 있는 오른쪽 모퉁이에 가게가 보인다. 그 안쪽 벽에는 온통 시계가 걸려있다. 누군가의 작품인 듯 특이한 모양들이 깔끔하고 산뜻하다. 어떤 것 하나 같은 모양이 없고, 군더더기가 없어 호감이 간다. 우리 집 거실에 하나쯤 걸었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시계 밑에 추가 쉬지 않고 좌우로 반복운동을 해댄다. 그 모습이 시원하고 기운차다. 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앙증맞다.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본다.

시계추의 움직임은 살아있다. 옆에서 자기 모양만 뿜내는 것과는 달리 몹시 힘차게 보인다. 밝은 표정으로 무언의 대화에 끼어들 준비가 있는 사람처럼 생동감이 있다. 나를 보라고 손짓하듯 자신을 알리고 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난 다시 태어난다면 커다란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나무가 되고 싶다고, 왜?”

“커다란 나무가 되어, 가만히 앉아 오가는 사람들 이야기나 들으며 지내게.”

나무가 되어 한 곳에 정착하여 많은 사람들과 벗을 삼고, 그늘을 만들어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신을 보며 흡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한다. 산새들이 날아와 쉼터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어갈 때 푸근히 감싸 안을 수 있는 나무이고 싶단다. 맑은 산소를 뿜어내어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전해 주면 좋겠다고 한다. 어떤 사람에겐 좋은 벗이 되어 그의 말을 들어 주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고 싶단다.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무가 된다면 좋을 수도 있겠다. 친구가 나무가 되고 싶은 깊은 뜻까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말하는 의미를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나무처럼 가만히 한자리에 평생을 머물러 사는 것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수많은 세월을 우두커니 서서 비와 바람의 방문을 받아야 한다. 눈과 같이 차가운 것들이 몸을 스치는 추운 겨울을 견디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며 세상을 살고 싶지는 않다.

죽음 앞에 꿈쩍 할 수 없었던 그 작은 방 벽시계가 생각났다. 아름다움도 신선함도 없는 오래된, 착실히 제 기능에만 충실했던 시계가 힘차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일 때가 더 많은 텅 빈 공간을 지키고 있는 넌, 그 긴 시간의 터널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나? 그것이 오늘은 궁금해진다.



이지안 편

소설 탄생각 지구

임승수 재활의학과

남편의 아침밥

시 익숙한 사랑

청수장

내 머릿속에는 벌레가 살고 있었다. 꽤 오랫동안 숨죽여 있었지만,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된 이후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벌레가 어떻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일까, 답은 간단했다. 엄마는 내가 아기였을 때 마당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있기를 즐겼는데, 내가 잠이 들면 눕혀 둔 채로 집안일을 하곤 했다. 게다가 내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로 눕혀 놓았다. 그때 귀가 바닥에 닿았고, 우연찮게 벌레 한 마리가 마치 동굴 속을 탐험하듯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여섯 살 때부터 나는 엄마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아버지의 수입과 여자, 그리고 술……. 그런 것들이 엄마의 고민이었다. 엄마는 내가 옆에 있어도 엄마의 고민과 슬픔에 대해 개의치 않고 말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드라마를 보던 엄마가 내게 말했다.

“어머, 넌 뭘 안다고 울고 있니?”

엄마도 울고 있었다. 드라마가 슬프니까 울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무튼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우리집 안방 한쪽 벽에 여닫이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옆집과 통하는 문이었다. 처음에는 벽지에 가려져서 아무도 거기에 문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와 엄마가 허물없는 사이가 되고부터 엄마는 벽지에 칼을 대고 도려내어 문이 열리도록 했다.

활짝 열린 문은 여름날 깊게 파인 민소매 옷을 입은 옆집 아줌마를 떠오르게 했다. 마땅히 감춰져야 할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의 그런 생각에도 아랑곳없이 엄마와 옆집 아줌마는 수시로 벽을 드나들며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마당에서 놀다가도 어느 순간이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엿듣곤 했다. 엄마는 내가 옆에 앉아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어머, 넌 대체 왜 여기 앉아있니?”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재밌고, 슬프고, 안타깝고...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초등학생이 될 무렵부터 엄마는 내가 듣지 않도록 조심했다.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힌 후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재빠르게 대화를 나누곤 했다. 엄마의 고민을 듣지 못했는데도 자주 머리가 아팠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엄마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예민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무렵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주 들키곤 했다. 아빠도 엄마

도 내 생각을 신기하게 잘 꿰뚫었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릿속에 벌레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벌레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생각을 어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머릿속 벌레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되도록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대신 주어진 시간을 없애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화책에 있는 그림을 보며 따라 그리기 시작했는데, 막상 펜을 놓으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다 우연찮게 방바닥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장판에는 다이몬드형의 무늬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장판 무늬를 기준으로 삼아 비율을 맞춰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린 그림과 동화책 속의 그림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틈만 나면 방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엄마에게 들리기 전까지, 나는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방바닥에 딱 달라붙은 채 딱정벌레가 되어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지웠다.

햇빛이 뜨거운 날, 나는 마당에 돛자리를 펴고 누웠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며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고, 동화책이나 만화에서 보았던 '아름다움' 같은 것을 그려보기도 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데 어느 정도 재주가 있었다.

어느 순간 몸이 더워지며 나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몰래 찾아와 손을 내미는 친구처럼 간헐지게 구역질을 했지만, 어느덧 뱃속을 틀어쥐며 노란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오후가 훨씬 지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어쩌면 내가 죽는 날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엄마는 조금쯤 후회하지 않을까, 나를

혼자 두고 돈을 벌려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상황은 원치 않았다. 엄마가 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도 싫었지만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아빠는 여전히 동굴 같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누군가 내게 활명수처럼 보이는 물약과 알약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내가 알약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도 잊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준 약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아직 죽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아 있을 것 같았으니까.

깨어났을 때 나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았다. 쏟아지는 햇볕은 내게 붙은 시간이었고, 구토로 괴로워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같았다. 엄마가 일을 나간 뒤로는, 햇볕 아래에서 구토를 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만이 내게 남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사실은 내게 약을 내민 사람이 '화서'라는 것이었다.

화서는 우리 동네에 사는 바보언니였다. 그런데 다들 '화서, 라고 불렀다. 나보다 어린 꼬마 녀석들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마치 물건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다. 그 동안 나는 '화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돌맹이를 던지고 도망을 칠 때 한쪽 손을 꼬면서 절뚝거리며 따라가는 모습, 나처럼 먼 곳을 응시하던 화서의 모습은 모두 관심 밖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화서'를 '언니'라고 불렀다. 부르고 나니 따뜻한 말이었다. 내게도 언니가 있었다면 진작 알았을 테지만, 나는 처음으로 말에도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말을 걸었을 때 화서언니는 무척이나 또렷하게 대답했다. 갑자기

기 『라임오렌지 나무』가 떠올랐다. 혹시 내 마음속에 화서언니의 말을 대신 해 주는 새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고, 화서언니는 나 보다 더 오래 이 동네에 살아왔다. 이제 나는 열네 살이 되었으니까, 십삼 년 동안 언니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셈이었다. 아무도 언니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시작했다.

화서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머릿속에 있던 벌레들이 신기하게도 사라졌다. 두통이 없어지자 나는 전보다 훨씬 명랑해졌다. 친구들에게 우스갯소리도 거침없이 했고 이따금 함께 어울려 뛰놀기도 했다. 내가 어린이다운 모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선생님도 전에 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는 뚝자리를 펴고 화서언니와 나란히 눕곤 했다. 그 동안 혼자 생각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는 언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들려주고 싶어졌다. 내가 언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주로 가족에 대한 것이 많았지만 점차 책에서 읽은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면, 언니는 항상 달콤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때로는 수줍게 송곳니를 내밀며 웃었고 어떤 대목에서는 울먹이듯이 소리를 내며 웃곤 했다. 언니가 큰 소리를 내며 웃을 때, 울고 있는 게 아닐까 유심히 살펴봐야 했다. 나는 화서언니가 가진 약간의 장애 때문에 웃음소리가 마치 우는 듯이 어색하다고 여겨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세밀하게 들어보면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여겨졌다. 웃음과 울음은 닮은 데가 많았던 것이다.

화서언니가 떠듬떠듬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예쁘고, 향기가 나고, 그립고 하는 것들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꽃인 줄 알았다. 무슨 꽃이 언니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

나는 언니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기꺼이 언니에게 주고 싶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 언니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었다. 양귀비꽃, 해바라기, 장미꽃, 안개꽃...이런저런 꽃을 꺾기도 하고, 꽃집에서 한 송이씩 사 들이기도 했지만 모두 언니의 관심 밖이었다.

그럼 대체 뭘까? 분명 그것은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에는 이상하게도 아픈 사람이 많았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가 없는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독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이유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재개발지이기 때문이었다.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집들은 비가 세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비닐을 올려 곤궁을 면해 보려고 하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나, 우리집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도 이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다.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동네 전체가 자주 어두워지곤 했다. 처음에는 동네가 어둡게 느껴지는 게 순전히 내 마음 탓인 줄 알았다. 정말 내 마음이 어두울 땐 세상도 어두운 것같이 착각이 일곤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곳곳에 있던 공장 때문이었다. 공장에서 회색 연

기가 뭉뚱뭉뚱 솟아나는데도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천식을 호소했다. 가래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췌소리가 났다.

내가 언니를 위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진 부당한 것 같다고.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리고 한동안 나는 언니를 뒤로 한 채 학교생활에 열중했다.

하지만 언니를 아주 잊은 건 아니었다. 늘 마음이 무거웠다. 웬지 언니가 오랫동안 웅크리고 앉아 나를 기다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시험을 며칠 앞두고, 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곤 했던 우리의 아지트로 향했다. 해원사 뒷산이었다. 절 뒷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뛰놀던 동산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 절터와 동산을 구분하기 위해 철조망을 해 놓은 곳이었다. 나는 아빠가 쓰는 공구를 몰래 가져와 철조망을 끊은 뒤에 우리가 드나들 수 있도록 살짝 구부려 놓았었다. 물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말이다.

그 철조망 안은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 절은 그 곳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는 그 풀숲에 앉아 한참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때마다 아카시아 향과 라일락 향이 코를 간질이고 머리 위로 버찌씨가 떨어지는가 하면 이름 모를 꽃향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아카시아꽃을 한 움큼 따서 손에 쥐었다. 가는 동안 화서언니가 사는 곳을 지나쳤기 때문에 언니가 그 곳에 있을 거라 확신했다. 나는 언니를 놀라게 해 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반길지 궁금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야릇한 표정으로 껴안고 있다가, 나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 언니와 내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그때 바로 뒤돌아서 뛰어 갔더라면 좋았을 걸.... 나는 붉게 상기된 두 사람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가 나뭇잎사이로 별거숭이가 된 몸뚱이를 보고 말았다.

나는 뒷걸음을 치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어더더더...."

당황한 듯이 남자가 나를 향해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그가 내게 다가오려고 일어섰을 때, 나는 오줌까지 지리며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울고 있었다.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쳐 보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다.

그 날 밤 엄마는 윗집 아저씨가 풀어둔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려서 피범벅을 한 채로 돌아왔다. 아빠는 윗집에서 개털을 한 움큼 얻어와 불에 태웠다. 역겨운 냄새가 났다. 된장과 개털이 으깨져서 엄마의 상처에 덧발라졌다. 나는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다. 자꾸만 뒷산에 엉켜 있던 두 사람이 생각났다. 엄마는 밤새 앓았다. 나는 엄마의 앓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처럼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일 수 없을 뿐이었다. 마음에도 붙이는 약이 있다면, 대체 그런 걸 파는 약국이 있을까? 동화책에는 다친 마음을 낫게 하는 마법의 설탕 조각도 있는데....

나는 언니가 말한 '향기로운 것'이 꽃, 혹은 그 비슷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다. 남자였다. 그것도 옆집 삼촌이었다.

그는 옆집에 살고 있던 병어리 삼촌이었다. 옆집 아줌마가 이사 간 뒤로, 엄마는 벽으로 난 커다란 문에 자물쇠까지 사다 걸고는 달력종이를 덕지덕지 붙여놓았었다. 엄마는 그 삼촌을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아, 병어리 삼촌이 정말 내 삼촌은 아니었고, 결혼도 못한 동생이 ‘아저씨’라고 불리는 게 싫었던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 어차피 나는 그 삼촌이 내가 뭐라고 부르든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화서언니를 껴안은 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 우리 집 마당에서 나와 함께 누워있던 화서언니는 대체 누구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마치 실연을 당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나는 며칠이나 넋을 놓아버렸다.

한동안 나는 해원사 뒷길을 피해 다녔다.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구토를 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기 위해 숫자에만 매달렸다. 그 때문인지 수학 성적이 좋아졌다.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일도 생겼다.

아빠는 일을 시작했고 엄마는 집에서 인형 눈알을 붙였다. 깨알 같은 인형 눈알이 방바닥에 널려 있으면 은근한 슬픔 같은 것이 밀려왔다. 아빠가 돈을 버니까 세 식구 먹고 살 일은 걱정 없는데 심심풀이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관심도 없이 눈이 빠지도록 인형 눈알만 붙였다.

벌거숭이가 된 언니의 모습을 본 뒤로 나는 적잖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말을 못해서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일도 잦았다. 구토도 잦고, 가슴이 답답하고, 수시로 열이 나는 터라, 나는 죽을병에라도 걸린 줄 알았다.

내가 아기였을 때, 한 달 가까이 대학병원 신세를 진 뒤 겨우 살아났다고 했다. 어쩌면 다시 몸쓸 병이 도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죽음을 떠올리자, 가장 먼저 화서언니가 생각났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들과 화해하고 싶어졌다. 가난한 나를 따돌리고 무시했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과도, 돈 때문에 나를 챙기지 못했던 엄마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화서언니를 꼭 한번은 다시 만나고 싶었다. 사실 내가 그 순간 본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란 없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테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만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바람결에 우쭐대는 얇은 나뭇가지처럼 흔들렸다. 속이 메스꺼워 자꾸만 헛구역질이 났다. 화서언니가 사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커다란 용달차를 마주쳤다.

동네에는 이사를 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드물었다. 더러 떠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모두 지우고 싶은지 그 동안 썼던 가구며 가전을 모두 놓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이곳에서 쓸 만한 살림살이 갖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어른들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누가 이사했다, 하면 은근슬쩍 빈 집에 가서 남은 물건들을 집어가는 게 어른들의 취미였다.

커다란 용달차에 짐을 싣고 온 사람이 궁금했는지 여기저기 낮익은 얼굴들이 모여들었다.

“재개발이 얼마 안 남아서 될 때까지 지내려고 이 집을 샀대. 그래도 제법 돈이 있는 사람인 거 같은데…….”

어른들이 말하는 집은 바로 화서언니 집이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병어리 총각하고 화서가 이상하게 소문이 나더니 동네 창피해서 이
사한 게지!”

말끝에서 어른들은 혀를 찼다.

“화서 개가 벌써 서른이 훌쩍 넘었잖아. 병어리 총각은 이제 막 스물
다섯이래.”

“어머나, 그걸 어쩐대!”

나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어른들은 누가 듣거나 말거나 하
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산다는 것이 신기했다. 나는 누가 듣기라도 할까
봐, 철조망 뒤에 앉아 화서언니와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는데 말이다.
그리고 보니 이상한 소문의 근원은 언제나 어른들에게서 비롯되었다.

만날 줄 알았던 언니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서 아빠와 엄마가 걱정스런 눈빛으
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마 위에는 젖은 수건이 놓여 있었다. 열이 많이
났던 모양이었다. 창문 밖은 어두웠다.

“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니?”

엄마가 미간을 좁히며 걱정스레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 밑
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언제까지나 이런 자상한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방 한켠에서 담배를 꺼내 든 아빠가 던지듯이 말했다.

“내일 아침 병원에 데리고 가 봐. 별 거 아니니까 괜히 호들갑떨지
말고!”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엄마는 말을 흘리며 아빠를

뒤따라갔다.

다시 혼자였다. 어쩌면 화서언니도 이런 마음이었는지 몰랐다. 내가 뜬금없이 공부를 한답시고 언니를 혼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몰랐다.

병원에서는 내 병이 신경성 위염이라고 했다. 내 증상은 모두 ‘소화 불량’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따금 구토도 하고 열도 나고 속이 답답한 것들이 그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다니, 죽음병에라도 걸린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던 나는 적당히 안도하고 조금 실망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그린 그림들로 책상서랍과 책꽂이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죽음을 앞둔 예술가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던 지난 시간이 새삼 떠올랐다. 책상을 정리한 뒤에 집밖으로 나왔다. 노을이 질 무렵 낮은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오렌지빛이 스며드는 모습은 액자 속 풍경화 같았다. 내가 이곳에 살지 않았다면, 마치 한 편의 그림을 바라보듯 떨어져 있었다면 이곳은 분명 아름다운 곳일 게 분명했다. 나는 늘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내 그림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이곳이었다.

“에잇, 방귀나 먹어라!”

윗집 진돗개 앞에서 멈춰 섰다. 엉덩이를 녀석의 머리 앞에 들이밀고 손은 뒤로 한 채 방귀를 끼었다. 주먹 안에 내가 핀 방귀를 움켜쥐고 녀석의 코에 뿌려 주었다. 냄새를 맡았는지 녀석은 화들짝 머리를 털었다. 그 바람에 녀석이 묶여 있는 개집이 흔들리기까지 했다. 나는 보란 듯이 엉덩이도 실룩거리 주었다. 어디선가 낮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화서언니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그 자리에 화서언니가 서 있다는 것도 그랬지만 오래 전 내가 보았던 것이 생각나서였다. 화서언니가 입고 있던 연두색 블라우스는 바로 그 날, 옆집 삼촌과 함께 있을 때 입고 있던 옷이었다. 연두색은 그날의 무성했던 나뭇잎을 떠오르게 했다. 그런데 나는 왜 언니가 벌거벗은 줄 알았을까? 어찌면 옷이 나뭇잎과 하나로 여겨져 언니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걸 주우려고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빠가 보는 스포츠 신문 탓인 것 같았다. 거기에 연재된 소설들은 하나같이 주인공들이 옷을 벗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언니는 두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아끌었다. 그 리곤 자신의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제 만난 것처럼 정답고 친근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미안함 때문이었다. 내가 공부 한답시고 멀리 해놓고선 이상한 상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내가 만든 오해로 내가 아팠던 것까지 생각하자 피식, 웃음이 났다. 화서언니도 푸웃, 하고 웃었다. 언니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언니가 우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 내어 크게 웃었다. 정말 웃음과 울음은 가까운 것 같았다. 이렇게 반가울 때도, 정다울 때도 눈물이 나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버스타고 해원사에서 내려달라고 했지.”

“혼자서?”

“여기도 못 찾으면 진짜 바보게!”

그 말이 꼭 동네 사람들이 언니를 두고 바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깜짝 놀랐다. 어쩌면 진짜 바보는 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지도……. 나처럼 눈앞에 있는데도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지 몰랐다.

“데려다 줄게, 가자.”

언니는 나를 따라 천천히 일어났다.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듯 왼쪽 팔과 손이 심하게 뒤틀렸다.

“누가……올 거야.”

“누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시치미를 뚝 떴다.

“옆집 삼촌…….”

언니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옆집 삼촌은 작년부터 해원사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스님들 심부름을 하며 산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다리 끝에서 자전거를 타고 언니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다. 옆집에 살던 삼촌이었다. 나는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어쩌면 금방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저 멀리에서 옆집 삼촌도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가 윗집 개에게 허벅지를 물린 이후로 아빠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아무래도 윗집 아저씨와 엄마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밤중에, 묶여 있던 개에게 물렸다는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개가 엄마의 허벅지를 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마는 윗집에 세 들어 사는 민숙이 엄마에게 불일이 있었고, 대문을 열자마자 개가 뛰어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이 아빠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마치 귀에 커다란 철문을 만들고 엄마를 향해서는 퐁퐁 닫아 놓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의 부질없는 의심이 계속되자 엄마는 점점 말라가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한여름에도 옷을 목까지 잠그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의 예리한 눈길이 엄마에게 쏘았다. 어쩌다 아빠의 술주정을 듣기라도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당치도 않다고 웃음을 흘려왔는데, 엄마의 별난 행동이 결국 의심을 부르게 된 것이었다.

근거 없는 소문은 공장 굴뚝에서 쏟아지는 시커먼 연기처럼 엄마의 주변을 불길하게 에워쌌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의 남편과 처가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했는데, 윗집 아저씨는 부부싸움 끝에 성기가 잘리는 일이 생겨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으며, 아빠의 학대를 받던 우리 엄마는 반미치광이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야기의 전말을 들려준 사람이 우리 반 친구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우리 엄마가 이야기 속의 그 여자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

그런데 그 날 저녁, 느닷없이 윗집 아저씨가 아빠를 찾아왔다. 아저씨는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저씨의 바지춤으로 눈길이 가는 바람에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하고는 정신없이 마당으로 빠져나왔다.

아버지와 아저씨가 먹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상상했던 나는 두 사람이 악수까지 하면서 다정한 눈길을 주고받는 것을 보며 의아해졌다. 아무튼 어른들이란 감을 잡기 힘든 존재였다.

다음날 아빠는 안방에 벽돌을 쌓아서 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 골목 끝에 사는 미장이 아저씨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벽돌을 쌓아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아빠 혼자 해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마루에서 잤다.

아빠는 내게 빛이 많아져서 월세라도 받을 수 있게 방을 하나 더 만든 거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 방에 화서언니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옆집 아줌마가 그 방에 옆집 삼촌이 살면 어떠냐고 물어왔다. 화서언니와 옆집 삼촌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신혼집을 찾고 있다고 했다. 내가 언니를 잘 따르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줄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라고. 세를 놓으려면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거나 골목마다 전단지를 붙여야 했는데, 그런 수고를 생략할 수 있어서 아빠는 좋다고 했다.

처음에는 언니가 가까이 산다는 생각으로 좋았는데, 방이 매우 비좁아진데다 이따금 “어더더더…….”울음소리 같은 옆집 삼촌 목소리가 커다랗게 들리는 바람에 무척 불편했다. 웬지 화서언니와 옆집 삼촌이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반상회가 열리던 날, 통장집에는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치 커다란 볼거리라도 있는 듯, 통장집 앞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싼 사람들을 보며 지나치던 사람들도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자, 여기서 나 바지 벗소! 그러면 일이 해결되는 거지요!”

“어메메! 저걸 어째…….”

여자들은 눈을 가리고 남자들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 김동팔이가 병원 신세를 진 건 맞는데, 그건 당뇨병 때문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여! 저기 계신 이 형하고는 이 일로 의논하다가 의형제를 맺었어. 아니 우리가 그 망할 소문대로라면 어찌 의형제가 되고 사이 좋게 지낼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윗집 아저씨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까지 치고 있었다.

“아이구, 어서 바지 올려요. 남우세스럽구만!”

윗집 아줌마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이 허리에 걸린 바지를 잡아 올려주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낮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구경하는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던 아빠였다.

“우리 마누라가 햇빛 알레르기인가 그거……그거 때문에 여름에도 옷을 치렁치렁 입고 다니는데……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땐 정말 확!”

말을 시작할 때 주저하던 것과는 달리, 확! 이라는 말을 내뱉을 때 아빠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확…김형네 진돗개를 풀어버릴 거니까 알아서들 해요!”

윗집 아저씨와 아버지는 사이좋게 손을 맞잡고 통장집 문을 나섰다. 그때였다.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통장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화서가 곧 애를 낳을 거 같애! 누가 좀 업고 가줘야겠는데…….”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후다닥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뛰어나갔다. 그리고는 뒤를 이어 마치 큰 구경거리라도 난 듯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가기 시작했다.

화서언니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동안 어른들은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다. 어른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내 마음 속은 불안과 흥분으로 뒤섞였다.

“누가 가서 산파를 불러와야겠는데!”

골목 끝에 사는 미장이 최씨 아저씨였다. 굵은 팔뚝에는 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무슨 소리! 누가 업고 병원으로 가야지!”

윗집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한 손으로 코를 잡은 뒤에 흥, 하고 마당에 코를 풀었다.

“화서가 병원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호떡 가게를 하는 할머니였다. 두 해 전에 술 취한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홀로 어린 손자들을 키우고 있었다.

“민숙이네도 다리 밑에 사는 산파할매가 애를 받았잖아!”

“그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엄마가 내 어깨를 잡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화서언니 방으로 뛰어들 태세였고, 엄마는 그걸 원치 않았다.

“열 달이 다 되도록 병원 문턱도 안 밟아본 애가 이제사 무슨 병원을….”

화서언니가 가진 장애를 깨닫게 되는 유일한 순간은 사소한 것에 고집을 부릴 때였다. 어떤 타당한 논리도, 옆집 삼촌마저도 꺾을 수가 없는 고집.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언니는 단 한 번도 병원 출입을 하지 않았다.

“안되겠다, 저러다 고마 나뻐겠다! 일일구, 일일구!”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에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 주세요!”

전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일사분란하게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움직였지만, 언니가 일어서자 핏덩이가 한 움큼 바닥으로 쏟아졌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구조대원 중 유일했던 여자대원이 방문을 닫았다. 함성 같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곧이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기와 언니가 무탈하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외쳤다.

화서언니는 예쁜 딸을 낳았다.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 식구는 부엉이 눈이 되었다. 아기는 내 팔뚝보다 조금 더 통통했다. 사람이 강아지처럼 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언니의 가슴께에서 잠든 아기를 두고, 언니도 눈을 감았다가 뜨곤 했다. 나는 언니의 귓속에 입을 대고, 아기는 절대로 마당에서 재우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다.

아기가 기운차게 울어대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집을 팔았다. ‘관리 처분’이 나면 우리가 살았던 집과 우리의 흔적들이 말끔하게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의 땅은 고스란히 내어주고 아파트에는 살지 못하는 꼴이 될 것 같았다.

여름이 지날 무렵, 아빠는 내가 갖고 싶어 했던 전자사전을 사왔다. 내가 기뻐하자, 아빠도 덩달아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빈 밥공기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부러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아빠의 등을 따라갔다. 아빠는 부엌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주비가 나왔으니까, 이사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화서언니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를 데리고 포천으로 떠난다고 했다. 서울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곳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살았던 날들에 대해 추억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괴롭고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나니 아름답게 여겨졌다. 내가 보았던 일들, 어른들이 서로 다투고 아파하던 일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어찌면 벌레는 내 머릿속에서만 이 아니라 모두의 머릿속에 한두 마리씩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모두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편할 대로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있는지도…….

전학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나도 어딘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학 시간에 지구가 행성들 사이에서 서로의 중력에 의해 엉키고 부딪치며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 사이는 서로의 판생각이 부딪치면서 관계를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판생각? 제발 수업시간만큼은 집중 좀 해라!”

과학 선생님은 내 머리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다행히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내가 헛된 상상으로 화서언니를 오해하고 스스로 아파했던 것처럼 어른들도 그랬다. 어찌면 벌레는 내 머릿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드나들며 수시로 판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랐다.

수많은 오해를 낳은 채로 어른들은 언제나 극적으로 화해하려고 했다. 아, 지구가 판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아낸 사실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도 또 유쾌한 일이었다.

그의 얼굴은 옅무튀김 같았다. 누르스름한 낮에 군데군데 진갈색 반점이 도드라져 보였다. 몇 년 사이 세월을 한참이나 앞서 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런 그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화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오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낮으로 그녀는 진료실 문을 열고 말았었다. 망설였던 마음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안도로 바뀌었다. 생똥맞게도 화장을 하였다면, 의사와 제대로 눈을 마주치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

“김단희 씨,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는 회전의자를 그녀가 선 쪽으로 돌렸다. 어느 지방 특유의 억양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기가 그 억양에서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대학생활을 하며 보냈던 이십대가 녹아 있었다. 감정이라고는 배제된 듯한 목소리. 그녀가 주춤하자, 그는 앉으라고 권했다.

“어깨가 조금 아파서요. 요 며칠 작업을 하느라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잠을 잘못 잔 거 같기도 하고…….”

그는 회전의자를 노트북 앞으로 돌리고, 그녀가 하는 말을 몇 마디 받아 적는 듯 했다.

“평상시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이지, 잠을 잘못 자서 어느 날 아팠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외투를 좀 벗어 보시겠어요?”

그는 그녀가 아프다고 하는 쪽의 어깨를 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그녀는 단말마를 내질렀다.

“아, 꽤 단단하게 잡히네요.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겠어요.”

그는 맞은편 영상촬영실로 그녀를 인도했다. 그는 진료도 보고, 경우에 따라 엑스레이도 직접 찍었다.

“목에 두른 그 두꺼운 스카프 좀 풀어 봐요.”

두꺼운, 그가 선택한 형용사가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스카프는 거즈면으로, 얇은 소재였다. 목에 여러 번 감았기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꺼운’이라는 말이 그녀의 목에 걸렸다. 그녀가 만났던 다른 의사들은 옷을 벗으라고 할 때, 수식어를 쓰지 않았다.

그는 스카프를 벗은 그녀의 얇은 어깨를 잡고, 촬영기 앞에 그것을 밀착시켰다. 그의 손끝도 그녀의 어깨처럼 무미건조했다. 사진을 찍은 뒤, 그녀는 다시 진료실에 앉았다.

“언니분이랑 함께 오셨네요. 동생분이 더 심하세요. 일단 물리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고주파 치료를 해봅시다.”

그가 언니 얘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흔들림이 없는 눈빛이었다. 하

지만 그녀의 마음은 세찬 파도 속에 있는 듯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이제 제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큼, 슬픔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언니라는 걸 알았죠’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다. 그녀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허리 디스크에 대해 꾸념했고, 임신했을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등, 물이 가득 찬 아이 욕조를 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등, 평소 허리운동이 가능한 자세에 대해 묻고, 앞으로 하게 될 치료에 대해 상세하게 물은 뒤에야 진료실을 나왔었다.

“금요일부터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그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월요일에 오시면 그때 물리치료를 좀 더 해보죠.”

그는 ‘혹시’ 라고 했다. 월요일이면 그녀가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물리치료실 앞 대기 의자에는 그녀 언니가 앉아 스마트폰게임 중이었다.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데, 의사 혼자 엑스레이까지 찍나 봐. 소문만큼 잘하는지는 물리치료를 받아봐야 알겠네. 의사는 제법 친절하고 걸 모습도 쎈틀한 것 같애. 그치?”

언니가 하는 말이 맞은편 진료실까지 들리는 것 같아, 그녀는 어느 정도 신경이 쓰였다. 이쯤에서 언니가 말을 그만해 주었으면 싶어,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얼굴 같단 말이야. 어디서 봤더라…….”

그녀는 한순간, 마치 의자에 용수철이라도 있는 것처럼 엉덩이를 들썩였다가 다시 고쳐 앉았다.

“연수가 내일 기숙사 들어간다면서. 이불이라도 사서 보내줄까?”

그녀는 초초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조카 애기를 꺼냈다.

“이불은 무슨……요즘 기숙사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뭐 사줄 생각하지 마.”

“최 서방은 오늘도 늦는데? 그 사람은 혼자 지구를 지키나, 왜 그렇게 바쁘다니. 돈 잘 벌면 뭐해, 이따금 별도 따고 해야지. 그런 재미가 없으니, 원.”

마침 구세주처럼 등장한 물리치료사가 치료실 안으로 둘을 안내했다. 어느새 그녀 얼굴은 별장게 달아올라 있었다.

칸막이가 있는 치료실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언니는 오늘아침에 갑자기 그녀를 찾아와, 물리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졸랐다. 주차장으로 가려는 그녀에게, 성북동에 들러 차도 한잔 마시고 산책도 하자고 해, 그녀는 버스를 타고 병원 앞까지 왔다. 언니가 말한 병원이 ‘임승수 재활의학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가 병원 문 앞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지 않을 변명거리를 찾아 이런저런 일을 둘러댔지만, 결국 그녀는 언니 손에 이끌려 진료실까지 오게 된 셈이었다.

아, 그런데 이걸 뭘까.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날……그를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 매일 매일이 똑같아. 견딜 수 없이 지루해.”

넥타이를 바로 잡고 있던 남편은, 거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영화라도 보는 게 어때?”

“피카츄? 아님 미라클 포스?”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다. 화를 참고 있을 때 종종 드러나는 버릇이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능청스럽게 아내의 짜증을 비켜가려고 했다.

“누가 뭐래도 라퐁젤이 최고지! 정수가 왜 서연이를 좋아하는지 알아? 그 긴 머리카락 때문이라구.”

남편은 그녀를 향해 눈을 찡긐, 하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여자의 긴 생머리는 남자들이 가지는 영원한 로망이지.”

늘 그렇듯이 대화는 아들의 이야기로 옮겨졌다.

“우리 사이에 아들을 빼면 뭐가 남을까?”

사고처럼, 그녀의 입에서는 갑작스레 그런 말이 나왔다. 남편은 못 들은 척하며, 미끄러지듯이 그녀의 곁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한 손을 들어 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몇 년 사이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그녀 안으로 스며든 슬픔이 깊어질수록 머리카락도, 뼈마디도 가늘어지는 것 같았다.

가끔 그녀는 서로가 그은 선을 무시하고 말을 뺏어낼 때가 있었다. 남편은 그때마다 유연하게 그녀의 말을 피해갔다.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곤 했

다. 아직 할 말이 남은 것 같았다. 서둘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지만, 남편의 차는 이미 빛의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상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 앞으로 걸어가, 그녀는 한 손을 들어 이마 위에 차양을 만들었다. 남편이 가 있는 밝은 지상과 자신이 서 있는 지하는 마치 두 사람이 처한 환경처럼 여겨졌다.

‘당신 행복해?’

‘아니…….’

‘그럼, 우리 이혼하자.’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중얼거렸다. 이혼할 만큼 뚜렷하게 남편이 싫거나 그에게 결함이 있다고 여겨본 적은 없었다. 지루한 여름날의 장마처럼 언제부터인가 결혼생활이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놓고 간 상품권이 놓여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였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의정부로 향해 차를 몰았다.

최근에 이복언니가 임신했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보다 다섯 살이 위니까, 사십대 중반의 나이. 큰 아이는 열여섯 살, 작은 아이는 열네 살이었다.

“생긴 걸 어떻게 해, 낳아야지!”

설렘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딸만 둘이었던 언니는 아들 하나 얻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그것이 밖으로만 도는 형부의 마음을 잡아줄 거라 믿는 눈치였다. 어쩌다 생긴 아이를 마지못해 낳는다는 투였지만, 언니가 가진 설렘과 기쁨은 그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러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형부의 최근 수입이 초라하고, 큰아

이와 둘째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세상에 돌밖에 없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니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지 못하는 편이었다.

이복이라 그런가, 내 속이 웅졸해 그런가…….

그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하였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돌을 내어 주면 하나 정도는 되돌아 와주는 그런 인간관계에 그녀는 익숙해져 있었다. 만약에 이복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녀에게는 다른 자매가 없기 때문에 답을 내리기가 애매했다. 가끔, 아주 가끔은 엄마 말고도 온전한 피붙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남편이 있는 지금 여전히 외로운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녀는 언니를 위한 예쁜 과일을 사고, 조카들에게 줄 돈봉투를 갖고 언니의 집을 찾았다. 베란다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줄지어 있었다.

언니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아무 때나 누가 집에 들어오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다. 임신한 몸으로 홀시 아버지를 모시고, 좁은 집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오랫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샘이 많은 언니와 긴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주 언쟁에 휩싸이곤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와도 그녀는 대체로 언니를 이해했다.

사실 처음부터 그녀가 언니를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다. 돌은 자랄

때도 수없이 싸웠지만, 형편이 다른 각각의 남자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부터 더 자주 다툼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걸 샘이 많은 언니 탓이라 돌렸고, 언니는 동생인 그녀가 자신을 언니 대우하지 않는 탓이라 여겼다. 시간이 갈수록 골이 깊어졌던 둘의 싸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잦아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몸이 아프게 되면서, 갑자기 그녀를 둘러싼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화해를 향한 서툰 몸짓을 하게 되었다. 언니도 일종의 그런 대상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것들 중의 하나. 스스로가 껴안고 끊임없이 인사해야 할 것들 중 하나.

언니가 결혼한 뒤, 늘 듣게 되는 생활고에 대한 고충을 그녀는 묵묵히 들었다. 들었다, 듣는다는 것 이외 그녀가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오래 전에 모두 끝났다. 언니가 수화기 끝에서 울고 있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언니가 가진 계좌번호를 불러주곤 했다. 그렇게 몇 번 얼마를 빌려준 후에 둘의 관계는 더 소원해졌고 더 자주 다투게 되었다.

그녀는 한때 누군가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상대가 어려운 말을 할 때는 어떤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신이 본의 아니게 실망을 주게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긴 시간 병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그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그녀는 언니와 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둘은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너, 보험 하나 들어라.”

결혼하고 한동안 보험회사 영업사원 일을 했던 언니는 툭 하면 그녀에게 보험을 들라고 권했다. 지금까지 언니의 권유로 들었다가 해지했던 보험만 해도 열 개가 넘었다. 보험 얘기에 그녀는 미간을 좁히고 눈을 흘겼다. 어림없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보니, 보험에 들어놓고도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타지 못한 게 몇 가지 떠올랐다.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금은 25일이 되면 자동으로 인출이 되는데, 정작 병원에서 쓴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내기란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 돈도 있는데, 이 년 넘으면 못 찾는다고 했지?”

“어, 얼마나 되길래 그래?”

언니는 미간을 좁히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몰라……조금은 될 거 같은데. 왜?”

그녀는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돌려 물었다.

“너, 그거 이 년 다 돼갈 동안 아직 안 찾은 걸 보면 반쯤 포기한 거 아냐?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 돈 나 줘.”

그녀는 마땅히 할 말을 잃었다. 몇 년 전 암수술을 한 뒤에 면역력이 약해 병원을 자주 가곤 했었다. 어림잡아도 적지 않은 돈이 될 것 같았다. 언니는 뭔가를 달라는 말도 두루마리 화장지가 풀리는 모양처럼 술술 잘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의 것을 달라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내어달라고 하는 것을 딱히 내어주지 못한 적도 없었다.

생각해보니 언니 말이 영 틀린 말도 아니었다. 복잡한 절차를 귀찮아하고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그녀로서는, 어쩌면 이

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럼, 그렇게 해.”

그리고 그녀는 뭔가 멋진 말을 덧붙일 게 없을까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새 조카의 탄생도 축하할 겸해서 내가 보험금은 쏘도록 하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니는 그녀가 가진 수첩을 꺼내, 보험금을 타기 위한 서류를 적어주었다.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나한테 우편으로 보내.”

그녀는 조금 후회하기도 했다. 보험회사로 보내는 거나 언니 집으로 보내는 거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병원마다 다니면서 서류를 떼느라 어느 정도 짜증이 일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언니는 동생이 못 받을 돈을 받아쓴다 생각하면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짜증은 견딜만한 정도였다. 가난한 언니가 셋째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임승수 재활의학과’를 찾았다. 시장 끄트머리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다. 지하층에는 노래방이 있고 일층에는 안경점, 그리고 이층에 병원이 있었다.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창문 밖으로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았다. 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고 활기가 넘쳐보였다. 할머니 등에 업힌 가느다란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한 손에는 롤리팝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는 사장 여기저기를 휘둘러보며 할머니의 귓속을 향해 소곤거리는 중이었다. 고목에 앉은 한 마리 어린 새, 아이는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단희 씨, 오랜만이군요! 요즘 어떠세요?”

일 년이 훌쩍 넘은 시간, 의사는 아직 그녀를 잊지 않고 있었다. ‘오

랜만'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그의 말과 달리, 설렘과 긴장이 그의 눈빛에서 드러났다. 병원을 다니던 때도 그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노라면, 이따금씩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낯선 느낌 때문에 당황하곤 했다.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요. 오늘은 초진진료차트가 필요해서요.”

그녀는 의사 앞에 앉지 않은 채 말했다. 의사는 잠깐 동안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의사의 눈길이 그녀의 신발 앞에서 머물렀을 때, 단정한 플랫폼슈즈 안에서 그녀의 발이 꿈지락거렸다. 신발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의 눈길이 멈추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진땀이 났다.

“초진차트라! 그럼 잠깐 나가서 기다리시죠.”

그녀는 서둘러 인사를 한 뒤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 작은 쥐처럼 날쌔게 그곳에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온 느낌이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의사는 마치 한 마리 커다란 고양이 같았다. 그가 위압적어서가 아니라, 그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언제라도 마음먹고 그가 다가온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병원을 나올 때, 그녀의 걸음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했던 의사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의 차에 올라탔을 테지만, 이 병원에는 주차장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걸음걸이가 쓸쓸하다는 생각을 했다.

주차장이 있는 G마트까지 가려면 시장 안을 통과해야 했다. 비린내가 나는 생선 위로 파리들이 날아다녔다.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 오랜만에 보는 파리들이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파리가 많았다. 언제인가 집 안으로 날아든 파리를 냉동실로 유인해 간단하게 잡아버린 적도 있었다. 어떻게 파리를 없애야 할지 늘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사소한 것에도 골몰하던 때, 그녀는 문득 그런 시절이 그리워졌다.

자동차 키를 찾기 위해 가방 안을 샅샅이 살폈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나가서 기다리라는 의사의 말 때문에 당황했던 터라, 어쩌면 손에 들고 있던 키를 진료실 책상에 놓고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료를 받았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사는 그저 의사와 환자 사이라고 여기기 힘들 만큼 과하게 친절했다. 주차장 문제로 사적인 말을 먼저 꺼낸 건 그녀였지만, 그 뒤 의사는 그녀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이가 몇인지 하는 것들을 예들려 묻곤 했다.

“요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주로 서서 일하거나 자세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많지요. 혹시 마트에서 서서 일하신 건 아니겠고…….”

그런 식으로 그는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알아냈다. 그녀는 고분고분한 어린아이처럼 의사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다.

그가 오늘 차갑게 대했던 것은, 그녀가 가져가려고 하는 서류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를 찝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만한 감양은 못 되었다.

그녀는 진료실로 가 자신의 키를 찾아와야 할 지 잠깐 동안 망설였다. 평소와 달리 불친절하게 여겨졌던 의사를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비상시를 대비해 가방 안쪽 사이드백에 넣어 두었던 스패어키를 꺼내 시동을 켰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의사의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시동을 끈 뒤에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잠깐 병원 앞에 나올 일이 있으니까, 병원 앞에서 자신이 직접

키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되돌아오는 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그의 말에, 그녀는 ‘지금 바로’라고 대답했다.

서둘러 시동을 켜고 핸들을 꺾었다. 마트가 있는 건물은 층층이 대형 학원을 끼고 있어 혼잡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자동차가 뒤엉켜 있는 곳을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주차장을 막 벗어나려는 찰나, 학원용 노란색 승합차가 차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앞에 서 있는 차가 비켜주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후진해본다고 한들, 주차장 안은 차 두 대가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 그녀는 경음기를 울렸다. 빨리 비켜달라는 신호였다.

머뭇대던 차가 급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우성이 들렸다. 사고가 난 듯했다.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차체를 두드리며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려고 했다. 그녀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다.

운전자가 그녀의 차를 노려보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사고가 난 곳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아이였다. 새 같은 아이, 그녀는 병원 유리창을 통해 보았던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냈다. 가냘픈 아이의 모습은 그녀처럼 쓸쓸했다. 아이의 눈동자에 담긴 공허함을 보며 아이가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지냈을 거라 생각했다. 할머니가 피를 흘리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다. 부서진 물리팝이 바닥에 뒹굴었다.

잠시 멈칫하던 그녀는 서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몰려있던 사람들이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길을 비켜주었다. 사고가 내 탓은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그렇게 자위했다.

‘구급차를 부르고 아이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그곳을 지나쳤더라면 지금보다 마음이 가벼웠을 텐데…….’

그녀는 자기가 왜 그렇게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 그녀가 지금까지 만났던 의사 중에 담배냄새가 났던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의사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기다리면서 그만……. 학교 다닐 때 피워보고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는데……."

의사는 겹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웃음을 간신히 밖으로 내보냈다. 그가 내어주는 키를 받는 순간, 둘의 손이 닿을 듯이 스쳤다. 겨울철에 이따금 마주 댄 살갗 사이에서 느껴지는 정전기처럼, 짜릿한 것이 튀어 올랐다가 곧 사라졌다.

"일전에 주신 음악 CD가 좋아서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어요."

그녀는 잠깐 동안 의사의 눈을 응시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가? 의사한테 무엇인가를 주었던 것 같기는 했다. 그게 음악 CD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다. 주전부리를 가방에 넣어두고 생각나면 사람들과 나눠 먹고 했다. 음악 CD도 가끔 나누는 적이 있었다. 대학 서클 선후배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하곤 했다. 음악을 나눈다는 것은 깊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전하는 데 제격이었다.

의사의 말이 끝났지만, 그녀는 마땅하게 대화를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바로 그 자리를 뜨기도 애매한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핸드폰 벨이 울리고 있었다. 의사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들

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시선을 주었지만, 정작 그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답례로 이걸 드리려고 책상 서랍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는데, 가신 다음에야 생각이 났어요. 키를 두고 가지 않으셨더라면 영영 드리지 못할 뻔했는데…….”

납작한 상자를 내미는 의사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그것이 그의 몸속에 있는 니코틴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들떠 있거나 경망스럽게 들리지는 않을지, 그녀는 걱정했다.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주신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이 된다면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의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아이가 제법 컸겠네요. 일곱 살인가요? 제 딸아이보다 세 살이 위였던 거 같은데. 엄마 없이 딸을 키우려니까 힘이 드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그의 형편을 알겠다는 긍정의 표시였다. 자기가 차에 올라타야만 그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해졌다.

“아빠가 있어도 애들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녀는 남편의 존재를 그렇게 알렸다. 그녀는 설핏 웃었다. 자기가 가다치 않은 상상을 하고 있고, 그 상상의 끝이 참으로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다.

의사는 허탈한 웃음을 허공에 쏟았다. 그녀는 그에게 간단히 목례를 한 뒤 그곳을 벗어났다.

막상 그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그녀는 그의 말을 새삼스레 떠올렸다. 한때, 그가 재활의학과가 아닌 정신과 의사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무슨 억지를 부리더라도 이해해줄 것 같았고, 아픔을 털어놓으면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얼마간의 섭섭함과 쓸쓸함 따위를 느꼈다. 그러다 문득, 후진하던 차에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가 떠올랐다. 그 자리를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어찌 되었건 자신이 앞차를 향해 다그치듯 경음기를 울린 탓도 있지 않았을까. 의사에게 바로 가겠다고 했던 말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더라면 앞차는 꼼꼼히 뒤를 살핀 뒤에 후진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핸들을 돌려 G마켓으로 향했다.

구급차와 경찰차 옆에 차를 세우고 걸어갈까 하던 그녀는,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듯 기웃대는 모습이 아이와 할머니의 슬픔에 무게를 더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마치 G마트에 가는 양 차를 몰았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사람들 사이에 포위된 듯 차는 멈추고 말았다. 몇 겹으로 둘러싸인 사람들 틈에 피를 흘리는 아이와 할머니의 모습에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로 보이는 사내가 울부짖고 있었다.

누군가 운전석 앞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치며 그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당황한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그만 하라고 소리쳤다. 상대는 유리창을 깨기라도 할 기세였다.

“여기 보세요! 이 여자가 경음기를 누르는 통에 내가 저 아이를 미처 못 보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는 나몰라라 하고 미안하다

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갑디다. 허, 차암 대애단한 여자요! 어디 그 쌍
관 구경 좀 하게 내려, 이년아!”

상대가 차 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친 아이를
향해 물려있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와 박혔다. 그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던
그녀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한번 터진 눈물은 좀체 제어가 되지 않
았다. 그동안 쏟아내지 못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마구 쏟아져 나왔
다. 그녀는 떠밀리듯이 사람들 속으로 빨려들었다. 일순, 그녀의 눈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임승수 재활의학과’의 임승수 의사였
다. 그도 울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한
동안 입을 열고, 동공도 열고, 온 몸의 구멍이란 구멍은 활짝 열어둔 채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구급차와 경찰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뜬 후에야 그녀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의사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에, 그의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던 이유는 딸의 사고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의 사고에
첫 번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 그런 그녀와 이야기를 하느라 어린
딸의 위급한 상황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을까.

그녀는 어제와 같은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견
딜 수 없이 지루했던 삶이 간절하게 그리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때처럼 유치원으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핸드폰에 찍혀 있던 그의 번호를 눌러, 아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

지 오늘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얻으려고 그의 병원을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의사에 대해 별다른 마음이 없었다. 남편과의 시간이 이 불을 빠는 순간들처럼 공허하고 의미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두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비어 있는 채로 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에게 음악 CD를 선물했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미루어 그녀에게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불과했다. 그저 한 병의 오렌지주스를 내민 것과 같은 일이었는지도. 그런데 상대는 그 순간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고, 긴 시간을 기다렸다니, 게다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전화마저 받지 못하게 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녀는 다시 하릴없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녀는 얼마간 망설였다. 벨이 스스로 멈추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안절부절못하며 결국 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변명이라도 그에게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락에 빠진 그에게 또 다른 실망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가 다시 연락해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일은 이렇게 되었다.

그녀가 K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를 떨찌가니 이미 보고 있었는지, 담뱃재를 처리하는 중이었다. 그는 낡은 청바지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는 자신이 피운 담배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을 씻고 오겠노라고 그녀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녀는 병원 앞의 벤치에 잠시 앉았다. 파사로웠던 별은 어느새 사라지고 곧 빗줄기가 쏟아질 기세였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가방 안에서 책을 꺼내들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독일 작가의 단편소설집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소설을 읽던 그녀가 무심코 바닥을 보았을 때 붉은 꽃을 들고 바닥에 꿇어앉은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일어서고 말았다.

“아, 저는 단지……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걱정이 되어서…….”

당황한 그녀는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는 듯이 읊조렸다. 하지만 정말 그제 다일까, 그녀의 내면에서 그렇게 묻고 있었다.

“아이는 괜찮아요. 곧 한 번의 수술만 더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이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건……알고 있지만……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빗줄기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양막이 드리우고 있는 문 안쪽으로 그가 들어오길 바라며 조금 물러섰다.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했죠? 아무렇게라도 좋아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냥……가끔씩……얼굴만이라도…….”

떨리는 그의 목소리가 닫혀있던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어느 깊은 곳에서 울컥 복받쳐 오르는 데가 있었다. 안구건조증 때문인지 다행히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쩌면 빗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뻘근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혔다. 그가 손에 들

고 있던 꽃이 바닥에 떨어졌다. 누군가의 무심한 발길이 그것을 밟고 지나쳤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예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놀랍게도 말하는 내내 그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초월한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눈동자는 타오르는 듯이 광채마저 느껴졌다.

“당신은 정말 잔인하군요. 나로 하여금……눈이 멀게 하고……. 지난 일 년 동안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병원 문 앞에서 서성였는지……. 우리 인연이……그 사고마저 운명이라 믿게 하고……이렇게 가버리겠다는 건…….”

“죄송해요. 모든 것은 단지 사고였어요. 그때 허리를 다쳐서 임승수 재활의학과를 찾았던 것처럼.”

그녀는 마론인형처럼 일어서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의 얼굴을 건조한 발길로 지나쳤다. 꽃집 앞에서 우산을 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받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곧 임승수 재활의학과 의사를 생각해 내었다. 그가 받지 못했던 전화는 아이의 사고를 알리는 전화가 아니었던가. 그녀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꺼내, 헛기침을 안으로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 서류 속에 넣은 게 뭐니? 이 남자 누구야? 제부는 아닌 거 같고……학교 다닐 때 만났던 사람이야? 이거야말로 반전이네! 대체 어떤 남자길래 아직까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언니는 호들갑스럽게 한참을 떠들고 난 뒤에,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확인했다. 마치 수족관에 있던 참돔이 물 밖에서 찬란한 비늘을 뒤흔들며 팔딱거리는 것처럼……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언니는 그 사진이 보험서류에 함께 들어 있던 사진이라고 했다. 아, 오랫동안 그가 고민하다 보낸다던 선물…….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서류를 독촉하는 언니에게 시달려 정신없이 서류봉투를 보냈었는데, 그 안에 그가 보낸 선물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았다.

언니가 보낸 사진 속에서 그녀와 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함께 찍은 사진. 이미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진 대학시절, 그녀는 그와 소개팅을 했던 것 같았다. 그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진 남학생이 무리 중에 끼어 있었고, 커플이 된 남녀마다 사진을 한 장씩 찍어 주었다. 아, 그녀는 마치 훼손된 필름을 복구시키는 것처럼 힘겹게 지난 일을 되새겼다.

운명……. 그의 말이 그녀의 가슴속에 커다란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그 CD만을 말한 게 아니었다. 그 짧은 시간 이전의 길고 먼 시간 속에 들은 만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곱사등이를 사랑할 남자가 있을까. 자궁을 잘라낸 뒤에는 제 모습이 그렇게 여겨졌다. 자궁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그는 여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 마치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암 덩어리가 생겼고, 얼마간의 투병 끝에 여성을 잘라 내었다는 것을 안다 해도 그의 마음은 여전할까. 아래로만 향하는 시선, 자기 안으로만 파고드는 상념,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알량한 자존심……. 그녀는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고 있던 그를, 그의 두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렸다. 그가 흐느끼던 그 벤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쪽 어깨에 의지해 불안하게 잡고 있던 우산을 내던졌다.

비 따위는 내리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온 몸은 흠뻑 젖은 채로 빗속
을 걷기 시작했다. 이진 아주 사소한 일일 뿐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곱씹었다.

겨우내 잠자고 있던 식물들이 고개를 들고, 찬란하게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향해 몸을 틀었다. 김 여사는 새봄을 알리는 해가 반가워, 창마다 블라인드를 열고 작렬하는 별이 집 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도록 했다.

어쩐 일인지, 아이들이 애지중지하는 황금 붕어 두 마리가 죽어 물위로 떠올랐다. 붕어도 열대어 키우는 것과 비슷해서 해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터라, 난감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슬퍼할 일이 마음에 쓰였다. 아니나 다를까, 죽은 붕어를 보며 큰 아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물에서 썩은내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물을 갈아주어야 하는데…….’

비위가 약한 김 여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전에도 햄스터를 키우다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큰 아이와 함

께 흠이 있는 곳에 묻어주었다. 죽은 붕어는 햄스터보다 더 오래 가족과 살았으니, 정도 깊어져 양지바른 곳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만, 죽은 시체를 변기통에 넣고 말았다. 더군다나 다섯 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김 여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연애만 칠 년을 하고,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않은 채 결혼을 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는 사사건건 부딪치기 일쑤였다. 남편 안에서는 수많은 인격이 재탄생하고 있었다.

“당신을 시체유기죄로 체포하겠어! 벌칙으로 일주일간 아침밥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아니……어떻게 하면 애가 보는 앞에서 죽은 생명을 변기통 안에 버릴 수가 있어? 아침마다 정성으로 물고기밥을 주던 아이들이 안 보였나 보지? 이제 눈까지 어떻게 된 거야?”

단 두 문장으로 끝냈으면 남편도 어느 정도 반성하고 말 일을, 김 여사가 요즘 남편에게 하는 말들은 가시가 돋친 채로 상대방에게 투하되었다.

남편도 지지 않았다.

“그렇게 애들 마음 생각하는 사람이, 낮에는 뭐한 거야? 낮에 좀 물어주지 그랬냐고. 지난번에 햄스터도 내가 묻은 거 기억 안 나?”

“살아있는 녀석도 만지지 못했는데,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느새 김 여사는 얼굴이 별장게 달아올랐다.

“그럼 엇그제 냉장고 안에 있던 고등어는? 그 큰 물고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서도 괜찮고, 이깃 붕어는 이렇게 생난리를 쳐도 된다는 게 무슨 논리냐고!”

남편도 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잊고 이렇게 소리쳤다.

“미친 인간!”

화가 나면 김 여사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에게 그렇게 쏘아댔다. 동갑이고, 캠퍼스 커플이라 친구처럼 지내왔던 세월이 대화 내용을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연애를 할 때, 아니, 둘째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다혈질인 김 여사가 화를 내면 남편은 저자세였다. 집밖으로 큰소리가 새나가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았다. 남편은 김 여사보다 주변사람들의 평가나 관심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너한테 아침밥 얻어먹은 지가 언제냐? 무슨 놈의 벌칙이 허구헌날 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아, 김 여사는 당황했다. 남편은 가끔 감성이 넘치곤 했는데, 그게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탕탕볼처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생각이었다. 연애할 때는 슬픈 영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남편이, 결혼한 뒤에는 휴먼다큐를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김 여사는 오랫동안 남편이 여리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에 아이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동심을 무시하려고 할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인 듯 여겨졌다. 혹시 남편의 몸에 다른 사람이 빙의라도 된 것이 아닐까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침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애들 아침은 챙기고 나는 왜 맨날 굶기려고 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이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봐라. 너 같은 악처는 세상에 없다!”

“흥! 세상을 지배한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악처가 있었다는 걸 모르나 보지? 제발 좀 인간이 돼 보시지.”

김 여사가 벌칙을 ‘아침 굶기기’로 정한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바로

그녀가 아침잠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그녀의 유일한 취미가 시작되었다. ‘드라마 시청하기’. 그런데 마치 어릴 때 하던 우표수집처럼, 드라마란 드라마는 다 수집해서 본다는 게 어찌 보면 병적이기까지 했다. 야심한 시각까지 ‘나 홀로 드라마’ 시청에 몰입하느라, 남편이 출근하는 것도 못 보는 일이 허다했다. 그녀에게 드라마란 유일한 출구였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지내며, 마치 식순이처럼 전략한 자기 인생이 휘황찬란하게 변화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그녀는 화려한 주인공으로 빙의되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옥신각신한 뒤에, 가까스로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 두 시가 넘어서야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남편을 위해 마련한 서재 용도로 쓰는 방을 청소한 지가 한참이나 되었지 싶어, 먼지라도 닦아낼 겸 해서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남편 이름이 적힌 건강검진표와 S대병원 진료예약증이 있었다.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 건강검진표를 확인했다. 위장 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이 있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진작 아침밥 좀 챙겨 주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김 여사는 어느새 훌쩍훌쩍,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파노라마처럼 남편과의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생각해보니 그는 대학시절 최고의 왕자님이었고,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자기에게 주었던 절대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다툼은, 웅색한 마음으로 사사건건 남편에게 트집을 잡은 탓이었다. 해가 어스름히 떠오를 즈음, 그녀는 남편의 침대로 가 팔을 뻗었다. 남편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등을 돌렸다.

“왜 말 안했어?”

“뭘?”

“S대병원 예약해 둔 거…….”

“아, 그거……이상 없대. 일 년에 한 번 검사만 잘 받으면 된대. 암인 줄 알고……나도……흠…….”

김 여사는 화들짝 일어나서 다시 서재로 갔다. S대병원에 예약된 날 짜를 확인해보니, 어제였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한 지 한참이나 되었는데, 이제야 확인을 하다니……。 두 아이 예방접종이며 건강검진에는 온 신경을 세우면서, 정작 남편에게 무시했던 지난 시간이 후회스러웠다. 아, 김 여사는 안도하면서 스르르 눈을 감았다.

“여보! 오늘도 아침밥은 없는 거야?”

김 여사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아, 여보……차려줄게……아…….”

꿈속에서는 그녀는 화려한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아침밥을 차리는 중이었다. 저 너머 아득한 곳에서 남편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익숙한 사랑

사랑은 더디게 온다던 어느 시인의 말

가슴 설레며 만나
아이 낳아 키우고
티격태격 하며 십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세월에도

사랑을 모르겠다.

피붙이처럼 가까운 사이인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나?

미안하다 사랑아,
너는 없는 거 같다

너는 없고
그리움만 있는 거 같다

그리움은 더디 오고
그러면서 가슴 벅차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웃게 한다

그리움으로 살아진다.

세 청수장

새벽 마실 왕벚꽃나무 왕밤나무 숲을 이루고 도토리 지천에 깔리고
시냇물 졸기졸기 흘러 바위틈을 살금살금 다람쥐 뛰놀고 아버지 웃음
소리 할랑이는 나뭇잎 새로 피져간다 흙이 방귀 뀌고 산짐승이 오줌
누고 지린내에 코를 벌름이면 약숫물 떠서 손에 들고 마음은 저만치
아버지 계신 곳 비단길 걷는다.



최득남 편

수필 부모님 노래

철없는 고민

고소하고 달콤한 추억

거리에 어둠이 깔리자, 여기저기 네온사인 불빛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비춘다. 우리 가게 유리문에 비친 바깥 밤거리는 오고 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북적거린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밤거리가 나는 좋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내 정신세계를 편안하게 이끌어 준다.

나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 낮과 밤이 천지차이인 시골. 낮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여러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생생히 보이는 반면, 밤만 되면 온 사방이 어둠에 잠기는 것이 싫었다. 물론 밤이 되면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수를 놓고, 맑디맑은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려서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으스스하면서도 썰렁한 분위기 자체가 싫었다.

도시의 삶은 밤낮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밤의 도시가 낮보다도 훨씬 정겹고 인간적인 요소가 훨씬하다면 지나친 말

일까.

우리 가게는 치킨집이고, 이 층은 노래방이다.

어느 날 밤, 이층에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다. 어떤 손님들이 술자리 뒤풀이로 노래방에 올라가다가 우리 가게 업종을 눈여겨본 모양이었다.

노래방에 치킨을 배달하고 나오다가, 문 앞 입구에 적혀있는 노래 제목들이 얼핏 눈에 띄었다.

‘인기모음’이라고 쓴 큰 글씨로, 눈에 확 띄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다. 그 중에서 ‘여자의 일생’이란 제목이 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처럼 눈에 쏙들어왔다. 그 순간, 엄마와 아버지가 생각나며 그리움이 밀려왔다.

몇 년 전 아버지 생신날이었다.

아버지 생신날은 하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이다. 새벽이면 고개를 뺏뺏이 쳐들고 있던 나뭇잎이나 풀잎들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따가운 햇살을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 점심 때가 되면 축 늘어진다. 음식들은 만들자마자 냉장고로 향하고, 짹짹 들어찬 냉장고는 터지기 직전이다. 개도 무더위를 피해 그늘진 곳 땅을 헤집고 배를 바닥에 깔고도 모자라 햇바닥을 길게 내밀고 헉헉거린다. 사람들은 “더워, 더워”를 입에 달고 있다. 선풍기를 틀어도 뜨뜨미근한 바람만 나와 도움이 안 된다. 더위를 식히려 샤워를 해 보아도 그 순간뿐이다. 산에 가도 바람 한 점 없고, 계곡에 가도 물이 미지근하여 발을 담그나마나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아버지 생신날이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짝에서 땀이 줄줄 흐른다.

그래서 음식 장만은 조금만하고 점심을 사먹기를 권하지만, 아버지는 동네 친척, 어른들을 집에 초대해 대접하시기를 원하였다. 예전부터 누구든지 생신날이면 동네어른들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고, 또 당신도 대접을 받으셨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자식인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생신날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다. 흐르는 물소리라도 들으며 유원지에 가서 놀고도 싶었다. 더군다나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슨 날에나 겨우 모이는 우리에게는 소원에 가까울 만큼 간절했다.

어쨌거나 드디어 아버지 생신날이 되었다.

우리들은 동네분들 초대해 점심을 대접하고, 오빠네 가족은 다른 행사 때문에 먼저 갔다. 딸들 네 가족과 부모님만 남았다.

작년에는 각자 집으로 향하기 전에 언니와 동생들은 내 제안으로 다른 데 들러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을 가졌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엄마와 아버지가 들으셨나 보다. 이날도 너무 더워 다들 서둘러 돌아가려 짐을 챙겨 나오자, 엄마랑 아버지가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지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우리들은 섭섭해서 그러려니 하며 각자 자기 차에 올라탔다. 다들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쪽 빼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엄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추석 때 내려올게요.”

“벌써 가려고 그래? 잘 가라.”

그러면서도 엄마는 내 자동차 문짝을 잡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다. 아버지는 엄마 뒤에서 뒷짐을 지고 헛기침만 하셨다.

“왜요, 아쉬워요? 아니, 바람 쐬러 가자고 해도 싫다하고, 날씨는 너

무 덩고 여기 있으면 뭐해요. 집에 빨리 가서 쉬든지, 어디 들러 놀다 가야지.”

내가 말했다.

“그래, 잘 가라.”

엄마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엄마, 아버지랑 같이 바람 쐬러 가실래요?”

“어딜? 같이 가도 돼?”

그러면서 엄마는 아버지를 쪽을 돌아보셨다.

“가긴 어딜 같이 간다고.”

아버지는 엄마를 나무라는 것 같았지만, 은근히 구미가 동하는 눈치였다.

“엄마, 아버지는 가기 싫으신가봐. 그냥 엄마만 타. 아버지 집에 계신데 해. 아버지, 안 타시면 그냥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른 엄마는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셨다.

“어서 안 탈 거예요? 싫으면 집 지키고 있어요. 나는 애들 따라 바람 쐬고 올 테니.”

엄마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아버지는 당황하셨다.

“가긴 어딜 간 다구 그래. 잠시 기다려봐. 옷 갈아입고, 문 잠그고 올게.”

아버지는 못 이긴 척, 집에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헛기침하며 나오셨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습고 좋아서 우리가 깔깔 웃자, 아버지는 무안한지 못 들은 척하셨다. 엄마는 아버지가 차에 타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잘 가라 인사하며 은근슬쩍 차에서 내렸을 것이 뻔했다.

우리들은 처음인 부모님과 나의 나들이에 신바람이 났다. 나는 고개를 유리창 밖으로 쏙 내밀고 말했다.

“야, 깊이올 유원지 오리구이집으로 가자.”

“알았어. 따라갈게. 먼저 앞장서서 가, 언니.”

죽이 잘 맞는 막내동생이 말했다. 조카도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내가 운전하고, 언니는 조수석에 앉고, 엄마와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으셨다.

“아버지, 깊이올 유원지 오리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서 가깝고 고기 맛도 좋아요.”

나는 전방을 응시하고 운전 하며 아버지께 말했다.

“나도 몇 번 가 봤어, 친구들하고.”

“거기 음식 괜찮지요? 정치도 좋고, 음식도 싸고, 푸짐하고.”

“동네에서도 거기 많이들 가.”

“네.”

나는 다행이라 생각했다.

오리집으로 들어서자 큰 방을 하나 부탁했다. 아이들까지 열 명이 넘었다. 한 방이 우리가족들로 꽉 찼다. 푸짐한 음식과 함께 소주도 따라 나왔다. 한잔두잔 마시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다.

“아버지, 엄마. 앞으로 이런 시간 자주 가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흔쾌히 승낙해주셨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한 방에 모여 북적거리며 대화하고 맛있게 먹는 것이 보기 좋았는지 너털웃음을 지으며 엄마에게 농담도 던지셨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평소에도 농담을 잘 하시는 편이다.

“너희 엄마는 두고 왔어야 했는데, 괜히 데려왔어.”

그러자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받으신다.

“어휴, 참!”

“내가 너희 엄마 시집오면서부터 여태까지 먹여 살렸어. 봐봐, 잘 먹여서 살이 통통하잖아.”

“그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밥도 안 먹이고 부려먹으려 했어요?”

“알았네, 한 잔 더 하게나.”

아버지가 엄마에게 소주병을 내밀자, 엄마는 미소지으며 잔을 내밀었다.

우리들은 두 분 모습을 보며 배꼽을 쥐고 웃었다. 맛있게 먹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음식을 먹다 말고 내가 계산하러 일어서는데,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다. 당신이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니예요, 아버지. 제가 맛있는 것 사드리려고 모셔왔는데, 제가 내야지요.”

“어허! 내가 낸다는데도 너는 그러냐. 가만있어.”

아버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카운터로 얼른 가시더니 구지 계산을 하셨다.

우리들은 기분도 좋고 배도 불러서 밖으로 나왔다. 해가 누엣누엣 지고 사방이 어스름해지자 네온사인들이 하나 둘 켜지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산 속이라 다른 곳보다 어둠이 일찍 찾아왔다. 노래방 간판이 눈에 띄었다. 기분도 좋을 뿐 아니라 시간도 집으로 돌아가기에 어중간하므로,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우리 노래방 가요. 이렇게 나온 것도 처음인데, 그냥 집으로 가면 아쉽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들과 조카들이 ‘노래방, 노래방’ 하며 외쳐댔다.

“그래요, 아버지. 같이 노래방 가요.”

언니도 거들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러지 뭐’ 하시며 쾌히 승낙해 주셨다.

우리는 아이들 방과 어른들 방으로 두 개를 예약했다. 어두컴컴하던 방 안에 우리가 들어서자 조명들이 화려하게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다.

엄마랑 아버지도 쇼파에 앉고, 동생들과 제부들도 앉았다. 성질 급한 언니는 노래방 기계로 다가가더니 어느새 노래를 선택했다.

신나는 곡으로 언니가 먼저 노래를 부르자, 분위기는 나이트클럽 분위기로 바뀌었다. 제부들은 적응이 안 되는지, 은근슬쩍 밖으로 나가더니 조카들 방으로 옮겼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브루스 추는 흥내도 내보고, 디스코도 추고, 지르박도 쳐보았다. 못 추는 춤을 억지로 추려니 코미디가 따로 없어 모두 깔깔거렸다. 부모님 앞에서 우리들의 재롱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랑 엄마는 웃고만 계셨다. 딸들이 노는 것이 보기 좋은지 박자에 맞춰 손뼉도 치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한 참 달아오르자, 나는 노래곡목을 적은 책을 들이밀며 말했다.

“아버지랑 엄마도 한 곡 하세요.”

두 분은 노래를 못한다며 고개를 흔들고 손사래를 치셨다.

“그래도 한 곡 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목만 말씀하세요.
제가 찾아 드릴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자 옆에서 엄마가 거들었다.

“유정천리. 너희 아버지는 그 노래 좋아하셔.”

우리들은 노래책 하나씩 나눠 가져 일제히 찾기 시작했다. 동작 빠른 언니가 번호를 찾아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아버지께 마이크를 드렸다. 소파에 앉아 부르려고 하시는 것을, 일어나서 불러야 제 맛이 난다며 구지 일으켜 세웠다. 들어본 제목 같기도 한데 무슨 노래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귀에 익은 반주가 나왔다. 우리들은 아버지를 빙 둘러싸고 박수 칠 준비를 하였다.

아버지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셨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파리에 황혼 빛이 젖어드네

손뼉을 치다 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들은 조용히 서서 아버지 노래를 감상했다.

세상을 원망하라 내 아내를 원망하라

누이동생 혜숙이야 행복하게 살아 다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이나
유정천리 꽃이 피네 무정천리 눈이 오네

순간, 우리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구수한 노랫가락과 가사에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나왔다. 이처럼 진지하게 아버지 노래를 감상하기는 처음이었다. 자식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진심을 담은 노래 같아서였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아서,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서 ... 분위기는 조용했다. 언제 아버지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던가? 이토록 진지하게 부르시는 노래를. 어쨌거나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엄마도 우리들의 반강제 성화에 노래를 선곡했다. 엄마 차례가 되었다. 노래 제목은 ‘여자의 일생’이었다. 우리 딸들은 모두 밝은 화면 앞으로 나갔다. 엄마가 화면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네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엄마노래를 듣는 동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 가사는 여자의 일생이 아니고 엄마의 일생 같았다. 두 분 다 노래를 잘하셨다. 그동안 힘든 시절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참고 견디셨을까? 엄마, 아버지 노래는 슬픈 울림으로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 어깨가 어느새 굽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혀 할아버지로 변해 있었다. 말수도 많이 적어지셨고, 치아도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했으며, 귀가 잘 안 들린다고도 하셨다. 우리들이 치아와 보청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필요 없다며 극구 사양했다. 당신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고집에 우리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상한 우리들이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어도 좋은데 여전히 꾀꾀하게 버티시는 아버지가 애처로우면서도 화가 났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기대셔도 됩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들은 튼튼한 뿌리를 내렸고, 이제 시원한 나무그늘을 만들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기대셔도 돼요. 아무튼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잘 견디시고, 두 분 다 건강하시니 저희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문학저널 신인상 수필 당선작〉

어린 시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참 대책 없는 개구쟁이였다. 앞마당에 풀어 놓고 키우던 개들 중에 거의 망아지만한 큰 누렁이 등에 타고 놀며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했다. 나를 보면 눈치껏 슬금슬금 피하는 개들이 재미있었고, 동네 꼬마친구들에게 나의 씩씩함을 과시하는 기분도 좋았다. 친구들은 우리 집 큰 개를 보면 무서워 도망가기 일쑤였지만, 나는 그렇게 큰 개들을 내 풀마니처럼 함부로 대했다. 태어난 지 한 달 정도인 어린 강아지를 목줄에 매어 밖으로 끌고 나가 함께 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배고프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것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할머니는 제사 지내고 남겨 놓았던 먹을거리를 꺼내 주셨다. 종이로 꼬깃꼬깃 싸서 고쟁이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사탕이나 밤, 꽃감, 약과 따위였다. 엄마가 가마솥에 지은 밥 일부를 누룽지로만 들어 끓여모아 둔 것도 내 간식거리였다.

그처럼 신나게 뛰놀고, 맛있는 것 먹고, 졸리면 자고……아무런 걱정이 없던 나에게 뜻밖의 고민이 생긴 것이다.

내 나이 다섯 살쯤, 여름이 가을로 넘어갈 무렵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옷을 만들고 계셨는데, 나는 옆 방바닥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며, 모처럼 한낮의 시간을 엄마와 함께 즐기고 있었다. 엄마는 옷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셨다. 아주 작고 앙증맞아 내가 입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것은 아기옷이었다.

잠시 후, 엄마가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은 내 키보다 컸다. 엄마가 거울 앞에 서서 옷옷을 올리고 배를 드러내 이리저리 살폈다. 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엄마를 뺨히 쳐다봤다.

엄마 배는 풍선처럼 아주 크게 부풀어 있었다. 나는 엄마 배가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엄마가 말했다.

“남이야, 엄마 배 좀 봐. 엄청 크지?”

“응, 근데 배가 왜 그렇게 커?”

“이 안에 네 동생이 있단다. 다음 달이면 동생이 태어날 거야.”

“아!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배가 부르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신기한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농사를 짓는 우리 집에서는 여러 가지 콩 종류를 유난히 많이 심었다. 검정콩, 메주콩, 강낭콩, 완두, 팥, 녹두, 등등…….

엄마는 골고루 바뀌가면서 콩을 넣어 밥을 짓곤 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강낭콩이 섞인 밥이었다. 다른 콩은 다 골라내어, 옆에서 진지 드시는 아버지께 다 주면서, 강낭콩은 잘 먹었다. 밥에 콕콕 박혀 있는 강낭콩을 손가락으로 쓱쓱 빼 먹었고, 배가 불러도 강낭콩 때문에 수북한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다 비웠다.

그뿐이 아니었다. 저녁식사 후에도 우리 식구들은 툇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위도 식힐 겸 모기를 쫓으려고 마른 쭉으로 모깃불을 피워놓고 참외, 고구마, 감자 따위를 간식으로 나눠 먹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습관처럼 되어 있었고, 시골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소박한 즐거움이기도 했다.

그날은 강낭콩 때문에 저녁밥을 과식한 데다 식탐으로 간식까지 많이 먹었는데, 그게 탈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늦게야 눈을 뜬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배가 탕탕하도록 볼록했기 때문이다.

‘아니, 내 배가 왜 이래?’

순간, 동생을 낳기 전 엄마의 배가 얼른 생각났다.

‘엄마도 배가 엄청 크더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걸 어찌지?’

갑자기 걱정이 태산처럼 커져 머리가 지끈거렸다. 보고 또 봐도 엄청 큰 배였다.

혼자 고민 고민하다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아침공기가 참 싱그러웠다.

다른 때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밥 짓는 동안 개나 강아지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소여물 끓이는 사랑방 부엌으로 가서 기웃거렸을 것이다. 내가 안방에서 나오자 어미개와 강아지가 놀자고 꼬리를 치며 다가왔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저리

가라고 막대기 들고 때리는 척했다. 그런 내가 이상한지, 어미개는 새끼를 데리고 어슬렁어슬렁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나는 엄마를 찾아 안채 부엌으로 갔다. 엄마는 가마솥에 밥을 짓고 계셨다.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 것처럼 하면서 엄마 눈치를 살피며, 고백을 할지 말지 한참을 고민했다.

엄마는 내가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않고 퐁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갔다 어슬렁거리자 좀 이상한지 흘깃 바라보았으나, 조반준비에 바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식칼로 감자를 손질하는 엄마의 빠른 손놀림을 지켜보며 망설이다 말고, 드디어 용기를 냈다.

“엄마.”

“응?”

엄마는 감자를 칼로 썰면서 대답했다.

“있잖아…….”

“그래.”

엄마는 눈도 맞추지 않았다. 내가 누렁지 달라는 의도로 땀을 들이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가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나,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엄마가 비로소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게…….”

하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숨 한 번 쉬고 그냥 밖으로 나왔다.

부엌문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니 파란 빛이 눈부셨다. 어쨌거나 엄마

한테는 말해야 될 것 같았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구원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부엌에 들어갔다.

“엄마.”

“애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뭔데 그래?”

“나 참 이상해.”

“뭐가?”

“나, 배가 많이 나왔다.”

“그래?”

비로소 어머니는 조금 관심을 보이셨다.

나는 얇은 옷옷을 얼른 훌쩍 들쳐 배를 보여주며 말했다.

“봐. 배가 이렇게……. 아기가 들었나 봐.”

“뭐라고?”

눈이 뚱그래서 나를 바라보던 엄마가 갑자기 깔깔 웃었다.

“아기 생긴 거 맞지? 응? 엄마. 나 어떻게 해?”

내가 울상이 되어 보채자, 엄마가 웃다 말고 타이르셨다.

“남이야, 그건 밥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그렇게 된 똥배야. 아기가
든 게 아냐.”

“정말?”

“정말이고말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뱃속에 아기가 생기진 않아.”

“진짜? 진짜지, 엄마?”

“그렇다니깐.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하겠니? 걱정 말고, 발에 가서 아
빠한테 밥 다 되었으니 오시라고 해.”

그제야 엄마의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머

리가 파란 하늘만큼이나 맑아지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신바람이 난 나는 부엌을 나오자마자 소리쳐 개들을 불렀다.

“메리, 예삐, 도꾸야!”

개들은 기분이 환한 나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나는 강아지들을 힘껏 안아주었다. 엄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웃고 계셨다. 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요즘도 가끔 음식을 많이 먹어 불룩하게 나온 자신의 배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혼자 속으로 웃고는 한다.

어렸을 때의 추억은 무엇 하나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문학저널 신인상 수필 당선작〉

지금은 먹을 것이 흔한 세상이 되었지만, 1970년대 초 나의 어린 시절에는 군것질거리가 흔치 않았다.

겨울이면 혹독하게 춥고 눈은 또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추위에 온몸이 오그라들 정도였다. 산자락 응달진 곳이나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곳은 허연 눈이 항상 수북이 쌓여 있었다. 기나긴 겨울날, 고구마나 감자, 무 등 간식거리가 떨어질 때쯤 명절이 다가와, 한적한 시골도 설날 준비로 갑자기 바빠졌다.

이때쯤이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뽕튀기장수였다. 가을철 딱딱해진 옥수수를 하나하나 따서 잘 말린 후, 일부는 소에게 먹이로 주고 일부는 강냉이를 튀겨 간식으로 먹었다.

명절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뽕튀기장수는 시골동네들을 한 바퀴 돌았다.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나타났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 날씨가 쌀쌀한데도, 마을 공회당 앞마당에 뽕튀기기계를 설치했다.

순식간에 앞을 다튀 옥수수자루가 일렬로 늘어섰다. 주로 옥수수를 재료로 하는 뽕튀기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동네아이들은 뽕 둘러서서 기계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오랜만에 고소하고 달달한 강냉이 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얼굴들이다. 기계는 아저씨 손의 속도에 맞춰 빙글빙글 잘도 돌아가고 있다. 날씨가 추운 탓으로 아저씨는 두터운 점퍼를 입고, 시커먼 병거지 모자를 쓰고, 때가 꼬질꼬질한 면장갑을 끼고 있다. 한손으로는 기계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기계 밑에 설치된 깡통에 나무토막을 집어넣으며 화력을 조절한다. 약간 구석진 자리에는 왜소한 또 한 아저씨가 역시 털모자를 쓴 채, 작은 손도끼로 장작을 켜다. 장작을 작게 쪼개고 잘라서 불을 때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기계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뽕’하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린다. 어떤 아이는 자기네 집에서 가져온 옥수수알갱이가 몇 번째 깡통에 들어있는지, 세고 또 세고 있다. 조금 앞자리를 차지한 아이는 밝은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나란히 줄지은 깡통 속에는 옥수수 알갱이, 쌀, 콩, 수수……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튀밥재료가 들어있다. 추운 날씨에 발이 시려 발을 동동 구르며 손에 하얀 입김을 호호 불면서도 뽕튀기가 터지길 기다린다. 아이 손에 이끌려 나온 할머니나 어머니의 모습도 보인다.

기계를 돌리던 병거지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불쏘시개를 옆으로 치울 때면, 아이들은 뽕 소리가 임박해졌음을 알아차린다. 아저씨는 작고 단단한 막대기를 기계에 꽂고 한손으로는 기다란 망태기를 기계에 덮어씌우며 귀를 막으라고 소리친다. 할머니는 어린아이가 놀랄까봐 손자나 손녀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주고, 조금 자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귀를 꼭 틀어막는다.

드디어 뽕 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하얀 연기와 함께 고소한 냄새, 달달한 향기가 온 동네로 퍼져 나간다. 아이들은 귀를 막았던 손을 내리고 고소한 냄새와 달달한 향기에 깊은 숨을 들이 마신다. 기분 좋은 냄새는 코를 타고 아이들의 뇌를 자극한다.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튀밥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자기네 뽕튀기를 마친 아이는 튀밥을 한 움큼씩 돌린 후 발걸음도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며 자리를 뜬다. 아이들은 사라져가는 아이 뒷모습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가끔 친척이나 친구가 강냉이 튀밥을 한 움큼 쥐어주면 아이들은 하나씩 나눠 먹으며 빨리 자기네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한 아이가 뒤늦게 눈이 툭툭 붓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나타났다. 약간은 멧쩍은 듯 씨익 웃는다. 승리의 미소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한 사연인지라 같이 웃어준다. 분명, 뽕튀기 해달라고 집에서 떼를 썼을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성화에 못 이겨 옥수수 알갱이와 얼마간의 돈을 주었을 것이다.

뽕튀기 소리는 온 동네로 울려 퍼지고,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아직 차례가 안 된 아이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 뽕이요!”

병거지 아저씨는 혹시 누가 놀라 넘어지거나 무서워서 울음을 터트릴까봐 미리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주위를 주었음에도 한 어린아이가 겁이 나서 울음을 터트렸다. 병거지 아저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튀밥 한 움큼을 손에 쥐어준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고, 코는 훌쩍거리면서도 강냉이는 아이 입속으로 들어간다.

어느 순간, ‘뽕’ 소리와 ‘퍽’하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허연 연기와 함께 강냉이 튀밥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귀를 막고 있던 아이들은 큰 환호성을 지르며 땅바닥에 떨어진 강냉이를 주워 모으기 시작한다. 살이 오동통하게 부풀려진 강냉이를 주워 입김으로 호호 불고는 맛있게 먹어댄다. 동네 개구쟁이 오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병거지 아저씨가 한눈을 판 사이 몰래 망태기 끝 부분을 풀어 놓았던 것이다.

오빠들은 아저씨 몰래 아이들과 미리 눈을 맞추고 검지를 세워 입으로 가져가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이들 모두 공범이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튀밥을 아이들이 주워 모으는 광경을 본 아저씨는 어이없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좋아 행복해 한다.

아스라한 기억 저편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날아와 내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한다.

유년 시절 추억이 너무 그림다.

성북문화원은

구민문화 창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성북문예 창간호

기획 | 손영목

진행 | 강성봉, 강민정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3년 10월 25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박현주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3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성북 문예

2013 창간호

비오는 날의 정경

강명화 편

김시영 편

서향근 편

소재수 편

손순옥 편

심희진 편

이미숙 편

이지안 편

최득남 편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거움

비매품

